



1

주체99(2010)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99(2010)년 제1호

(루계 제 747 호)

차 례

새해의 축원	4
당창건 65년이 되는 올해에 문학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5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6
우리에게는 김정일동지께서 계신다	7
달력은 단순한 수자가 아니다 외 1편	7
주체문학의 대강	8
샘물에 깃든 친어버이사랑	8
새벽 3시에	9
경구, 격언	9
열매	10
백리향	20

축포에 대한 생각.....	21
쇠물꽃바다.....	21
더 높은 목표에로.....	22
나의 시, 나의 노래와 함께.....	22
시대가 긍정하는 소설을!.....	23
백배의 노력으로.....	23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시대의 명작창작을 힘있게 선도하는 평론을!.....	24
따뜻한 1월.....	25
오산덕이 기다린 날.....	26
오늘의 최전선 외 1편.....	27
내 한생 감아도.....	28
우리 시대의 참다운 애국자의 형상.....	29
눈보라.....	32
뜻깊은 새해에도.....	44
가보.....	45
식민주의가 낳은 인종들.....	58
대륙간탄도미싸일.....	58
우리의 주인공들은 젊다.....	59
굴할줄 모르는 정신력으로.....	62
아름다운 저녁노을.....	63

갈등설정과 구성의 특색	73
심장발작때	74
작가 엄홍섭의 해방전 창작활동	75
《술에 취했을 때 한 약속은 무효》	76
해방전 진보적동화문학에서 형상수법의 특성.....	77
《래일》에 비낀 주인공의 형상적매력	79

새 해 의 축 원

김 춘 길

흰눈은 내리고내려
산과 들에 쌓이고
간절한 소원
불타는 마음
꽃송이마다 피워안고
아버이장군님 우리러
삼가 뜨거운 인사 드리는 우리의 새해

또 한해 달려갈 승리의 자욱자욱
우리 조국의 찬란한 래일을 약속하며
이 땅의 산과 들마다
축복의 꽃보라인양 조용히 내리는
하이얀 눈송이

송이송이 하많은 사연 속삭이며
끝없이 내리는 흰눈송이야
지나온 한해를 못 잊어서인가
장군님 헤쳐오신 전선길의 낮과 밤이
위대한 전변의 새 력사로 펼쳐져
너도 격정에 목메이느냐

눈내리는 이날처럼 한해전 그날
떠나신 길 멈춰선적 없으신 장군님
온 나라 공장과 농촌
최전연병사들과 함께 계시며
새로운 비약의 폭풍으로
변이 나는 해의 기적을 창조하셨거니

우리 조국이 또다시 올라설 승리의 봉우리
새 전설들이 태어날 뜻깊은 해
장군님 이해에도 헌신의 자욱 새기시며
인민이 누려갈 래일의 행복을 앞당기시리
조국의 위용 또다시 펼쳐주시리

흰눈아 속삭여다오 이야기해다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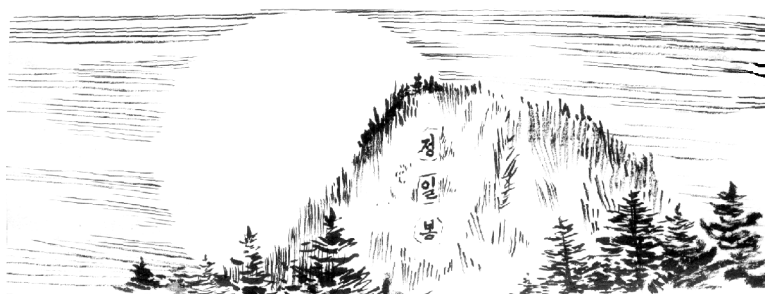
홍하는 이 땅우에 기쁨만을 드릴 마음
우리 장군님 받들어
흰눈처럼 순결한 천만인민이
지켜선 일터마다에
이해에도 새 혁신 새 비약을 안아오리라는것을

우리 아버지 받들어
세계를 돌파한 최첨단과학성과들이
또다시 지구를 뒤흔들어놓으리
세계가 조선의 힘을 알게 한
가슴벅찬 자랑스런 창조물이
이 땅에 수풀처럼 솟아나리라

그이께 드리는 기쁨의 보고
쇠물폭포 쏟아지는 강선의 출강소리에 울리고
전선길 따라서는 인민의 마음
산같은 제품 가득 싣고 떠나는
렬차의 긴 기적소리로 들려오는
환희로운 새해의 아침

우리는 보노라
내 나라의 맑은 하늘가에 또다시 터져오를 축포
모든 영광과 끝없는 번영을 안고
승리의 불보라로 터져오르리
그 환희 그 기쁨속에
우리는 이 한해도 승리자로 추억하리

아 흰눈내리는 이 아침
인민은 삼가 인사를 드리노라
우리 삶의 전부이신 그이
우리 행복의 영원한 미래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이시여
새해에도 부디 건강하시라
천만년 부디부디 안녕하시라



강창건 65돛이 되는 올해에 문학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강성대국의 령마루를 향하여 새로운 혁명적대교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며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로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는 조국땅에 새해가 왔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따라 주체101(2012)년에는 기어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보람찬 진군을 다그치고있는 천만군민의 발걸음에 보폭을 같이하며 우리 작가들은 무한한 창작적열정으로 가슴 불태우며 신심드높이 새해 창작전투에 돌입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대의 전진에 앞장서나가며 자주적으로 살려는 인민대중의 투쟁을 선도하는 문학예술이라야 생활의 참다운 교과서로,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에 힘있게 불려일으키는 사상적무기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변이 나는 지난해에도 그러했지만 새해 창작전투에 들어선 우리 작가들앞에는 격동적인 시대와 더불어 함께 호흡하면서 강성대국건설에 펼쳐나선 천만군민의 심장에 올해공동사실을 높이 받들고 새로운 혁명적대교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주는 송풍기와도 같은 혁명적인 문학작품을 창작해야 할 책임적인 시대적과업이 나서고있다.

올해 우리 작가들이 탐구와 사색을 기울여 해결해야 할 목표는 문학의 모든 형태에서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전면적으로 혁신하는것이다.

지금 영화부문을 비롯한 예술부문에서는 시대의 미학적리상에 맞게 전면적인 혁신을 일으키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감정에 맞는 기념비적명작들을 창작창조하여 온 사회에 혁명적기상과 랑만이 차넘치게 하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새 세기의 혁신적인 안목과 1970년대의 창조기풍, 창작투쟁방식을 구현하여 문학작품창작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무엇보다도 수령형상창조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

총서 《불멸의 력사》와 《불멸의 향도》 그리고 《충성의 한길에서》에 속하는 장편소설창작에 력량을 집중하면서 문학의 모든 형태에서 수령형상작품을 다양한 형식으로 창작하여야 한다. 우리는 특히 주체혁명의 자주적대가 굳건히 다져지고 **김일성**민족의 무궁변영이 확고히 담보된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수령형상문학의 사회정치적문제성을 더욱 강화하고 철학적깊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문학의 모든 형태를 새롭게 혁신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는 시대를 선도하는 투쟁의 기치로서의 시문학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이는데 피타는 탐구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시인들은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서정이 풍부하고 음악성이 보장된 기발하고 재치있는 작품을 써내야 한다. 누구나 즐겨읽고 뜨겁게 공감하며 풍만한 정서와 랑만을 감수하게 하는 명시를 창작하여야 한다.

가사창작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우리는 가사는 시문학의 한 분야로서 자기의 독자적인 사상예술적풍격을 완벽하게 갖추어야 한다는것을 명심하고 독창적으로 찾아온 종자가 있고 시인자신이 노리는 뚜렷한 주장과 개성적얼굴, 발견이 깃든 새롭고 풍만한 서정이 넘치는 가사를 창작하여야 한다.

소설문학을 새롭게 혁신하는것은 매우 절박한 시대적요구이다.

아직 일부 소설들은 시대적으로 절실한 인간문제가 약하고 구성과 묘사, 극적전인력이 부족한것으로 하여 독자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있다. 오늘 우리의 소설은 온갖 낡은것에 도전하는 새형의 문학으로 되여야 한다. 우리는 소설분야에 남아있는 온갖 낡은 요소와 도식적인 틀을 마스고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우리 식 소설을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문학에 쓰이는 형상수단을 종합적으로 다 리용할수 있는 소설문학의 우월성을 최대한으로 적극 발양하여 묘사의 련결로 생활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엮어나감으로써 사람들에게 스스로 읽고싶은 충동을 주는 인기있는 소설을 써야 한다.

오늘 소설창작에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심리묘사와 세부묘사를 잘하는것이다.

최근 일부 소설들에서는 인물들의 내면세계를 펼쳐보여주는 심리묘사가 매우 약하다. 인물의 내면세계를 펼쳐보여주는데서 기본은 사색과정을 깊이있게 그리는데있다. 인물의 사색과정을 잘 묘사하여야 성격의 본질적특징과 사고방식을 집중적으로 발현시킬수 있다. 소설에 나오는 인물의 외형과 행동, 환경에 대한 묘사는 인물과 작가자신의 심리가 비끼고 그들의 사상감정으로 물들여지고 정서적평가에 의하여 굴절되여야 소설문학의 특성에 어울릴수 있고 독자의 관심을 끌수 있다.

이와 함께 세부묘사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인간과 생활에 대한 세부묘사는 사실주의적묘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원수들에게 두손을 묶어주고 두눈을 빼앗긴 최악의 상태에서도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고 한 최희숙의 말속에는 얼마나 견결하고 자랑스러운 혁명적기개가 높워있습니까.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 는 말은 누구나 할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진리성을 확신하는 사람들만이 할수 있는 말이며 혁명절개가 강한 투사들만이 할수 있는 명언입니다.》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 는 말은 오늘날 우리 인민들과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혁명적락관주의를 상징하는 금언으로 되었습니다.》

《나는 락관주의를 주장하며 락천적인 인간들을 사랑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것이 내가 중시하고있는 좌우명의 하나입니다.》

사의 기본형태이다. 아직 일부 소설작품들에는 기쁨진 세부묘사 하나 없고 딱딱한 서술로 작품을 엮어나가는 현상을 극복하지 못하고있다. 지어는 일부 부피 큰 장편소설에서조차 의의있는 세부묘사를 찾아볼수 없고 세부묘사라고 할수 있는 대목 하나도 볼수 없는 경우도 있다. 소설에서는 인물을 그리든 환경을 그리든 할것없이 세부묘사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현실발전의 미학적요구에 맞게 소설문학을 혁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구성을 잘 짜는것이다.

작가는 자기의 사상미학적의도와 작품에 담아야 할 성격과 생활의 요구를 일치시키고 그것을 통일적으로 해결할수 있게 구성을 세워야 한다. 지금 일부 소설들을 보면 구성이 예술형상의 생리에 맞지 않고 천편일률식으로 되어있는것으로 하여 극적견인력이 없고 흥미가 없어 볼 재미가 없다. 특히 최근 단편소설들을 보면 작품의 구성을 얇은 오해선으로 엮어놓곤 하는데 그런 작품은 대체로 진실성이 부족할뿐아니라 깊이도 없다. 오해의 수법도 격에 맞게 쓰면 효과를 볼수 있지만 작품전체를 오해의 수법으로 편결시킬 때에는 흔히 내용이 천박해져서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줄수 있다. 일부 소설작품이 첫 문장만 보아도 뒤가 뻘드름히 내다보이는데 이것은 그만큼 구성의 깊이가 얕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다.

구성깊이를 보장하는데서는 그것을 조형미가 나게 립체적으로 엮는것이 중요하다. 외꺽을 타고 평면적으로 흐르는 구성은 조형미도 없고 립체미도 없으며 따라서 깊이도 보장할수 없다. 긍정인물은 미리부터 긍정적인 사람으로, 부정인물은 애초부터 부정의 딱지가 붙은 사람으로 기정사실화하거나 지어 이름까지도 긍정인물은 듣기 좋게, 부정인물은 별나게 지어놓는 식으로 하여서는 안된다. 이런 작품은 처음부터 누구는 긍정인물, 누구는 부정인물이라는것이 뻘히 내다보인다. 긍정의 관계를 그 어떤 틀에 맞추어 기정사실화하

거나 단순화하면 작품이 입을 맛이 없게 되는것은 물론 현실을 외곡하는 결과를 빚어내게 된다.

우리 작가들은 올해 소설창작에서 구태의연한 모든것과 결별하고 새 세기의 미학적리상에 맞게 형상창조에서 전면적인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아동문학작품창작에서 새로운 개선이 있어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아동문학을 우리 당의 정책과 우리 나라 어린이의 특성에 맞는 우리 식 문학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아동문학창작에서 중요한 문제는 사상을 논리적으로 주입하려 하지 말고 흥미있는 형상속에서 감성적으로 받아들이게 하여야 한다. 특히 아동문학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것만큼 작품이 재미가 있어야 한다. 현시기 아동문학의 흥미문제는 성인문학보다 더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어린이인 경우에는 문학작품을 재미에 끌려 읽는것이 보통이다. 끝벌이 향기나는 꽃을 찾아다니듯이 어린이들이 스스로 책을 찾아 읽게 하여야지 그들에게 억지로 책을 읽히어서는 별로 소득이 없다. 아동문학에서는 변화무쌍한 행동성과 강한 운동감이 느껴지며 정적인 묘사를 장황하게 늘어놓기보다 인상적이고 특징적인 표상을 주는 세부들 간결하게 그림으로써 흥미를 돋구어야 한다.

올해 문학작품창작에서 전면적양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작가들의 창작적실력을 높여야 한다. 작가의 창작적자질의 높이이자 문학작품의 형상의 높이이다.

모든 작가들은 모든 부문에서 첨단을 돌파할것을 요구하는 당의 의도에 맞게 작가적재능도 첨단을 돌파하여 돌진해나가야 한다.

끊임없는 탐구와 사색, 창작기량을 높이기 위한 피타는 노력,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명작을 창작하겠다는 자신만만한 배심을 가지고 우리 문학부문에서도 명작의 첨단을 돌파하여야 한다.

모든 작가들은 격동적인 사변들로 충만된 시대의 요구를 명심하고 당창건 65돐이 되는 올해 문학작품창작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켜야 할것이다.

우리에게는 김정일동지께서 계신다

차 승 수

당신은
인류의 지성이 응축된
신화적인 두뇌를 지니신분
미지의 세월을 손금처럼 당겨보시는
신비경의 혜안을 지니신분

당신은
백두의 담력으로 지구를 눌러닫고
우주를 호흡하는 심장을 지니신분
당신은
인민을 위해 한생을 불태우시는
태양의 열광을 지니신분

당신의 신념은
자주의 궤도위에 지구를 들어올린
만능의 지폐대
당신의 미소는
만민의 마음속 한점 그늘마저 가셔주는
은혜로운 햇빛
당신의 기상은

선군의 총창으로 제국주의혈강의 숨통을 꿰뚫은
용장의 모습

그 품에서
인민의 아름다운 념원이
꽃으로 피어나 풍성한 열매로 주렁지여라
그 품에서
이 행성의 생명들이
주체의 피와 숨결로 고동치고 영생하여라

당신의 의지는
백두산
당신의 존함은
주체의 조선
당신의 그 품은
우리 사는 온 세계

인류여 들으라
부러워하라
우리에게는 **김정일**동지께서 계신다

달력은 단순한 수자가 아니다 외 1편

최 준 경

달력은 1년 365일을 새긴
단순한 수자가 아니다
세상만물이 제가끔 년륜을 새기고
지구와 달이 자연의 법칙대로
태양주위를 도는 시간만이 아니다

달력은 천만심장의 피를 끓여주며 새겨주는
선군조선 대고조 비약의 시간

목적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려
세기를 주름잡아 새 기적을 창조하며
어버이수령님 탄생 100돐 대축전장으로
기어이 가닿아야 할 결사의 날과 달이다
그속에 위훈자의 값높은 삶이 있고
변함없이 달려가며 랑심을 바쳐야 할
총진군의 좌표가 있다

세월은 소리없이 흘러가도

달력에 새겨진 날과 달들을
징검돌인양 짚고 넘으며
세월은 소리없이 흘러가도
돌이켜보면 무심토록 그냥 흘러가지 않는구나

불철주야의 헌신분투로
조국앞에 애국의 공든 탑 쌓은 사람에겐
금별의 영웅메달을 안겨주고

안일과 권태 담보와 침체로
세월을 값없이 허송한 사람에겐
시대의 락오자라는 불명예와 오점을 찍어주더라

하기에 하루하루를 금옥같이 소중히 여기고
주체의 강성대국대통로를 피땀으로 다져갈 때
세월은 우리모두의 앞길에
영광의 꽃다발을 피워 안겨주리라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으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의 지성세계를 높이기 위하여서는 인물의 리지적인 성격을 옹게 살려내야 한다. 이것은 현대의 인간을 그리는 경우에 더욱 필수적으로 제기되는 요구이다.》

《문학작품의 지성세계를 높이기 위하여서는 형상을 구성하고 전개하는데서도 사색을 깊이하여야 한다.

형상수단과 수법, 형상기교를 높은 수준에서 리용하는것은 작품의 지성도를 높이는 중요한 조건의 하나이다. 촌리를 벗지 못한 작품, 누구나 쓸수 있는 수법으로 씌여진 작품, 작가의 독특한 재간이 엿보이지 않는 작품은 레외없이 사람들로부러 지성세계가 낮은 작품으로 평가된다.》

혁명일화

샘물에 깃든 천어버이사랑

주체87(1998)년 5월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한 인민군부대를 찾으시였다.

이 부대로 말하면 눈바람이 세차게 불어치던 수십년전 2월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현지에 나오시여 부대위치를 잡아주신 뜻깊은 사적이 깃들어있는 부대였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눈길을 헤치시고 험한 산밭을 오르내리시며 부대군인들이 리용하게 될 샘물도 찾아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부대지휘관으로부터 이런 뜻깊은 사적내용들과 함께 부대가 걸어온 자랑찬 로정에 대한 보고를 들으신 다음 사적샘물터가 있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시였다.

샘물터에 이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맑은 샘물을 보시며 부대지휘관에게 이 샘물을 군인들이 어떻게 리용하는가에 대하여 물으시였다.

부대지휘관이 전사들이 샘터에 자주 찾아와 샘물을 즐겨마신다고 보고드리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샘터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병실과 운동장쪽을 바라보시며 그러니 군인들이 샘물을 마시러 여기까지 오기가 불편하겠다고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사실 이 부대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눈길을 헤치시며 몸소 찾아주신 샘물터를 잘 꾸려놓고 정상적으로 관리하면서 그를 통하여 군인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해오고있었다.

이러한 실태를 헤아리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아버지수령님의 발자취가 어린 샘터라고 하여 이렇게 잘 꾸려놓지만 말고 샘을 군인들의 생활에 접근시켜 수령님의 사랑이 실지 전사들에게 그대로 흘러들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그러자면 이

샘터주변에서 물원천을 더 찾고 판을 늘여서 운동장주변에도 수도를 놓고 세목장들에도 샘물을 보내주어야 한다고, 그래서 군인들이 훈련이나 운동을 하다가 땀이 날 때 시원한 샘물로 목도 추기고 세면도 하며 세목장에서 목욕도 하게 하면 그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발자취가 어려있는 하나의 샘물을 보시고도 병사들을 먼저 생각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르며 부대지휘관은 샘터판리에만 관심을 돌려온 자기들의 짧은 생각을 자책속에 돌이켜보았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부대지휘관을 바라보시며 동무들이 이 샘물을 아버지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생명수라고 말하는데 전사들이 늘 이 샘물을 마시고 리용하여야 생명수라고 말할수 있다, 지휘관들은 언제나 전사들의 생활을 친자식처럼 돌봐주어야 한다, 전사들의 속마음까지 다 헤아리고 그들의 생활을 친혈육의 정으로 보살필줄 아는 지휘관이라야 우리 군대의 참다운 지휘관이라고 말할수 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판을 늘여 우리 전사들이 샘물을 마음껏 리용할수 있게 하자고 말씀하시였다.

이렇게 수십년전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눈길을 헤치시며 몸소 찾아주신 샘물이 군인들의 일상적인 군무생활과 떼어놓을수 없는 사랑의 생명수로 되었다.

오늘 이 부대 군인들은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우리 병사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어려있는 샘물을 마음껏 마시고 리용하며 일당백의 장수힘을 키워가고있다.

리 금 분

새벽 3시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비범한 령도력으로 혁명과 건설을 현명하게 령도하고있습니다.》

주체61(1972)년 11월말경.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를 지도하여주시였다.

이날 저녁 6시에 시작된 위대한 장군님의 가극 형상지도는 자정이 훨씬 넘어서야 끝났다.

그이께서 극장문을 나서실 때는 평평 내리던 함박눈도 뜰해지고 사위는 취죽은듯 고요하였다.

그러던 다음날 새벽 3시, 다급한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어데서 오는 전화이기에 이 새벽?)

무심히 수화기를 들던 한 작가는 어쩔바를 몰라 하며 뜨거운것을 삼키였다. 뜻밖에도 위대한 장군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수화기에서 울려나왔던것이다.

그이께서는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의 가사들을 다시 읽어보았는데 2장 2경에 나오는 노래 《달아달아 처량하게 밝은 저 달아》 가사에서 《갈수록 더하는건 슬픔뿐이요/쌓이고 쌓이는건 천대와 멸시》라고 한것을 《쌓이고 쌓이는건 슬픔뿐이요, 갈수록 더하는건 천대와 멸시》라고 고쳐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아직도 가극형상문제를 두고 사색에 잠겨 한밤을 새우신다고 생각하니 작가는 송구한 마음을 어쩔수 없었다.

순간 작가는 가극시연회를 보시고 하시던 그이의 말씀이 문득 떠올랐다. 가극의 형상방도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노래 《달아달아 처량하게 밝은 저 달아》는 가사가 잘못되어 그런지 기름진 소리를 내지 못한다고 지적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극의 시연회를 보실 때부터 노래 《달아달아 처량하게 밝은 저 달아》의 가사에 대하여 마음쓰고계시였던것이다.

높뛰는 가슴을 가까스로 진정하며 작가는 자신이 창작하였던 가극의 2장 2경에 나오는 가사

를 상기해보았다.

...

갈수록 더하는건 슬픔뿐이요

쌓이고 쌓이는건 천대와 멸시

그런데 위대한 장군님께서 방금 전화로 고치라고 일러주신 가사는 이렇게 되어있었다.

《쌓이고 쌓이는건 슬픔뿐이요
갈수록 더하는건 천대와 멸시》

전화를 받던 작가도 옆에 있던 연출가도 순간에 얼굴이 확 달아오름을 어쩔수 없었다. 이것을 어찌 창작에서의 단순한 실수나 어느 한 창작가의 착오로만 볼수 있겠는가.

작가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가사를 고치고 편결시켜보았다.

달아달아 처량하게 밝은 저 달아

불쌍한 우리 신세 너는 아느냐

쌓이고 쌓이는건 슬픔뿐이요

갈수록 더하는건 천대와 멸시

슬픔이 《더해간다》보다 《쌓인다》라고 하는것이 얼마나 더 정확하며 천대와 멸시가 《쌓인다》는것보다 《더해간다》로 하는것이 얼마나 더 정확히 리치에 맞는 표현인가.

비록 한편의 짙막한 가사이지만 불후의 고전적 명작을 각색하는 혁명가극에 미흡한 점이라도 있을세라 음미해보고 또 음미해보시며 부정확한 표현들을 찾아내어 제때에 바로잡아주시는 위대한 장군님!

온 나라가 행복의 요람속에 깊이 잠든 새벽 3시, 정녕 그이께서 걸어주시는 사랑의 전화를 받으며 창작가들은 진정 솟구치는 걱정을 누를길 없었다.

박 명 선

- 걷기를 싫어하면 빨리 늙는다
- 로화는 발부터 온다
- 걸을수록 뇌수는 좋아진다
- 걷기는 하나의 강심제이다
- 많이 걷는것이 곧 장수이다

- 걷는것이 곧 사는것이다
- 발은 《날개》이다
- 다리뼈가 만아들이다
- 언제나 많이 걸으며 사색도 하라
- 두다리는 그 사람의 의사이다



열매

황 동 선

밤이 깊어가고있었다.
 캄캄한 대기속을 누비며 여러대의 승용차불빛들이
 점점이 흐르고있었다.

승용차불빛은 신작로 랑가년의 숲을 휘연히 비
 쳐주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차창밖으로 흘러
 가는 밤의 숲풍경을 내다보고계시였다. 별거스
 레 단풍든 나무들과 검푸른 소나무며 이갈나무들이
 어우러진 무성한 숲이며 바위들, 심연속 같은
 골짜기들이 불빛에 드러났다가는 뒤쪽 어둠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돌부리들이 울퉁불퉁 내돋은 희
 여끄만 좁은 신작로는 산기슭을 따라 우불구불 줄
 곧 앞으로 뻗어갔다. ...

수령님께서 지금 산석리로 가시는 길이었다.

며칠간에 걸쳐 도안의 여러 인민경제사업을 현
 지지도하시던 그이께서는 그곳 일군들로부터 매우
 기쁜 소식을 받으시였다. 예로부터 사람 못살 고
 장으로 소문난 산석리에서 올해에는 폐년에 드문
 풍작을 이룩했다는것이였다.

그이께서는 계획하였던 현지지도를 끝마치시
 자 평양으로 가기 앞서 산석리로 가자고 하시였
 다. 일군들이 모두 만류하였다.

그이께서 이번 현지지도의 마감일정인 도안의
 책임일군협의회를 끝마치시였을 때는 이미 하루해
 가 저문 뒤였고 산석리까지는 이백리가 넘는 외진
 산골길이였던것이다.

수령님께서 길에서 밤을 새운다 해도 산석리
 의 농사작황은 꼭 보고싶으시였다.

그이께서 산석리에 처음 가보신것은 지난해 가
 을이였다. 그때 그이께서는 농촌들에서의 알곡
 수확정형을 료해하시였는데 산간농촌들의 알곡
 수확고가 별방에 비해 너무 낮은 수준이였다. 그
 가운데서도 산석리는 대표적으로 짊어우는 고장이
 었다. 일군들의 보고에 의하면 산석리라는 이름은
 땅이 돌을 낳는다고 해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옛

세월 험한 세상을 등지고 쫓겨오지 않으면 안되었
 던 사람들이 대를 두고 농사를 지어왔지만 삶을
 부지하기엔 너무도 메마른 땅이라 그 눈물겨운 한
 숨과 탄식이 이름으로 굳어져버린것이다.

수령님께서 그때 산석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
 으시고 그곳부터 찾아가실 결심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산간지대 농사문제를 두고 오래전부
 터 깊은 관심을 돌려오시였다. 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는 이곳 도시에서는 산간농촌들에서 알
 곡생산을 높이지 못한다면 도안의 전반적인 인민
 생활을 추켜세울수 없게 된다. 전국적인 범위에서
 놓고보아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수령님께서 그때는 산석리사람들이 하도 못살
 아서 찾아가지 않을수 없었고 지금은 잘살 전망이
 열렸다니 역시 찾아가보지 않을수 없으시였다.

지금도 그이께서는 산석리에 처음 가셨던 때의
 일이 어제런듯 선하시였다. ...

×

그날 수령님께서 산석리에 이르셨을 때는 한낮
 이 기운무렵이였다. 그이께서는 리소재지마을을
 앞에 두고 차를 세우게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길가에 서서 한동안 주변을 둘러보
 시였다. 사방은 온통 높고낮은 산발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산들은 숲이 성글고 돌바탕과 벼랑들이
 드러나보여 몹시 거치른 형세를 띠고있었다. 저
 아래쪽 산골짜기의 한가운대를 가르며 장마철에만
 산에서 쏟아져내린 비물이 넘쳐흘렀을 커다란 개
 울자리가 허영게 돌바닥을 드러내고 우불구불 뻗
 어내려갔다.

여기저기 산골짜기들에 몇집 안되는 자그마한
 마을들이 웅기종기 자리잡고있다. 산골벽지마을치
 고 초가집보다 기와집이 더 많이 보인다.

리소재지마을은 제법 변화한 느낌마저 주었다.

마을 웃쪽에 ㄱ자형으로 자리잡은 커다란 학교 교사가 유포한데 병원, 상점, 회관 등 크고 규모 있게 지은 공공건물이 여느 살림집들과 어울려 구색에 맞게 들어앉았다. 보배 외진 산골이라 더더욱 문명을 향해 키돋움하는듯싶은 이곳 사람들의 강렬한 지향이 그대로 비껴있는것 같았다.

마을뒤쪽 산등성이들에는 벌거스레한 밭들이 구름노전을 아무렇게나 퍼놓은듯 널려져있다.

밭들의 주변에는 마치도 태를 두른듯 허연 돌무지들이 뻗어있는것이 유포하게 눈에 띄운다. 오랜 세월을 두고 밭에서 주어진 돌들일것이다.

이윽고 수령님께서는 길 아래쪽 골바닥에 외파로 땡그랗게 자리잡은 탈곡장으로 향하시였다.

남알탈기가 끝난 때라 탈곡장에 들러보시면 올해농사정형과 농민들의 생활형편도 쉽게 헤아려보실수 있기때문이었다.

탈곡장에서는 세명의 농민이 강냉이이삭들을 퍼놓으며 분주히 오가고있었다.

수령님께서 탈곡장에 들어서시자 그들은 놀람과 감격에 겨워 어쩔바를 몰라하며 허리굽혀 인사를 드렸다.

수령님께서는 그들의 투박한 손을 일일이 잡아주며 인사를 나누시였다. 그이께서 지으시는 환한 미소로 하여 탈곡장안은 금시 밝고 따뜻한 분위기로 차고넘쳤다.

그이께서 오랜 지기를 만난듯 하도 허물없이 대해주시자 농민들은 어느새 어려움도 잊고 산골사람다운 어쭙고 순박한 웃음을 지어가며 말씀을 드렸다.

어느덧 화제는 작업반의 올해알곡수확고와 농가들에 차례질 분배몹을 놓고 번져졌다.

농민들은 차츰 죄를 지은듯 고개를 숙이고 몸들바를 몰라했다. 그들이 말씀드린 작업반의 알곡수확고는 내놓고 말하기 부끄러울만큼 보잘것 없는 것이였다.

얼굴이 해벌에 까맣게 탄 반백의 체소한 농민이 두손을 모아잡고 말씀드렸다.

《수령님, 나라에선 우리 산석리에도 많은 농기계랑 비료를 보내주곤 하는데 보답은 못할망정 부담만 되고있으니… 면목이 없습니다.》

그의 곁에 선 얼굴이 너부죽한 농민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해방전 같으면 산석리사람들은 너무 가난하게 산다고 다른 고장 사람들이 다 눈아래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산석리사람들은 생기기도 못생기고 소들도 다른데 소들보다 체통이 작고 힘도 못쓴다고 했습니다. 이런 하대를 받다보니 처녀들은 다른데로 시집을 가야 〈가난뱅이팔자〉를 고치는것으로 여겼습니다. 지금은 배푼을 걱정을 모르고 살게 됐으니 룡이 됐다고들 합니다.》

도당책임비서가 그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있었다. 수령님께 무엄한 말씀을 드릴가보아 속을 조이는 눈치였다. 농민도 그의 시선을 느낀듯 당황해하고있었다.

수령님께서는 그가 올리는 말씀에 흥미를 느끼시는데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신채 말씀을 건네시였다.

《지금은 처녀들이 다른 고장에 시집을 가야 〈팔자〉를 고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농민은 잠시 굳어진 자세를 하고있었다.

정작 그이께 대답을 드리자니 주저되는 모양이였다. 하지만 수령님의 한없이 부드러운 안색을 뵈옵고는 용기를 얻은듯 말씀드렸다.

《아직은… 도로나 벌방을 바라보는 처녀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물이나 겨우 우리던 예전세월하구 지금은 아주 달라졌습니다.》

수령님께서는 긍정해주시는듯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그이께서는 농민들과 이야기를 마치고나서 강냉이이삭들을 널어놓은 세멘트포장을 한 마당가로다가가시였다. 그이께서는 잠시 강냉이이삭들을 둘러보시였다. 줌안에나 들 정도로 오글도글 작은 이삭들이였다.

수령님께서는 그중 큰 이삭으로 골라드시였다. 그것도 꺾정이가 된 웃부분을 떼버리자 손바닥기장만 했다.

그이께서는 이 이삭들에서 산석리의 농사실패와 농민들의 어려운 살림살이형편을 그대로 헤아리게 되여 마음이 무거우시였다. 더우기 방금 농민들이 배를 곯을 걱정을 모르고 살게 된것을 다행으로 여기는듯만싶은 그 밭들이 무거운 추처럼 가슴에 매달리였다. 차라리 그들이 농사를 더 잘 지어 지금보다 잘살게 하겠다고 말하였다면 한결 마음이 가벼우셨을것이다. 그들은 아직도 어렵게만 살아온 예전날의 굳어진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었다.

우리 당은 일찌기 쌀은 곧 사회주의라는 구호를 내놓고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풀기 위해 지금껏 농촌에 필요한 모든것을 아끼지 않고 보내주었다. 나라의 공업화가 전면적으로 실현되고있는데 따라 많은 트랙토르와 자동차를 비롯한 각종 영농기자재를 보내줌으로써 농촌의 물질기술적토대는 더욱 튼튼히 다져지고 농업생산이 비할바없이 오르고있다.

그러나 산간농촌들 특히 비탈밭을 많이 끼고있는 농촌들에서는 알곡수확이 일정한 수준에서 더 오르지 못하고있다.

산석리가 바로 그 뚜렷한 실패로 되고있는것이다. 이때 수령님께 도당책임비서가 다가와 정중히 말씀드렸다.

《수령님, 산석리의 농사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고있습니다.》

《어떤 대책을 세우고있소?》

수령님께서서는 강냉이이삭을 손에 든채 물으시었다.

도당책임비서결에 서있던 도농촌경리위원회 부위원장 박태규가 침착한 어조로 말씀드리기 시작했다.

그는 올해초부터 이곳 군의 영농사업을 담당하고 내려와있었다. 산이 많은 군안의 농촌들에서 알곡수확을 높이기 위해 도에서 특별히 취한 조치였다.

그는 산석리의 현실태와 그에 해당하는 실무적대책안들을 요점적으로 말씀드렸다. 실무가다운 현실적안목과 빈틈없는 타산, 결연한 의지마저 엿보이는 대책안이었다. 산간지대 농사와 관련한 농업과학연구부문의 최근 연구성과들을 적극 받아들이며 축력을 비롯한 영농기재들을 보강해주며 군적인 힘을 집중하여 많은 자급비료를 생산하여 보내줌으로써 지력을 높이는 등 필요한 모든 수단과 방법들이 포함되어있었다.

그는 잠시 동안을 두고나서 다시 말씀드렸다.

《그리고 관리위원회사업도 손탁이 센 일군에게 맡겼으면 합니다.》

《손탁이 센 일군이라... 지금 관리위원장사업은 어떤 동무가 하고있소?》

수령님께서서는 그를 쳐다보며 심중한 어조로 물으시었다.

박태규는 침착한 몸가짐을 하고 정중히 설명했다. ...

산석리의 처녀관리위원장 류옥분은 이 고장에서 세번째 농업대학졸업생이다.

다른 사람들은 대학을 졸업하자 도시나 별방으로 가버렸지만 그는 고향으로 돌아왔다. 군에서는 그를 경영위원회에 배치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는 고집을 써서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태동안 농장기사장으로 일하다가 관리위원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처녀가 고향을 남 못지 않게 꾸려보겠다고 얼마나 오돌찬 결심을 품고있었는지도는 모르고있었다. 력대로 초가집밖에 없던 산석리에 기와집이 생기고 리소재지마을이 체모를 갖추기 시작한것도 그가 관리위원장을 한 몇해동안에 생긴 일이었다. 그는 알곡수확을 이전보다 올려보겠다고 눈물겨울만큼 이악을 부렸다.

산석리라고 어쩌서 남에게 뒤떨어져야 하며 못살아야 하는가, 아니다, 이런 산골일수록 더 잘살아야 한다 하는것이 그의 지론이고 배심이었다. 그러나 산석리의 알곡수출만은 여러해가 지났지만 아무리 애써도 예전보다 나아지지 못했다. 다른 농장들은 해마다 알곡수확을 얼마 더 올렸다고 소리치는데 산석리만은 여전히 맨 뒤자리였다.

농장은 알곡을 많이 내야 제구실을 한다고 불수 있다.

최근에 와서 일군들속에서는 산석리를 놓고 가끔 론의에 올랐다. 군적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국가의 알곡생산과제와 투자에 산석리가 따라서지 못하고있을뿐아니라 날이 갈수록 짐과 같은 존재로 되고있었기때문이었다. 관리위원장 옥분이에 대해서도 말이 오가군 했는데 처녀의 몸으로 산석리를 감당하기엔 아무래도 힘이 부치다는것이였다. 일부 일군들속에서는 보다 능력있고 손탁 드센 일군을 산석리에 보내자는 의견도 제기되였다.

박태규도 처음엔 도리머리를 했지만 차츰 신중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경지면적 대부분이 비탈밭인 산석리에서 알곡수확량이 오르지 못하는 책임을 옥분에게만 물을수 없었다. 그가 산석리에서 애써온 그만큼 다른 농장에서 일했다면 손꼽히는 일군으로 알려졌을수 있다.

그가 론의에 오르게 된 다른 하나의 주요한 리유가 있었다.

그는 올해 스물여덟살이였다. 시집을 가기 맞춘 때는 농처버린셈이였다.

한 이태전만 해도 한다 하는 총각들이 처녀관리위원장을 넘보군 했지만 그는 혼사문제엔 절벽같은 태도를 취해왔다. 지금은 별로 나서는 총각도 없었다.

태규는 자기를 잊고 일해온 옥분을 가볍게 대할수가 없었다.

그는 옥분을 군경영위원회에 옮겨놓는것이 좋을것 같아 해당 일군들과 토의해보았다. 이에 대해서 군경영위원장은 쌍수를 들어 찬성했다.

어느날 산석리에 나온 태규는 그와 실무적인 이야기끝에 여담처럼 말을 건넸다.

《관리위원장동문 혼사를 지내 늦잡는게 아니요? 꽃도 한철, 처녀시절도 한철이라고 하지 않소. 허허...》

옥분의 얼굴이 해쓱하게 질리는듯 했다.

《전 부위원장동지가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고있습니다.》

《?...》

《저를 놓고 말들이 있다는걸 알고있습니다. 산석리가 뒤떨어져있는건 전적으로 저의 책임입니다. 전...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태규는 어둑한 낮빛을 짓고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가 자기의 운명적인 문제를 스스로 터놓으니 내심 당황했다.

《동무를 군경영위원회 위원장이 옥심을 내는것 같더군. 산석리와 같은 어려운 고장에서 일한 경험에 있는것만큼 얼마든지 지도적위치에서 사업할수 있다고 보는것 같소.》

《아니...》

옥분은 얼른 도리머리를 했다.

《저를 생각해서 그런다는걸 알고있습니다. 부위원장동지가 저때문에 원심을 쓴다는것도… 사업과 인정을 섞지 말아주십시오. 전 농장원으로도 좋으니 산석리에서 일하겠습니다.》

태규는 가슴이 뜨끔하니 저려났다.

《저의 말을 달리 이해하지 말아주십시오. 산석리사람들속에는 도시나 별방을 바라보며 제땅에 밭을 붙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버리면 관리위원장을 하던 사람도 결국 갈고같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모두 가버리면 산석리엔 누가 남겠습니까.》

태규는 가슴이 무죽해왔다. 고향을 위하는 그의 진심이 너무도 절절히 안겨왔다. 산석리사람들속에는 넓은 세상을 두고 하필 공벽하기 짝이 없는 이 고장에서 일생을 썩어갔는가하고 하면서 지금까지 떠나가버린 사람도 적지 않았고 또 떠나려는 사람도 있었다. 그가 산석리를 뜨지 않겠다고 하는것은 고향사람들속에서 거울같은 존재였던 자기의 향심을 끝까지 간직하겠다는것이다.

하지만 생활에는 달리 피할수 없는 엄연한 리치가 있는것이다. 관리위원장을 해온 그를 농장에 남겨둔다는것은 레외적인 일이 아닐수 없다.

《이건 내 권능에 속한 문제가 아니요. 하지만 심사숙고해보는것이 좋을것 같소.》

태규는 긴말을 하고싶지 않다는듯 서류를 가방에 넣고 그한테서 시선을 피한채 서둘러 문을 나서고말았다.

이것이 바로 한주일전에 있던 일이었다. …

수령님께서는 사색에 잠기신채 그의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조용히 물으시었다.

《관리위원장이 신랑감은 있소?》

《아직 없는것 같습니다. 처녀가 나이가 좀 있다보니… 인기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인기가 떨어졌다?… 처녀가 나이가 찼는데 신랑감이 나타나지 않는다니 큰일이로군. 그런데 그 동무대신 더 손탁이 센 관리위원장이 오면 산석리를 추켜세울수 있다는 확신은 가지고있습니까?》

《저… 그건…》

태규는 얼굴을 붉힌채 말끝을 더듬었다.

수령님께서는 더 말쑼을 안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태규의 고뇌가 충분히 헤아려지시였다. 그가 설명한 대책안을 들어보면 타당성도 있지만 근본문제를 풀수 없었다.

산석리에서 알곡수확고가 오르지 못하는 주요원인은 경지면적의 대부분이 경사급한 비탈밭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박태규의 대책안은 이에 대해 문제밖에 두고있다. 이 고장 농민들과 마찬가지로 일군들도 현재의 자연지리적조건에 숙명적으로 대해온 관습의 탓이다.

수령님께서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박태규를 탓하고싶지 않으시였다. 확실한 해결책을 못 가지고있으면서도 관리위원장을 함부로 옮겨놓으려고 하는데 대해서는 스쳐지날수가 없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오히려 그 처녀관리위원장에게 더 관심이 가시였다. 그가 고향을 남 못지 않게 꾸려보겠다고 초가집들을 적잖게 기와집으로 바꾸고 리소재지마을을 번듯하게 꾸려놓았으며 알곡생산량을 높이겠다고 애를 써왔는데 그 사실들이 더욱 확대되어 안겨오는것이였다. 그 관리위원장이 이 궁벽한 산골농장을 감당하기엔 연약한 처녀일수 있다. 손탁이 세지 못할수도 있다. 그러나 고향을 진심으로 위해온 그 마음만은 무엇보다 귀중하시였다.

문득 그이께서 물으시였다.

《관리위원장을 만나봅시다. 어디 가면 만날수 있겠소?》

태규는 주춤하고 서서 어찌할바를 몰라했다.

이때 리의 일군이 옥분은 영지골밭에 나가 일하고있다고 말씀드렸다.

《저기까지 가보자구. 밭도 돌아보는점 마침 잘됐소.》

그이께서는 혼연히 뇌이시며 탈곡장밖으로 향하시였다. 태규는 급히 따라서며 영지골까지는 길이 멀고 험하다고, 인차 사람을 보내어 불러오겠다고 말씀드렸다.

《일하는 사람을 오게 할건 없소. 우리가 가면 될게 아니요.》

그이께서는 나무람섞인 어조로 뇌이시며 그냥 걸어가시였다. 영지골이 어디든 가보고싶으시였다. 이 고장을 눈에 익히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옥분의 일이 여의치 않으시여 더욱 이 길을 걷고싶으신것이였다. …

어느덧 수령님께서는 영지골에 들어서시였다. 아늑하고 잠풍한 골안이였다.

왼편쪽 산비탈밭에서 너댓명의 사람들이 질통을 지고 오가고있었다. 밭의 여기저기에 돌무지들이 널려져있는것을 보아 주어모은 돌을 밭지경밖으로 날라내가는 모양이였다.

수령님께서는 주변을 둘러보시다가 그쪽으로 걸음을 내짚으시였다. 밭에 덮인 마른 풀잎과 강냉이그루들이 그이의 밭에 버석버석 밝히였다.

저쪽에서 돌짐을 나르던 사람들이 질통을 벗어놓고 서슴서슴 다가오고있었다.

한순간 그들은 눈을 크게 뜨며 우뚝우뚝 굳어졌다. 손등으로 눈을 비비는 사람도 있었다.

비탈밭을 올라오시는분이 수령님이시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웠던것이다.

《수령님…》

《수령님!...》

한참만에야 그들은 놀람과 걱정에서 찬 목소리를 터치며 달려왔다.

수령님께서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감격에 겨워 어쩔바를 몰라하는 그들의 손을 잡아주며 인사를 나누시었다. 뒤미처 달려오는 처녀를 보며 태규가 류옥분이라고 말씀드렸다.

《음, 동무가 관리위원장이로구만.》

수령님께서서는 반색을 지으시며 그에게 마주 다가가시었다.

《수령님.》

처녀는 목메인 소리로 부르며 깊숙이 허리를 숙여 인사를 드리고는 손등으로 눈굽을 훔쳤다.

그는 희여스름하니 색이 바랜 작업복차림에 흙물이 뻗 운동화를 신었다. 키도 크고 몸매도 실한 편이었다. 해월에 가닿게 탄 얼굴은 등그스름한데 무엇인가 속깊은 생각을 담고있는듯 크고 유순해 보이는 눈이 인상적이었다. 자기를 돌볼새없이 늘 일에 치여난듯 한 그한테서는 산골처녀의 순진함과 내성미가 짙게 엮여있었다.

수령님께서서는 그의 손을 잡아주시며 사려깊은 눈길로 여겨보시었다. 그 손은 별과 흙에 꺼실꺼실 트고 두번째손가락은 상한듯 흰 천이 감겨져있었다. 그 흰 천에도 흙물이 올라있었다.

《일하기가 힘들지?》

그이께서는 나직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물으시었다.

《힘들지... 않습니다.》

옥분은 고개를 숙인채 대답을 드렸다.

《손이 이렇게 상했는데 힘들지 않아요?》

옥분은 더 깊이 고개를 수그렸다. 관리위원장에서 해임을 앞둔 자기로서는 그이를 뵈올 면목이 없음을 느끼고있었던것이다.

수령님께서서는 그의 심중을 헤아려보신듯 너그러운 미소를 지으시고 말씀하시었다.

《나는 동무를 만나보려고 찾아왔소. 산석리가 어떻게 하면 잘살수 있겠는지 의논해보려고 말이요. 밭을 돌아보니 관리위원장이일이 여간 힘들지 않았겠소. 이런 밭들을 지금처럼 다룬것만 해도 용하거던.》

《혹...》

부지중 처녀는 흐느낌소리를 냈다. 사람들이 인정할만큼 구실을 못해온 자기를 탓할 대신 오히려 믿음과 고무를 주시는 그이앞에서 솟구치는 오열을 견줄수가 없었다.

《관리위원장이 올면 되나요?》

그이께서는 부드럽게 뇌이시며 옥분의 어깨를 두드려주시었다. 그리고는 밭이랑을 따라 천천히 걸으시었다.

그이께서는 한쪽에 질통이 놓여있는 돌무지앞에 서시었다.

《이 둘들은 무엇에 쓰자구 날라들었나?》

처녀의 눈물젖은 얼굴에 일순 당황한 빛이 어렸다. 수령님께서 발지경밖으로 내버려야 할 둘들을 안으로 날라들었다고 알아보실줄은 몰랐던것이다.

《수령님, 똑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똑을?...》

옥분은 침착한 표정을 짓고 말씀드렸다.

《수령님, 비가 오면 흙이 자꾸 아래로 씻겨내려가고 맙니다. 밭에 두칸두칸 똑을 쌓아주면 흙을 잡을수 있을것 같았습니다.》

《음, 그래-》

수령님께서서는 의논조로 다시 말씀을 건네시었다.

《이렇게 해서 씻겨내리는 흙을 다 잡을수 있을까?...》

《다 잡기는 어렵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저오기 밝은 안색을 지으시었다. 땅을 귀중히 여길줄 아는 그가 무척 대견하게 여겨지시었다. 그리고 그가 하던 일에서 보다 큰것을 발견하시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산석리에 들어서신 때부터 지금까지 비탈밭에서의 농사문제를 놓고 사색을 이어오시었다. 지금과 같이 비탈밭을 그대로 두고서는 농사다운 농사를 지을수 없었다. 옹근 알곡소출을 낼수 있는 최선의 방도는 다락밭을 만드는것이였다.

그이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고 말씀하건네시었다.

《이렇게 똑을 쌓자구 할게 아니라 아예 다락밭을 만들 생각을 해봤소?》

《다락밭을 만들고싶었지만 저희들의 힘으로는... 아무리해도...》

옥분은 주저하듯 고개를 숙이며 뒤말을 잇지 못했다.

수령님께서서는 그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되시었다. 산석리의 힘만 가지고는 엄두를 낼수 없었을것이다. 그래서 그는 한갓 모지름이라고 할밖에 없는 밭에 똑을 쌓는 소극적인 방안에 매달리게 되었을것이다. 그이께서는 진정으로 땅을 사랑할줄 아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이 일을 처녀가 하고있는것이 못내 기쁘고 장하시었다.

그이께서는 대견스럽게 옥분을 보시다가 말씀하시었다.

《산석리의 힘만 가지고는 안되지. 그렇다고 가망없는 일은 아니야. 자본주의나라에선 어렵도 없지만 우리 나라에선 얼마든지 해낼수 있소. ...》

군적인 사회적운동으로 산석리를 도와야 하오.

기관, 기업소들에서 달라붙고 기계화력량을 집중하면 빠른 기일에 다락밭건설을 끝낼수 있소. 어떻소, 부위원장동무?》

《수령님, 해낼수 있습니다.》

박태규는 흥분된 어조로 대답을 드렸다.

《래년 씨불임철전으로 해낼수 있겠소?》

《군적인 력량이 동원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수령님께서서는 시름이 놓인듯 밝은 안색을 지으시었다.

옥분은 눈가에 물기를 담은채 어쩔바를 몰라하고있었다. 지금까지 환상으로만 그려보던 그것이 현실로 다가오게 될줄은 몰랐다.

수령님께서서는 여전히 무언가 마음에 걸리신듯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으시고 발이랑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시었다. 그이께서는 옥분의 문제가 여전히 가슴에서 내려가지 않으시었다. 처녀를 만나고 보니 더욱 정이 가게 되시었다. 비물에 씻겨내리는 흙이 아까와 똑을 쌀자고 한 처녀관리위원장이 야말로 산석땅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 여겨지시었다.

그이께서는 발가닥에서 걸음을 멈추고 지경밖에 내버려진 돌무지들을 이윽히 바라보시었다.

이때 그이를 따라온 도당책임비서가 심한 자책에 젖은 목소리로 말씀을 드렸다.

《수령님, 저희들이 일을 쓰게 하지 못하였습시다. 산석리를 추켜세운다고 하면서도... 잘못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위원장을 옮겨놓자고 한게 잘한 일이 아니었다는 말이겠소?》

《그렇습시다. 산석리에서 농사가 안된 책임은 바로 저희들에게 있었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근엄한 안색을 지으신채 굳이 말씀을 안하시었다.

이때 도당책임비서의 곁에 선 박태규가 고개를 떨군채 말씀드렸다.

《모든 잘못은 군의 영농사업을 맡고있는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일을 할줄 몰랐단 말이지. ...》

수령님께서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조용히 뇌이시었다.

《부위원장동문 자식이 몇입니까?》

《셋입니다.》

《부위원장동문 저 처녀관리위원장이 제 딸이라고 생각해본적이 있습니까?》

《수령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였습시다.》

《그것 보시오. 문제는 거기에 있소. 그를 제 딸처럼 생각했다면 관리위원장자리에서 떼자고 할게 아니라 구실을 잘하게 해주자고 애써 노력했을게요. 부모란 자식을 먹여주고 입혀줄뿐아니라 지향을 꽃피워주기 위해 더 애를 태우는 법이요. 그렇게 일을 했더라면 다락발을 만들고싶어하는 그의 속마음을 벌써 알았을게고 어떻게 해서든 실현시켜주자고 했을게요.》

박태규는 고개를 떨구고 송구스러운 자세로 서있었다.

수령님께서서는 말씀을 계속하시었다.

《일꾼들이 인민들을 한식술로 여기고 진실로 위해주며 그들의 지향을 아껴줄줄 모른다면 사업에서 성과를 기대할수 없소.》

《수령님, 저의 잘못이 큼니다.》

태규의 목소리는 깊은 자책에 젖어있었다.

《알았으면 됐소.》

수령님께서서는 부드럽게 뇌이고나서 아까 온 발이랑을 되짚어 무거운 걸음을 옮기시었다.

그이께서는 차에 오르기 앞서 저쯤 뒤에서 석별의 정을 금치 못해하는 옥분을 가까이 부르시었다.

《봐둔 신랑감이 없나?》

그이께서는 옥분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누가 들으면 무안해할가봐 저어하듯 허리를 굽히시며 나직이 물으시었다.

《아직... 없습니다.》

처녀는 얼굴을 깊이 수그리고 숨새는듯 한 작은 목소리로 대답을 드렸다.

수령님께서서는 도리머리를 하며 허리를 펴시었다.

《일만 일이라 하지 말구 시집도 가야지. 헌데 산석리의 주인으로 시집을 가야 해. 알겠나?》

그이께서는 정이 어린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나서 차에 오르시었다.

숲은 해질녘의 여광을 받아 벌거우리한 빛을 띠고있었다.

승용차는 숲을 꿰지르고 뻗어간 신작로를 달리고있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차창밖으로 흘러가는 숲이며 저 앞쪽의 산등성이를 타고 우불구불 갈지자모양으로 아득히 뻗어간 한가닥 신작로며 높고낮은 무수한 산봉우리들을 내다보며 사색에 잠겨계시었다.

그이께서는 차가 산석리경내를 벗어나 멀어져갈수록 마음은 더욱 번거롭고 무거우시었다. 산석리 사람들을 위해 더 해줄것을 못해준것만 같은 허전함과 아쉬움이 점점 더 커진것이였다. 탈곡장에서 만났던 농민들과 오글도글 작은 강냉이이삭들, 비탈밭들이 그냥 어려오고 옥분의 일에 치우고 심리적괴로움에 주접이 든 모습도 가슴에 무거운 덩어리로 맺혀드시었다. 궁벽한 산석리로배기처녀를 위해 해줄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인지 자꾸 마음을 쓰게 되시었다. 지금껏 빛을 보지 못하고 뒤전에 밀려나야 했던 산석리이자 곧 그 처녀이기도한것이였다.

위낙 산석리는 살림밀천이 밟고 인종도 드물다. 비탈밭을 다루던 고루한 방식으로 일을 해서는 한두해사이에 남들처럼 살림을 늘굴수가 없을것이다.

수령님께서서는 이태전에 한 인민군부대를 찾으셨

던 일을 회상하시였다.

…그때 수령님께서서는 부대에 도착하는길로 병사들의 식당부터 들리시였다. 인민들이 사는 마을에서 수백리나 떨어진 산중초소의 병사들의 식생활이 넘쳐되시였다.

식당에는 갖가지 남새들과 풋강냉이들까지 그득 그득했다.

그이께서는 못내 기쁘시여 이걸 다 어디서 났는가고 물으시였다. 사단장이 중대자체로 부업농사를 하였다는것과 중대살림살이모범을 놓고 사단적인 방식상학을 조직하였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드렸다.

수령님께서서는 그길로 부업밭에 나가보자고 하시였다. 산기슭에 펼쳐진 부업밭은 상당히 넓은데 갖가지 남새와 함께 강냉이며 콩이 어느 농장의 포전에 못지 않게 푸르싱싱했다.

수령님께서서는 두손을 허리에 짚고 밭을 대견스럽게 둘러보시다가 웃쪽 산골짜기의 좁은목을 묘하게 가로막은 동독에 시선을 멈추시였다.

그이께서는 산골짜기의 유리한 지형지물을 리용하여 별로 품을 들이지 않고도 저수지를 만들었음을 알아보시였다. 그이께서 더 흥미를 느끼신것은 동독의 수문에서 뿔어내려온 수로에서 드문드문 가지를 친 좁은 수로들이 아래쪽 밭들과 이어져있는것이였다. 저수지동독의 수문을 열면 물이 저절로 흘러내려 밭을 다 적실수 있게 해놓은 그 솜씨가 여간이 아니였다. 부업농사가 잘된 까닭은 바로 거기에 있었다.

수령님께서서는 누가 저런 생각을 했는가고 물으시였다. 사단장이 리춘삼병사가 발기하고 설계했다는것과 함께 그는 미제의 전쟁도발책동으로 정세가 극도로 긴장해졌던 땃해전 농업대학졸업을 앞두고 군대에 입대한 동무라고 말씀드렸다.

수령님께서서는 그 병사를 불러오라고 이르시였다. 이윽해서 리춘삼이가 달려왔다. 두줄배기령장을 단 미출한 체구에 얼굴이 준수하면서도 수더분한 인상을 주는 병사였다.

수령님께서서는 미더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시며 고향이며 나이 등을 물으시였다. 그는 강원도 산골내기였고 나이는 스물아홉살, 부모님들은 농사를 짓는다고 했다.

《동무가 저렇게 저수지를 만들 생각을 했단 말이지. 신통하거던, 신통해. 허허… 부업밭을 봐도 작황이 농사군들이 와보고 울고가겠소.》

춘삼은 바지흔술에 두손을 붙이고 몸돌바를 물라했다.

《어떻게 돼서 저런 생각을 해낼수 있었소?》
춘삼은 어떻게 대답을 드릴지 몰라 주저하다가 시선을 떨군채 말씀을 드렸다.

《저는… 그저… 땅을 아끼고싶었습니다.》

《그렇지, 그렇구말구. …》

수령님께서서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주시며 만족하신 눈길로 일군들을 둘러보시였다.

《내 오늘 좋은 동무를 만났소. 땅을 아낄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짜배기거던.》

…

수령님께서서는 그때 만나셨던 병사를 생각하시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시였다. 대학을 나오고 군대복무도 해서 단련된 그가 산석리에 오면 큰 역할을 하게 될것이다. 지금 사회주의건설의 중요초소들에서 제대군인들이 핵심적역할을 수행하고있다. 리춘삼이뿐아니라 다른 여러명의 제대군인들도 보내주면 그들이 핵심이 되어 빠른 기간에 산석리를 부쩍 추켜세울수 있을것이다. …

수령님께서서는 평양에 도착하시는길로 해당 일군을 찾으시여 리춘삼을 비롯한 여러명의 제대군인들을 산석리에 보내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

그후에도 수령님께서서는 늘 산석리를 잊지 못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산석리를 다녀가신 그 이듬해 봄이였다.

그이께서는 동해지구를 현지지도하시면서 곡창지대의 하나로 알려진 한 협동농장에도 들리시였다. 그이께서는 마을앞으로 아득히 펼쳐진 들길에서 일군들과 올해농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이웃 도의 박태규를 기다리시였다. 이곳에 오기 앞서 산석리의 다락밭 건설정형을 알아보기 위해 그를 부르셨던것이다.

무르녹는듯 한 봄벌에 싸인 검소한 들판에서는 아지랑이가 쉽없이 아물거리고있었다. 저멀리 바라보이는 산밭들은 푸른빛이 완연한데 진달래꽃이 점점이 타는듯 빨갭게 피고있었다.

뒤쪽 산기슭에 문화주택들이 즐비하게 들어앉은 마을에서는 고성기에서 울리는 녀성중창의 흥겨운 노래소리가 청신한 대기를 타고 들려왔다.

봄이 왔네 봄이 와

…

수령님께서서는 앞에 둘러선 일군들과 이야기를 하시다가 방금 도착한 박태규를 보시였다.

그이께서는 박태규의 손을 잡아주고나서 궁금한 어조로 물으시였다.

《산석리에서는 어떻게 지내고있소?》

《수령님, 산석리는 지금…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태규는 그이를 뵈은 감격과 이제 말씀드릴 사연으로 해서 말을 약간 더듬기까지 했다.

《허허… 어떻게 달라졌다는게요?》

그이께서는 지난해 만났을 때와 달리 얼굴이 거뭇게 타고 어딘가 농사군답게 텅텅한 인상마저 주는 그에게 기대어린 시선을 주며 물으시었다.

태규는 약간 흥분한듯 한 어조로 말쑹드리기 시작했다.

지난해 어버이수령님께서 다녀가신 후 산석리의 다락밭건설에 군안의 기관, 기업소들에서 떨쳐나서고 청년돌격대와 강력한 기계화력량이 집중되었다.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끝끝한 제대군인들이 일판마다에 활기와 열정을 불어넣어주며 일을 본때있게 밀고나갔다. 올해 초봄에 이르러 다락밭건설을 끝내게 되었다.

수령님께서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물으시었다.

《그곳 처녀관리위원장은 잘있소?》

《잘있습니다.》

박태규의 목소리는 방금전과 달리 어쩐지 자신이 없는듯 했다.

《내 그 동무한테 신랑감이 생겼는가 해서 묻는 게요.》

마침내 수령님께서서는 내심 몹시 궁금하셨던 문제를 터놓으시었다.

《아직은... 없지만 아주 훌륭한 신랑감은 있습니다. 지난해에 산석리에 배치돼온 제대군인들중에 리춘삼이라고 부르는 동무가 있습니다.

어디에 내놔도 흠할데가 없는 동무입니다. 관리위원장동무와 꼭 맞는 배필인데...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태규는 난색을 지은채 대답을 드렸다.

《허허...》

수령님께서서는 웃음을 지으시며 천천히 걸음을 뻐시었다. 그이께서 다시금 말쑹을 건네시었다.

《동무가 보기에다 꼭 맞는 배필인데 어째서 혼사가 이루어지지 않는것 같소?》

그이의 걸을 따라걸으며 태규는 말쑹을 드리기 시작했다.

...산석리에서는 다락밭건설이 끝나자 새해농사의 첫 공정인 거름실어내기에 모두 떨쳐나섰다.

옥분은 이미 장만한 거름을 실어내는것과 함께 새로운 거름원천을 찾느라 밤낮을 잊고 뛰어다녔다. 땅을 아예 흐들흐들하니 살지울 잡도리를 한 그였다. 그는 한밤중에 부식토를 파내던 작업장의 불무지결에서 잠들었다가도 소스라쳐 깨어나 일손을 잡을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 그가 뛰니 온 농장이 뛰었다. 이 일에서도 제대군인들이 앞장에 섰다. 그들은 자기가 배속된 작업반들에서 주동이 되어 늪의 부식토며 개울바닥파내기 등 거름이라고 할만 한것은 다 찾아냈다. 다락밭이 있는 골짜기마다 산더미같은 거름무지들이 생겨났다. 박태규가 포치한데 따라 군에서 보내오는 거름이 덩으

로 보태어졌다.

그러나 산석리에서 다락밭건설이 시작된 때로부터 늘 나와살다싶이 하는 태규는 제나름으로 속을 앓고있었다.

그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옥분의 혼사문제를 두고 마음쓰시던 그 육친적사랑을 한시도 잊을수 없었다. 그이께서는 농장과 옥분을 따로 떼어놓고 보지 않으시었다. 그이께서 산석리에 풍년이 든다 해도 옥분이가 여적 시집을 못 간걸 아시면 기뻐하시겠는가.

태규는 이미전부터 리춘삼을 옥분의 신랑감으로 눈독들여왔다. 대학공부를 한데다가 군대복무도 한 그는 무슨 일이든 막히는게 없고 사람됨이 준수했다. 다락밭건설을 할 때만 봐도 그는 그 까다로운 토지측량도 전문가이상으로 할뿐아니라 못 다루는 기계가 없고 무슨 일이든 불이 번쩍 나게 해제졌다. 사람됨이나 갖춤새나 발전전망을 봐도 빠진데 없는 신랑감이였다.

그는 얼마전부터 농장기계화작업반을 책임지고 일하고있다. 나이는 서른한살... 옥분과는 여불없이 들어맞는 배필이였다.

태규는 춘삼한테 의향을 비쳐보았다. 그는 마다하지 않을뿐더러 옥분을 맘에 두고있는듯 한 기색이였다.

하긴 춘삼이쪽에서 봐도 옥분을 싫다고 할 까닭이 있을리 없는것이였다.

의외로 옥분이한테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한테도 춘삼이 말을 비쳤더니 제견에서 재치는것인지 무슨 판 의견이 있어선지 랭답에 가까운 무관심한 표정을 짓고 더 말을 말라는 태도를 취하는것이였다. ...

수령님께서서는 태규의 이야기를 들으시고나서 말쑹을 건네시었다.

《혹시 처녀관리위원장이 그 총각을 사랑하면서도 그것을 감추고있는건 아니요?》

《그런것 같기도 합니다. 전에 보니 우리 집 사람도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두 얼마나 툭툭 튀기면서 애를 태우던지...》

《허허허.》

수령님께서서는 호탕한 웃음을 지으시었다.

《관리위원장에게 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 전해 주시오. 내가 제일 걱정하는것이 관리위원장의 혼사문제라고 말이요. ... 그가 가정을 이루었다면 내가 마음을 놓겠소. 그 동무가 지금 농장일이 바쁜 때이니까 그러는것 같은데... 혼자서만 마음속에 묻어두고있는건 사랑이라고 말할수 없지.

뜨거운 심장을 주는게 바로 사랑이요. 그런 사랑으로 농장원들을 한집안식구처럼 아끼고 이끌어 주어야 농사를 잘 지을수 있소. 풍년가율이 저절로 오는게 아니거든.》

그이께서는 태규의 등에 손을 얹고 천천히 걸음

을 제시며 말씀을 이으시었다.

《관리위원장이 결혼을 늦잡아도 안되지만 지내서둘러도 안되겠소. 청춘들이 편정을 나누는 시기도 있어야 하는게 아니겠소. 그렇지 않소?》

《그렇습니다, 수령님.》

《부위원장동무가 결에서 잘 도와주요.》

《알겠습니다.》

태규는 눈곱에 물기를 그득히 담은채 목멘 음성으로 대답을 드렸다.

×

수령님께서 타신 승용차가 산석리에 이르렀을 때는 밤도 어지간히 깊었다.

승용차들은 리소재지마을앞에서 잠시 멎었다.

어둠속에 잠긴 마을은 두어점의 불빛이 보일뿐 고요했다.

수령님께서 열려진 차문으로 마을을 내다보시다가 가까이 다가온 박태규에게 지난해 류옥분과 만났던 영지골로 곧장 가자고 이르시었다.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영지골에 가보면 온 농장의 농사작황을 가늠하실수 있었다. 관리위원장과 함께 가고싶었지만 종일 일하고 단잠에 들었을 그를 깨우고싶지 않으시었다.

승용차들은 마을앞을 지나 휘우듬히 뻗어간 행길을 따라 소리없이 미끄러져갔다.

문득 차창밖 원컨 저 멀리 어둠속에서 한점 우등불이 보였다. 얼마쯤 가느라니 우등불이 한점 또 한점 나타났다. 그쪽에서 땡파리를 두드리는 소리와 거친 목소리가 엇섞여 들려왔다.

챙, 챙, 챙—

후여—

곡식밭에 침습하는 메돼지를 쫓는 소리인것 같았다. 그 소리들은 난알항기가 질게 습배인 산촌의 고요를 구성지게 뒤흔들었다.

승용차의 불빛들은 산기슭의 황이 든 숲과 골짜기들, 둔덕들과 바위들, 길녘에 나앉은 다락밭을 얼비치고있었다.

수령님께서 다락밭이 나타날 때마다 차를 천천히 몰라고 이르고 주의깊게 내다보시었다. 땅이 보이지 않게 우거진 강냉이숲과 소담한 이삭들이 천천히 스쳐지나갔다.

그이께서는 틀이 잡히기 시작한 농장의 무게를 느끼시었다. 관리위원장이 대견하시었다. 지난해 만났을 때 일에 치우고 내심의 말 못할 괴로움으로 주접이 들었던 그의 모습이 비쳐드시었다. 헌데 이젠 농장의 새 모습과 함께 그의 어엿해진 모습도 보는듯만싶으시었다. 일군들의 말에 의하면 그는 두달전에 리춘삼과 가정을 이루었다고 한다. 땅이 살지고 관리위원장이 믿음직한 총각과

가정을 이루었으니 비단에 꽃인셈이다.

다시금 메돼지를 쫓는 소리들이 밤공기를 흔들었다.

후여—

챙, 챙, 챙—

문득 수령님께서 저 앞쪽에서 마주오는 두사람을 보시었다. 길녘에 비쳐서는 그들이 눈에 익으시었다. 희여스름한 작업복차림에 손전지를 든 녀인은 류옥분이었고 그곁에 선 사람은 리춘삼이였다.

수령님께서 차를 세우고 밖으로 나오시었다.

《그새 잘들 있었소?》

그이께서는 반가운 음성으로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다가가시었다.

《수령님!...》

옥분은 너무도 놀랍고 감격에 겨운 나머지 그이께서 내민 손을 부여잡고 발을 동동 구르듯 하며 어쩔바를 몰라하였다.

그이께서는 대견한 미소를 짓고 리춘삼의 손도 뜨겁게 잡아주며 말씀하시었다.

《밤중인데 쉬지들 앓고 수고하누만.》

《수령님, 메돼지들이 좀 갈겁니다.》

리춘삼은 병사식으로 차렷자세를 취하고 말씀드렸다.

《음, 그래...》

수령님께서 정겨운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시었다. 아까 리소재지마을앞에서는 그들의 단잠을 깨울수가 없어 그냥 지나왔는데 농장살림을 돌보느라고 밤잠을 잊고 뛰어다니는 그들을 보니 여간만 기특하지 않으시었다. 그들의 모습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위해주며 이악하게 일해나가는 기품을 엿보시었다. 그들이 이렇게 일을 하면 농장살림은 펴이기마련이다.

《동무들이 올해농사를 잘 지었다는 말을 듣고 작황을 한번 보자고 오는 길ियो. 동무들을 만났으니 마침 잘됐소. 함께 가자구.》

차는 다시금 달렸다. 영지골로 가는 길은 지난해와 달리 번듯하게 닦아졌다.

어느덧 승용차들은 영지골로 들어섰다.

수령님께서 차에서 내리시여 사방을 둘러보시었다. 일군들이 당황해하며 수선거렸다. 캄캄한 어둠으로 해서 농사작황을 볼수 없다는 부득이한 정황을 지금에 깨달은듯 한 당혹한 기색들이었다.

이때 수령님께서 호탕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차의 불빛을 모두 발으로 돌리시오.》

드디어 승용차의 불빛들이 골안의 한쪽밭을 내비쳤다. 저쪽 넓은 경사면이 눈부신 백팡에 휩싸였다. 머리를 쳐들고 올려다보아야 하는 다락밭은 하나의 거대한 곡식로적가리를 방불케 했다.

수령님께서 호뭇하고 대견한 눈으로 밭을 살

퍼보시었다. 강냉이쭈이 여기저기서 섰었다. 일군들이 그이께 보여드릴 이삭을 따오느라고 오가고 있었다.

그이께서는 박태규를 비롯한 일군들이 올리는 이삭을 하나하나 받아보시었다. 팔뚝같이 크고 돌덩이처럼 묵직한 이삭들이었다.

수령님께서서는 마지막으로 옥분이가 정히 올리는 이삭도 받아들고 무척 대견한 미소를 지으시었다.

《산석리가 올해농사를 잘 지었소. 멋있소, 동무들이 일을 잘했소.》

《수령님, 산석리의 농사는… 수령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옥분은 눈가에 물기를 한가득 담고 목이 메인 음성으로 말씀드렸다.

《농사야 농민들이 지었지. … 동무들이 서로 마음을 합치고 위해주면서 일을 잘했기때문이야. 이게 그 열매거던.》

그이께서는 기꺼운 미소를 짓고 이삭을 대견히 흔들어보이시었다.

옥분은 소리없이 어깨를 떨고있었다. 그의 곁에선 춘삼은 이름할수 없는 걱정애 찬 얼굴빛을 한 채 뜨거운것을 삼키고있었다.

이때 박태규가 눈굽에 고인 물기를 번쩍이며 떨리는 음성으로 그이께 말씀드리었다.

《수령님, 전… 지금껏 농사를 짓는다는것이 어떤것인지… 모르고… 일해왔습니다. 사람들을 진심으로 아끼며 그들의 밑거름이 되어 일할 때만이 높은 알곡수확을 낼수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고개를 숙이고있는 그를 생각깊은 눈길로 바라보시었다. 한해전 이 영지골밭에서 그에게 자식이 몇인가고 물으신 일이 떠오르시었다.

고향을 사랑해온 한 처녀를 막돌처럼 버릴수 있었던 그에 대해 의분마저 느끼시였었다. 이런 그가 사랑을 깨달았다는것이, 농사란 결국 성실한 농민이 매 곡식포기들을 품들여 가꿔야 풍년을 이루듯 일군은 사람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키워야 한다는 진리를 깨달았다는것이 기쁘시었다. 한개 농장의 식솔들을 책임진 류옥분에게도 마찬가지의 심정이시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이윽히 그들을 바라보시다가 근엄하면서도 절절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인민이라는 말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매 사람들을 다 가리켜 이르는 말이요. 한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도 책임질줄 모른다면 인민에 대한 참다운 사랑을 말할수 없소. 우리 일군들이 혁명을 하는 보람과 기쁨은 결국 모든 사람들의 구체적인 행복에서 찾아야 하오.》

《수령님!…》

옥분은 목멘 소리로 뇌이고는 더욱 세차게 흐느꼈다. 온 나라 인민을 한품에 안고 보살펴주시는

그 위대한 어버이사랑속에 자기라는 인간도 있음을 사무치게 느끼게 되는것이였다.

박태규는 이루 형용못할 얼굴표정을 하고 자기를 잊은듯 수령님을 우러르고있었다. 우주만물에 빛을 주고 천만생명을 싹틔우고 열매맺게 하는 태양, 인간세계의 위대한 사랑의 눈부신 빛이 온몸에 비쳐들고있음을 그는 느끼고있었다.

수령님께서서는 만시름을 잊은듯 그지없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고 앞을 바라보고계시었다. 불빛에 싸인 발은 더한층 자태를 드러내며 다가서는듯했다. …

밤나비들이 불빛속을 날아돌고있었다.

부관이 떠나야 한다고 거듭 말씀드렸지만 그이께서는 시간의 흐름을 잊으신듯 자리에서 뜨실념을 앓으시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하도 기겁고 대견해 좀처럼 떠나고싶지 않은 그이이시였다.

퍼그나 오랜 후에야 수령님께서서는 영지골을 떠나시였다. 눈이 저절로 감기는 캄캄하고 무거운 어둠속을 승용차의 불빛들이 헤엄치듯 흘러가고있었다. …

리소재지마을앞에서 차에서 내린 옥분과 춘삼은 멀리 불빛이 사라진 후에도 오래도록 움직일줄 몰랐다.

옥분은 자꾸만 눈굽이 젖어들었다. 외진 산골의 평범한 처녀애 불과한 자기의 운명을 품에 안아 빛나는 인생으로 가꿔주시고 산석리의 풍요한 가을을 마련하여주신 우리 수령님!…

산석리의 이 가을이 그리도 보고싶어 멀고 험한 밤길을 지척인듯 찾아오셨던 어버이사령님!… 산석리만이 아닌 온 나라 수천만자식들을 보살피시기 위해 그이께서 겪으신 시름은 얼마이며 자신을 불태우며 가고가신 밤길은 그 얼마이라.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옥분은 이 가을밤이 얼마나 거창한 현실로 펼쳐지게 될지 알수 없었다.

그로부터 얼마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2차전원회의에서 하신 결론에 따라 전국의 산간농촌들에서 모든 비탈밭을 다락밭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이 벌어졌다.

수령님께서 취해주신 강력한 국가적조치에 의하여 강동, 삭주, 장강, 연탄, 화대, 복청 등 수많은 산간농촌들에서 모든 비탈밭이 짧은 기간에 다락밭으로 전변되는 기적같은 현실이 펼쳐졌다.

만사람의 환희와 찬탄을 자아내며 전설속의 신비경인양 층층이 솟아오른 그 다락밭들은 이 나라의 수천만자식들을 한품에 안고 정들여 키워주신 위대한 어버이의 사랑이 안아올린 산촌의 새 풍경이였다.

백 리 향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혁명생애는 위대한 수령님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신 혁명전사, 친위전사의 생으로 빛나고있다.

해방된 이듬해 봄날에 있는 일이다.

연분홍진달래꽃이 떨어떨기 피어나는 어느날 한 낮무렵 군복차림의 한 녀투사가 사방을 둘러보며 해방산의 좁은 오솔길을 따라 걷고있었다.

분명 누군가를 찾는 기색이었다. 방금 해방산 기슭에 자리잡고있는 **김일성**장군님의 저택으로 찾아갔던 그는 김정숙동지께서 호미를 들고 산으로 오르시었다는 말을 듣고 급히 찾아나선 것이었다.

어디로 가셨을까?...

이런 의혹을 안고 산으로 오르며 아무리 둘러보았지만 김정숙동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의 의혹은 점점 짙어만 갔다.

짧은 봄날의 해빛은 어느결에 설피여지고 서쪽 하늘가엔 붉은 노을이 곱게 피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는 초조한 마음을 안고 다시 오솔길을 따라 걸어내려오고있었다.

그런데 어디선가 갑자기 그윽한 향기가 풍겨오는 바람에 그는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사방을 두릿거리던 그는 어느 한 바위아래쪽에서 꽃나물을 손에 들고계시는 김정숙동지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순간 지금까지 애타게 찾던 안타까움을 가뭇없이 잊은듯 서둘러 그이의 곁으로 다가간 그는 류다르게 그윽한 향기를 풍기는 나물을 바라보며 무슨 꽃나물인가고 물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함뿍 미소를 담으시고 백리향이라는 꽃나물이라고 하시면서 이 꽃나물을 장군님께서 일을 보시는 집무실쪽의 정원에 심으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떠올라고 기뻐어린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순간 그의 가슴에서는 뜨거운것이 뭉클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시는 김정숙동지의 한없이 뜨거운 진정에 깊이 감동되었던것이다.

(나는 왜 그런 생각을 못하였을까?)

이윽고 김정숙동지와 함께 해방산을 내린 그는 자기도 그 꽃나물을 한그루 떠서 장군님저택의 정원에 심으리라 마음먹었다.

이튿날 날이 흰히 밝자 그는 산으로 올랐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아무리 산을 올라훔고 내려훔어도 꽃나무는 보이지 않았다. 그의 뇌리에는 문득 김정숙동지께서 꽃나물을 들고 계시던 그 바위가 떠올랐다.

(혹시 거기 가면 있지 않을까?)

그는 재차 그쪽으로 걸음을 옮기였다. 그러나 거기에도 꽃나무는 보이지 않았다.

(참, 이상한 일이군. 이 큰 산에 그 꽃나무가 단 한그루밖에 없었던 말인가?)

이상야릇한 생각이 갈마드는 속에 고개를 기웃거리는데 어디선가 인기척이 나더니 정정해보이는 로인이 나타났다.

이 고장에 태를 묻고 살아온 로인이라는것을 알게 된 그는 반색하며 해방산에 백리향이라는 꽃나물이 어디에 있는가고 물었다. 그 로인은 금시초문이라는 기색을 지으며 다른 곳에 가서 찾아보라고 《권고》하였다.

(해방산에 백리향이 없다니, 그럼 김정숙동지께서 어떻게 그 꽃나물을 찾으시였을까?)

그로부터 며칠후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저택을 찾아갔던 그는 손에 쟁기를 들고 나오시는 김정숙동지께 어디로 가시는가고 물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백리향을 더 떠다심으려고 해방산으로 간다고 조용히 말씀하시며 걸음을 옮기시였다.

그는 며칠전에 풀지 못한 의문과 호기심을 가득 안고 그이의 뒤를 따라 해방산으로 올랐다.

오솔길에 들어서신 김정숙동지께서는 곧장 처음 녀투사와 만났던 바위쪽으로 다가가시였다. 그이의 뒤를 따르던 그는 그만 눈이 휘둥그래지고 말았다. 그 바위아래에 한그루의 백리향이 그윽한 향기를 풍기고있는것이 아닌가?!

아무리 눈을 비비고 살펴보아도 그것은 분명 백리향이었다. 부정할수 없는 희한한 현실앞에서 그 녀투사는 분명 이 꽃나무는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시는 김정숙동지의 뜨거운 마음에 감동되어 땅속에서 솟아오른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후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뜨거운 정성이 깃든 백리향은 푸르싱싱 자라 날로 그윽한 향기를 풍기였다.

축포에 대한 생각

박 세 일

전투에서 전투으로 이어진 지난해를
축포와 축포로 황홀하게 장식하고
새해를 맞이하니
하많은 생각중에 축포에 대한 생각 깊어지누나

지난해는 변이 난 해였으니
축포의 변도 터진것인가
한해에도 세번이나 터쳐올렸으니...

나는 들었다 축포여
너의 장엄한 포성에서 나는
강성대국건설참전자들이 터치는
만세의 합성을

멋있었다 축포여
저 하늘에 수놓아진 너의 황홀경에서
나는 아름다운 조국의 미래를
행복한 인민의 모습을 보았다

정녕 지난해 터쳐올린 축포의 황홀함은
선군의 궤도따라 지금 이 시각에도
우주를 날고있는
《광명성2호》의 빛발은 아니었던가

과학기술강국의 위용을 파시하는
우리 식 련하기계
그 희한한 모습이
축포의 불꽃보라로 뿌려진것 아니던가

새해에도 축포여 그렇게 터치리
초고전력전기로에 만발한 쇠물꽃을

가 사

그대로 너의 불꽃으로 피우며
탄전을 뒤흔드는 발파소리를
그대로 너의 포성으로 터치며...

보아라 새해 첫 전투에 진입한
희천발전소건설장
혁신자 축하의 꽃다발에도
축포의 불꽃송이 내려앉은듯

10만세대 살림집건설장
긴 팔을 휘젓는 기중기들도
어찌 보면 축포발사대인듯

신비하다 축포여
너를 생각만 해도
천만가지 환상의 나래가 퍼덕이고
그 환상을 현실로 꽃피워갈
창조의 령감이 번뜩이나니

우리 이렇게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도
내 나라의 푸른 저 하늘에 터쳐올리리라

오 선군령장 **김정일**장군님따라
전환의 도약대에 높이 올라
비약하고 또 비약하여
2012년엔 기어이
만복이 짙 들어찬 강성대국의 묵직한 대문을
정든 고향집 사립문을 열듯이
우리 땃땃이 열고 들어서리라

쇠물꽃바다

심 재 훈

하늘땅 붉게 물든 쇠물폭포에
황홀경 펼쳤구나 쇠물꽃바다
용해공들 피우는 사랑하는 꽃
내 나라에 또 하나 절경이라네
아 내 고향 강선의 쇠물꽃바다

세월의 눈비에도 시들지 않는
창조로 붉게 타는 쇠물꽃바다
아버이장군님의 손길이 어려

위훈의 숨결높이 피어난다네
아 내 고향 강선의 쇠물꽃바다

천만년 대를 이어 피우고피울
우리의 한마음 쇠물꽃바다
강성대국 하늘가에 축포로 올라
내 조국에 아름다운 수를 놓으리
아 내 고향 강선의 쇠물꽃바다

《작가는 오직 당을 위한 몸이 되어야 하며 무엇을 하나 창작하여도 당의 뜻을 끝까지 받들고 꽃피우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하여야 한다.》

김 정 일

새해결의

더 높은 목표로

우리 조국청사에 뿌렸한 자옥을 남긴 뜻깊은 주체98(2009)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는 이 시각 류달리 감회가 깊어진다.

지나간 한해를 돌이켜보느라니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기어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길 굳은 결심을 안으시고 가는 곳마다에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주시며 눈보라 몰아치는 날에도, 불별이 쏟아지는 날에도 쉬임없이 걷고 또 걸으신 현지도도의 길을 되새겨보게 된다.

우리 장군님께서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치시는 불면불휴의 로고의 자옥자옥이 새겨진 그 길을 따라 우리 조국은 강성대국을 향하여 큰걸음을 내짚으며 줄달음쳐왔고 그 길에서 우리 인민의 행복은 더욱 풍성하게 열매를 맺었다.

지난해는 나에게 있어서 조국과 인민, 시대앞에 지닌 작가로서의 사명감을 더욱 깊이 자각케 한 해였다.

나는 지난 2008년에 총서 《충성의 한길에서》 장편소설 《녀성의 노래》를 내놓았다.

뒤늦게 작가대렬에 들어선 나의 노력이 맺은 첫 열매라고 할가. 하지만 기쁨과 긍지보다도 죄스럽고 부끄러운 감정이 앞서는것을 어찌할수 없다.

지난해에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서거 60돐을 맞으며 나는 김정숙어머님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흠모의 정이 얼마나 뜨겁고 절절한가를 다시한번 느끼게 되었다. 서른두해밖에 안되는 짧은 생애에 위대한 수령님을 받들어모시고 따르는 충성의 한길에서 김정숙동지께서 남기신 삶의 향기는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 조국땅우에 더욱 진하게

풍기고있으며 대를 이어 영원히 우리 **김일성**민족 후손들의 생명소로 되고있다.

그에 비해볼 때 나는 소설에서 김정숙동지의 위인적풍모의 몇분의 일도 제대로 그려내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가슴을 허비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교훈이 클수록 새롭게 다지는 결의 또한 심각하다. 밝아오는 새해를 마중하는 이 시각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해본다.

새해에는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 또 얼마나 어려운 고개를 뚫아야 하는가.

또다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를 형상한 장편소설을 창작할 과제를 맡은 나의 마음은 지금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차있다.

첫 고개도 힘들었지만 두번째 고개도 조런치 않다. 나는 자신을 채찍질한다.

한생토록 **김일성**장군님을 받드는 태양의 해발이 되시여 자신의 모든것을 수령님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 혁명을 위하여 다 바치신 김정숙어머님을 닮자. 그리하여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받들고 따르는 그 길에서 장군님의 참된 딸이 되자.

나는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을 맞는 새해에 이런 각오를 안고 달리고 또 달려 총서 《충성의 한길에서》 장편소설 《강산의 봄》(가제)의 초고를 완성할 결심이다.

목표는 높다. 목표가 높은것만큼 배가의 열정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다.

이것은 나만이 아닌 뜻깊은 새해를 맞는 우리 창작단의 모든 작가들이 다지는 한결같은 결의이다.

4. 15문학창작단 작가 김 영 희

나의 시, 나의 노래와 함께

문단에 나선 때로부터 열번째로 맞는 새해다. 작가적인 나이로 열살잡이—

이제 겨우 《유년》의 프락을 넘긴셈이다.

분주하게 뛰고 달렸다. 쓰고 지우고 또 쓰고... 바람같이 흘러보낸 10년세월이다.

사람들의 기억속에 남을 이렇다할 작품이 없이 흘러보낸 3 650여일들이 수천개의 회초리가 되어

나의 마음을 사정없이 후린다.

참다운 작가가 보낸 날과 날, 해와 해들은 그아 쓴 작품과 함께 가지 않는 법이다.

시대의 력작 《새들은 숲으로 간다》와 함께 전 후북구전설의 나날들이 사람들의 가슴속에 생생히 남아있듯이, 노래 《천리마선구자의 노래》와 함께 대고조의 불바람이 휘몰아치던 60년대의 낮과

밤들이 오늘도 흐르고있듯이...

나는 가버린 날과 달들을 살았다.

변이 난 해에 뒤이어 또다시 맞이한 전변의 2010년을 나는 나의 시와 노래로 이 땅위에 세워 놓고싶다.

사람들 누구나 즐겨웁고 부를 나의 시, 나의 노래.

10년세월 꾸어온 그 꿈을 이제 더 꾸고있을

수는 없다.

문단의 대지우에 묻은 씨앗처럼 간직해온 그 꿈을 줄기를 돋우고 아지를 펼쳐 이해에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으로 피우겠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시문학분과

위원장 문용철

시대가 공평하는 소설을!

새로운 작품창작에 들어가는 작가에게는 어떤 작품을 쓰겠는가에 대한 자기나름의 지향이 있기 마련이다.

몇해동안 고심하면서 쓴 장편소설을 결속하면서 이번에도 역시 당초의 욕망과 의도와는 거리가 먼 소설을 내놓는구나 하는 아쉬움과 부끄러움을 금할수 없었다. 나의 고충을 두고 작가라면 누구나 일생 당해야 하는 고충이라고 위안해주는 동료작가들도 있지만 후회는 어쩔수 없다. 좀더 심혈을 기울여 썼더라면! 하는 후회이다.

새해가 왔다!

당의 부름과 호소를 높이 받들고 전체 군대와 인민이 150일전투와 100일전투에 한결같이 떨쳐 일어나 강성대국건설에서 큰 변을 일으킨 한해를 보내고 더 밝고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미래를 가슴펴고 바라볼수 있게 된 역사적전환기에 맞게 되는 해여서 더욱 뜻깊은 새해이다.

들끓는 시대의 분위기에 맞게 모든것이 새롭게 일신되어야 할 해! 그에 맞추어 나의 창작생활에서도 근본적인 변혁이 일어나야 할것이다.

새해에 나는 새 장편소설을 써야 한다. 자료취재와 연구, 구성작업은 이미 끝났다.

그런데 걱정되는것이 너무도 많다. 그것은 내가 체험해볼수 없었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를 그려야 하며 가장 엄혹한 시련속에서 자기 수령, 자기 당, 자기 조국을 위해 한목숨 바친 영웅의 성격을 그려야 하기때문이다. 해당 시대와 그 시대 인간들의 감정과 성격을 역사주의적원칙에서 진실하게 그리면서도 오늘에 사는 인간들이 어떻게 살며 투쟁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 대답을 주는것,

이것이 오늘의 벽찬 시대가 작가인 나의 어깨우에 지워준 의무이다.

이 의무를 수행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에게 그럴만 한 재능과 능력이 있는가? 이렇게 스스로 물음을 제기해보면 모든것이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노력하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한다.

주체적문제사상과 리론공부도 더 직심스럽게 하고 당에서 평가한 선배작가들의 우수한 작품에서 더 많은것을 배워야 한다. 구성조직과 문장, 어휘에 이르기까지. 그밖에도 해야 할것은 많고도 많다.

우선 작품창작에 피와 땀을 강그리 쏟아붓는 탐구정신을 더욱 배양해야 할것이다. 작가에게서 사색의 빈곤은 필연코 작품에서 철학의 빈곤을 가져오기마련이다. 작가가 엮어놓는 하나하나의 문장, 하나의 어휘에도 깊은 사색이 비껴있지 않다면 어떻게 그 작품이 읽을 맛이 있는 작품으로 될수 있으며 독자들을 매혹시키는 작품으로 될수 있을것인가.

독자들에게 읽히우는 소설은 결코 앙상한 론리나 사건으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독자를 사상정서적으로 매혹시킬 때에만 한번 손에 쥐면 놓지 못하는 그런 작품으로 될수 있다.

현시대에 사는 인간들의 사랑을 받는 소설을 써내는것! 이것이 새해를 맞으며 다지는 나의 결의이다.

결의는 한마디로 하지만 실천하자면 결코 험치 않을것이다. 하지만 노력하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 될것이다.

작가 최성진

백배의 노력으로

실농군은 자기의 성실한 땀으로 풍성한 열매를 수확한다.

하지만 문학은 땀으로만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 재능을 밑천으로 하는 독특한 학문이며 창작분야이기때문이다.

이렇다할 재능을 타고나지 못한 나로서는 작품

을 새로 쓸 때마다 자신의 무재에 고민을 거듭하지 않을수 없었다.

후회속에 또 한해가 저물어 새해가 왔다. 한탄만 하고있을 시간적여유가 없다. 해가 바뀌면서 나이를 먹어간다는 초조감때문만이 아니다.

강성대국의 대문을 향해 최대급행렬차인양 줄달

움쳐가는 시대의 요구가 그럴 여유를 주지 않는다.

우리 문단의 쟁쟁하고 실력있는 작가들이 쓴 호평받는 소설들처럼 새롭고 독특한 형식과 참신한 개성을 가진 소설을 써내자면 무엇보다 해결할 것인가.

피타는 탐구와 사색과 함께 결정적으로 묘사능력을 키워보겠다는 결심이다.

올해에 나는 조순옥영웅을 원형으로 한 중편소

설을 완성해야 한다. 구성형식이 새롭고 인간성격들이 새롭게 펼쳐지는 생활을 참신한 맛이 나게 그려내려는 결심만은 남한테 뒤지고싶지 않다.

남이 한걸음 걸을 때 백걸음 걷고 남이 하루밤을 새울 때 백밤을 새우면서 고심어린 창작전투를 벌려 독자들앞에 부끄럽지 않는 소설작품을 내놓겠다.

작가 박 혜 란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명작창작을 힘있게 선도하는 평론을!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높이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장엄한 투쟁으로 들끓던 격동적인 한해가 지나고 승리와 영광으로 빛날 희망찬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 누구나 생각이 깊어집니다. 지난해 자기의 창작생활을 돌이켜 보고 새해의 결의를 다지는것은 모든 작가들이 가지는 같은 마음일것입니다.

지난해 문학계에서 작품창작의 교과서라고 할만큼 권위있는 평론을 창작하였는가, 평론도 창작인데 평론가의 독창적인 발견과 철학적인 탐구가 없이 상식적인 리론을 되풀이한 평론을 쓴적은 없는가. 지난해 자신의 평론창작을 놓고 생각할수록 부끄러운감이 없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선군시대의 기념비적명작창작을 힘있게 선도하는 평론을 쓰자고 제만의 만만한 야심과 욕망으로 가슴불태웠지만 결과는 시원치 않았습니다.

올해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 당 창건기념일에 나는 무엇을 드릴것인가.

나는 올해에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벽찬 숨결이 맥박치고 우리의 사회주의생활을 깊이있고 진실하게 반영한 국보적인 작품창작을 힘있게 선도하는 말그대로 우리 작가들의 창작에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평론명작을 위대한 우리 당에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백인준을 세계적인 대문호로 키워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평도업적과 백인준의 작가적풍모와 창작적개성을 전면적으로 보여주는 새 도서를 독자들에게 내놓으려고 합니다.

욕망이 결코 열매로 되는것은 아닙니다. 창작은 심장으로 하는 일이며 작품은 작가의 열정과 재능의 산물입니다. 아무리 높은 목표를 내걸었다 하

여도 피타는 탐구와 완강한 노력, 불타는 열정이 없으면 그것은 한갓 꿈으로 남는것입니다.

실력이자 실적입니다. 창작적재능을 소유한 평론가만이 시대와 현실이 요구하는 훌륭한 평론을 창작할수 있습니다.

나는 올해에 실력전을 힘있게 벌릴수 있게 창작능력을 높이기 위한 피타는 노력을 기울이며 높은 정신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인생의 하루하루를 최대한의 마력을 내면서 창작의 강행군을 벌려나가겠습니다.

인생의 행군길에서 생의 끝까지 최대의 마력을 내자! 이것이 올해 새해를 맞으며 내가 더욱더 가슴깊이 다지는 맹세입니다.

나는 올해에 특히 우리 식 평론의 특성을 살리는데 힘을 넣으려고 합니다.

작가의 창작을 원칙적이면서도 진심으로 이끌어주고 작가와 작품을 아끼고 책임지는 립장에서 평론하며 높은 예술적감각과 형상적환상력을 가지고 작가의 창작심리와 작품생리에 정통한 평론을 창작하겠습니다. 우리 소설가들과 시인들의 창작생활에 깊이 침투하고 그들과 교감되며 우리 독자들이 기다리는 평론다운 평론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나는 올해에 내세운 높은 목표를 점령하기 위하여 견인불발의 의지로 창작전투를 벌려나가며 사색과 탐구에서, 열정과 노력에서, 속도와 활력에서 더욱더 젊어지려고 합니다.

깨끗한 작가적량심을 가지고 분발하여 창작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진군속도를 창조하며 열정의 불을 달려 올해에 기어이 평론명작을 내놓으려는것이 새해를 맞으며 다지는 나의 결의입니다.

평론가 박 춘 택

따 뜻 한 1 월

김 금 옥

1년 사계절 열두달은 엄연히 추운 달과 더운 달들로 구분된다. 그중에서도 1월은 추위가 독을 쓰는 달이라고 볼수 있다.

그러나 우리 강원땅 사람들은 1월을 가리켜 따뜻한 1월이라고 말한다.

따뜻한 1월!

물론 춥고 더운것을 감수하는데서 사람마다 일정한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 어쨌든 1월의 추위를 부정할수는 없다. 하다면 어찌하여 부디 더운 계절도 아닌 1월을 두고 따뜻한 1월이라고 꽃피는 봄날처럼 부른단 말인가.

며칠전 퇴근길이었다. 오색령통한 불빛이 높고낮은 건물들을 솟구쳐오르내리기도 하고 가로세로 멋스럽게 흐르기도 하는 불야성의 거리를 걷는데 앞에서 가는 두 처녀가 다정히 주고받는 말이나의 귀전을 쳤다.

《넌 왜 하필이면 제일 추운 1월달에 군민발전소건설장에 휴가를 바치겠다는거니?》

《제일 추운 1월달? 넌 참... 불야성의 도시에서 살면서...》

키가 큰 처녀는 혀를 차더니 명랑하게 말을 이었다.

《난 우리의 1월은 따뜻한 1월이라고 생각한다.》

《따뜻한 1월?...》

《그래. 우리의 1월은 따듯해. 그전...》

처녀는 무엇인가 생각하는듯 선뜻 말을 잊지 못하였다. 하지만 나는 그 처녀가 잊지 못하는 뒤말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생각이 순간에 안겨왔다.

따뜻한 1월!

눈시울이 뜨거워오른다.

그리고 눈길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니 거리를 대낮처럼 밝히는 불빛은 마치 따스한 햇빛같았고 여러가지 색깔의 장식등이 명멸하는 모양은 활짝 피어난 아름다운 꽃들을 련상케 하였다. 하여 마치 봄날의 훈풍이 오가는 사람들이며 우리 사는 이 도시전체를 포근히 감싸안는듯 하고...

어째서, 무엇때문에... 저도 모르게 눈곱이 젖어들었다.

지난해 1월 그것도 류달리 맵짠 소한날 원산청년발전소를 찾아오셨던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안겨와서였다. 강선로동계급의 심장마다에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지펴주신 12월의 그 걸음으로 새해 정초 1월의 추위속을 헤쳐오신 아버지장군님!

자체의 힘으로 큰 발전소를 건설한 강원도인민들이 얼마나 대견하고 사랑스러웠으면 새해벽두에 그것도 추운 소한날에 찾아오신것인가.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아슬한 산벼랑을 타고 줄줄이 뻗어내린 아름드리 철관로들과 발전소의 외부와 내부를 다 돌아보시고 현대적인 발전소를 일떠세운 강원도인민들에게 크나큰 믿음과 사랑이 담긴 분에 넘치는 평가를 안겨주시였다. 재간둥이들은 모두 강원도에 모인것 같다고, 무에서 유를 창조한 자력갱생의 선구자들과라고, 자력갱생의 위대한 생활력을 실천으로 증명한 불굴의 투사들과라고 하시면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투쟁에서 강원도인민들이 발휘한 강의한 정신력을 따라배워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어찌 그뿐이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발전소를 건설하느라 고생을 많이 한 강원도인민들이 실지 전기덕을 볼수 있게 원산시 불장식도 희한하게 하고 살림집들의 전기화도 해야 한다고 은정어린 가르치심도 주시였다.

그 격동적인 소식은 삽시에 온 나라를 불도가니 마냥 들끓게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강선땅에 지피신 대고조의 불길이 더 세차게 타오를 무한대의 열원을 인민의 가슴에 안겨주신것이였다.

자력갱생의 선구자! 불굴의 투사! 정신력의 창조자! 체험자!...

심장을 뚫게 하는 그 열원을 지닌 천만군민이 눈보라치는 전투장마다에서 찬기운을 몰아내고 계절을 앞당겨 꽃을 피우고 열매를 거둘 신심과 용기를 가다듬었다. 기어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리라는 심장의 노래, 투쟁의 노래가 가는 곳마다 울려 퍼졌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이 땅의 인민은 따뜻한 1월을 가슴에 안았다. 누구도 1월의 추위를 생각지 않았다. 만나는 사람마다 뜨거운 열기로 달아오른 1월에 대해 말했다.

그 많은 사람들중에 눈곱을 적시며 목이 메여 선뜻 말을 못하던 한 일군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는 원산청년발전소건설초기부터 앞장에서 대오를 이끌어온 지휘관의 한사람으로서 장군님을 맞이하는 영광을 지닌 일군이였다.

《우리가 발전소건설을 좀더 빨리 끝냈더라면 경애하는 장군님을 꽃피는 봄날이나 가을날에 모실수 있지 않았겠소...

그날 아침 성에불린 야전복차림의 장군님을 맞

오산덕이 기다린 날

전 승 일

오늘을 기다려
간절히도 기다려
만발한 백살구꽃은
몇십년을 피고지고
다시 또 피고진 오산덕

그리움이 층층 고여 솟은
인민의 소원이 층층 고인
아 회령의 오산덕으로
오늘은 우리 장군님
태양의 봄빛을 뿌리시며 오르시여라

어머님을 우러러
생각깊이 자욱자욱 읊기시고
다시 또다시 멈춰서시는
우리 장군님의 바다같은 심중을
그 누가 다 헤아리랴

힘겨울 때도 오고싶었던 어머니고향
어려울 때도 뵈고싶었던 어머니모습
그 어느 하루한시도
마음속에 헤여지신적 없는
아 김정숙어머님

때없이 칠산봉에 오르시고
온 북변땅을 누비시면서도
지척의 회령땅을 바라보시며

사무치게 어머니를 불러보신적 그 몇번이었던가

허나 어머니의 필생의 당부를
백두의 산악처럼 안으신 장군님이시기에
그때마다 총대를 더욱 으스러지게 틀어잡으
시였다

어머님념원을 철의 맹세로 안으시고
준엄한 전선길로 굽이쳐 달리셨거니

아 수령님조국으로 만대로록 번영할
강성대국의 그날을 자욱자욱 당겨오시며
봄날같이 웃으시는 어머니의 축복속에
오산덕에 오르신 장군님마음속에서는
천갈래 만갈래 추억의 이랑이 물결치나니

사진을 찍자고
나도 어머니와 함께
사진을 찍고싶었다고
따스한 어머니의 체온을
심장 찌릿이 안아보시며 웃고계시는 그 순간

장군님마음속에는
아 조용조용 노래가 들려왔어라
어머님 불러주시는 념원의 노래 축복의 노래가
어서 자라 속히 자라 총칼을 메고
조국해방 만세소리 활달한 곳에
너 앞서고 나 뒤에 나가싸우자는...

이한 저희들은 마음속으로 그냥 뜨거운것을 삼키
였지요. 피로운 심정을 참을수 없어 우리들이 일
을 쓰게 못하여 추운 소한날에 장군님을 모시여
죄송스럽다고 말씀올렸더니 그이께서는 해빛같
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소한날인줄 모르고 왔다
고 오히려 전사들의 마음을 따뜻이 풀어주시는것
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어버이장군님께서 영원히 추위를 모르는
1월을 인민의 가슴에 안겨주었다고 격정에 넘
쳐 말했다.

아, 얼마나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가슴 불태우
셨으면 그리고 하루빨리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길 열망을 안으시였으면 우리 장군님 대소
한의 추위마저 잊으셨으랴.

강원땅 인민들 아니, 온 나라 인민이 눈물속에
따뜻한 1월을 받아안았다.

장군님 안고오신 1월! 그것은 정녕 크나큰 믿음
이고 뜨거운 사랑이며 2012년을 향해 질풍같이
내달릴 진할줄 모르는 힘이며 시간이 가고 날이

흐를수록 더 세차게 타오를 새로운 혁명적대고조
의 불길이었다.

1월의 그 열광을 안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온 한해를 전진하는 조국의 앞장에서 쉬임없는 현
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였다. 그 1월에 이어,
경애하는 장군님 찍으시는 그 현지지도의 발자욱
따라 한해의 경이적인 사변들이 우리 조국땅위에
달마다 펼쳐진것이 아니었던가.

경애하는 장군님 안겨주신 우리의 1월! 심장의
박동이 빨라지고 대지가 달아오른 1월, 대고조의
불길이 더 세차게 타오른 1월, 그 1월로부터 세
상을 놀래우는 탄성속에 흐른 조선의 열두달!

참으로 사변적인 달과 달의 연속이었다.

이것은 지나간 과거가 아니다. 추억으로 돌이켜
보는 어제가 아니다. 우리의 미래이고 앞날이다.
신심과 락관에 넘쳐 또다시 힘있게 내디딘 대진
군의 첫걸음 1월이다.

아, 따뜻한 1월! 누구나 마음속에 꽃을 피우는
계절, 열매를 안아보는 계절.

오늘의 최전선 외 1편

백 하

눈발은 왜 이리도 사납게 몰아치는가
눈바람 사나운 청천강가에서
장군님을 맞이한 부대지휘관들
목이 짝 메였다

해를 넘겨 걸으시는 강행군길에서
천만로고 다 이겨가시는
아버이장군님의 그 모습
뜨거이 우러른채 지휘관들 울컥
눈물이 앞을 가리웠다

하지만 장군님
자갈폭포 쉽없이 쏟아지는
선별장의 작업음향을
기쁘게 들으시며
덥석 지휘관들의 손부터 잡아주시었다

기어이 10년세월을 3년에 당겨
언제를 완공해야 한다니며
장군님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여라
희천발전소건설장은 오늘의 최전선이라고

순간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최전선이
여기 청천강기슭에 옮겨지고
총공격전의 불의 전역이 뚫어번진다
혼합장은 하늘중천에서 우뢰치고
대형차의 행렬은 폭풍을 일으킨다

최전선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최전선
압축기는 산벼랑을 통채로 뒤잡아 흔들고
착암기의 정대마다에 불이 터졌다
벼락치는 합마밀에 바위가 갈라지고
굴착기바가지에선
쏟아진다 돌사태가 무너지듯

크나큰 믿음을 주시고
격전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떠나가시던 장군님
다시 되돌아오시여
또 오시겠다 하시는 뜨거운 말씀

절절하신 그 음성
가슴치는 한없는 그 믿음
사나운 눈바람속에 오시여
그리도 가슴미여지는데
그 눈바람속에 오시여 또 오시겠다는
하늘같은 아버지 그 사랑이여
장군님 정녕 희천땅에
심장을 두고 가시는가

오 희천땅
희천땅은 오늘의 최전선
장군님 함께 계시며
함께 격전의 날과 날을 보내시는
총공격전의 최전선이어라

기 와 를 없 는 다

아직은 주소도 없다
인민반도 없다
푸른 산기슭 맑은 시내가에
백학의 무리 내려앉았는가
흰 지붕을 쓰고 일어서는 새 마을
청년돌격대원들 흥성흥성
신나서 기와를 없는다

높이도 솟은
살림집건설전망도앞엔
걸음 멈춘 사람들 떠날줄 모르고

보고 또 본다
이름없는 산기슭에 소문없이 일어서는 새 마을
너무도 가슴뜨거운 사랑의 새 마을

세차게 기폭치는 돌격대기발아
너는 왜 그리 목메여 소리치느냐
아, 우리 장군님
눈비 퍼붓는 발전소건설장에 오시여
언제보다 먼저
인민들의 집을 지어주라 하셨나니

세상에 이런 사랑 그 어디 있으랴
언제건설장보다 먼저
살림집건설지휘부뜨락에
대형자동차들 부릉부릉
세멘트를 부리는 소리

한껏 내려편 지붕의 널판자우에서
청년돌격대원들 기와를 얹는다
기쁨 담아 한장 또 한장
지붕밑에는 집구경 온 인민들
이 방에 들어가보고 저 방에 들어가보고
넓은 전실에선 발을 못 옮기고
너무 좋아 춤이라도 출듯

자강땅 깊은 두메
심산중의 산골사람들
꿈같은 이런 새집 차례졌으니

할머니는 연신 눈곱을 찌고
아바이는 어깨춤이 더덩실

기와를 얹는다
발전소의 기초를 다지기 전에
새 살림집지붕에 기와를 얹는다
언제보다 먼저
인민들의 집을 짓는것은
장군님의 결심

오, 기와를 얹는다
거창한 언제가 하늘을 가려도
인민의 창가에는
한점의 그늘도 용납치 않는
장군님의 그 의지를 담아
행복의 기와를 얹는다
위대한 사랑을 얹는다

내 한생 감아도 ...

심 복 실

오리오리 비단실 얼마나 감아야
조사공 나의 하루 끝나는가고
공장을 찾아오는 사람마다 물어요
글쎄요, 이 가는 실오리
얼마나 감아야 내 마음이 성찰가요

감아도 감아도 성차지 않아
기대결을 떠나지 못하는 마음
장군님께 작업모습 보여드린 처녀라
모두가 부러워해도
어떡해요, 난 막 안타까운걸
실폭포를 단숨에 내리지 못해

글쎄 못 잇을 한해전 겨울 아침
공장을 찾아오신 어버이장군님
기대결에 내결에 가까이 오셨을 때
이제 더는 비단실 넘려마시라
한마디 말씀조차 못 드렸으니

한겨울도 꽃치마로 봄날에 살며
잠시나마 쉬고 가실 방식 하나 못 드린채
머나먼 전선길 눈바람 헤쳐오신
장군님로고에 그만 목매여
눈물로 고치고치 적시기만 했어요

죄스런 마음만 열레에 감았어요

아, 모셨던 그날부터 온 한해
감아내는 실토리는 자꾸 늘어나도
장군님 맞으신 찬바람이
가슴에 그냥... 가슴에 불어...
실실이 뿔아감는 이 마음 비단실
어찌 계획으로만 만족하겠나요
그날 그 하루해가 지지 않았는데

인민위한 고생을 락이라시며
강성대국 큰집에서 인민을 살게 하시려는
장군님의 그 념원 필생의 념원
고치실로 받들기엔 실이 너무 가늘어
나날이 커만지는 어버이사랑
내 한생 감아도 따르지 못해

가슴이 불타요 불타올라요
바쁘게 감아내는 이 실 다 풀어도
낮이나 밤이나 장군님 걸으시는
로고의 천만리엔 다 못 늘어
온 나라에 비단실이 폭포칠 때까지
나에겐 성찰 날이 있을수 없어요

우리 시대의 참다운 애국자의 형상

— 장편소설 《불타는 려명》을 두고 —

리창유

과학기술의 발전은 강성대국건설의 기본방도이고 핵이다. 최첨단과학과 기술을 소유하여야 인민경제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강성대국도 건설할수 있다. 때문에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승리하자면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선진과학과 기술로 무장하는것이 급선무라고 할수 있다.

강성대국건설로 온 나라가 들끓고있는 오늘의 벅찬 현실은 우리의 문학예술로 하여금 첨단과학과 기술로 무장한 실력가형의 일군, 선군시대 주체형의 인간전형을 창조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주체101(2012)년까지 기어이 강성대국의 문패를 달기 위한 오늘의 벅찬 투쟁을 형상함에 있어서 우리 시대의 참다운 애국자란 말로써가 아니라 최신과학기술로 무장하고 실천투쟁으로써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아글타글 애쓰는 사람이라는것을 생활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해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대는 끊임없이 전진하고있으며 문학예술에 대한 인민의 요구도 날을 따라 더욱 높아지고 있다. 문학예술은 마땅히 시대와 함께 전진하여야 하며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선도하여야 한다.》

최근에 나온 장편소설 《불타는 려명》(현승남 작)은 강성대국건설에 힘차게 떨쳐나선 우리시대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투쟁을 오늘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훌륭하게 형상한것으로 하여 선군시대 주체문학의 화원을 새롭게 장식하는 또 하나의 성과작이라고 할수 있다.

오늘의 참다운 애국자는 어떤 사람인가

장편소설 《불타는 려명》이 제기한 새로운 인간문제는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우리시대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투쟁을 반영함에 있어서 오늘의 참다운 애국자란 어떤 사람인가 하는것이다.

작품에서는 이 문제를 경제부문의 전반적인 명맥을 이어주며 공업의 기초라고도 할수 있는 전선자재를 생산하는 남평전선공장의 현대화투쟁을 중심에 놓고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사업과 생활을 폭넓게 그려나가면서 그에 대한 예술적해명을 주고있다.

지난 시기 참된 애국심이 조국을 지키고 전후 파괴된 나라의 경제를 추켜세우는데 앞장에 선 그

런 사람들이 지녔던 로동에 대한 성실성과 인민에 대한 다함없는 복무정신이였다면 오늘은 이와 함께 새로운 과학기술로 무장하고 나라의 경제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앞장에 선 사람들속에서 발휘되는 헌신이 우리 시대 참된 애국심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의 애국자는 높은 실력을 소유해야 나라의 경제를 높은 수준으로 현대화하는 거창한 투쟁의 기수가 될수 있는것이다. ...

작품에서는 바로 이러한 인간문제를 해명함에 있어서 주인공 차정민을 오늘의 참된 애국자의 전형으로, 지배인 권택호를 비롯한 공장의 오랜 일군들을 지난 세기 60, 70년대 공장개건공사에 투신한 애국자의 전형으로 내세우고 이들의 관계를 깊이 파고들어 이야기를 펼치고있다.

소설의 맨 마지막부분에는 청년작가로 등장하는 류진남의 이런 심중의 토로가 서술되여있다.

《...어제날의 애국은 잃었던 나라를 찾고 폐허로 되었던 조국을 일떠세우는데 다함없이 헌신한 것이였다면 오늘은 바로 그 조국을 세계최단에 당당히 빛내이는것이 최대의 애국이라고 할수 있다. 그런 지향과 목표, 그런 열정과 배짱, 담력, 그런 실력을 지니고 실적을 내는 사람이 진짜배기 시대의 영웅, 김정일조국의 참다운 애국자다. 우리의 강성대국은 그런 애국헌신에 의하여 창창히 밝아온다.》

강성대국의 휘황한 태일을 앞당겨오기 위하여 세계최첨단의 과학기술수준에 맞게 공장의 현대화에 이바지할수 있는 그런 실력과 배짱을 지니고 고심어린 탐구와 연구끝에 새로운 절연피복재를 연구하는데 성공하고 또 나라에 막대한 리익을 줄수 있는 고압까벨중간점속부를 우리 식으로 연구해내는데 크게 기여한 주인공 차정민.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에 의하여 절연물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중요한 과업이 제시된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합동전원회의를 앞두고 새롭게 내온 김책공업대학 절연 및 케블공학과(당시) 제1기 최우수졸업생이다.

그는 공장에 배치된 직후부터 이미 대학졸업문에 반영하였던 새로운 우리 식 절연피복재연구에 달라붙으며 수년간의 고심끝에 전선생산의 질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도를 찾아낸다. 또한 그는 당면한 공장의 생산계획수행에만 몰두하면서 고압까벨을 잇기 위한 중간점속부개발문제를 우리 공장에서 꼭 해낼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완강히 반대해나서는 지배인 권택호나 기사장 류기

철 등 여러 일군들과 기술자들의 기관본위주의적이며 보신주의적인 협애한 태도와는 상반되게 과학기술상 미지의 개척지였던 이 문제해결에 달라붙음으로써 마침내 성공하여 나라에 막대한 이익을 주고 공장현대화에 크게 기여한다.

작품에서는 이렇듯 공장현대화문제를 놓고 상반되는 주인공 차정민과 공장지배인 권택호며 기사장 류기철의립장과 태도를 통하여 오늘의 참다운 애국심이 지난 세기 60, 70년대에 모든것이 부족한 속에서도 공장개건에 한몸을 내던 일군들의 애국심과의 공통점은 무엇이며 무엇이 새로운가 하는 데로 지향되도록 이야기를 끌고감으로써 우리 시대가 제기하는 절박한 문제, 강성대국을 건설하려면 일군들부터가 최신과학기술로 무장할 때만이 이 거창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수 있다는 예술적해명을 주고있다.

인민경제의 현대화는 무엇보다먼저 첨단과학과 기술로 무장한 실력가형의 일군을 요구한다. 이 새로운 인간문제는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당과 수령을 받들어 힘차게 싸워온 지난 시기 주체형의 인간 전형들에 비추어볼 때 주도적인 성격적특질에서 적지 않은 공통점을 가지고있으면서도 일련의 발전적면모를 가지고있다.

일반적으로 주체형의 인간의 주되는 성격적특질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신뢰와 불타는 충실성, 조국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복무정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불굴의 의지와 혁명적략관주의, 고결한 혁명적의리와 뜨거운 동지애이다. 이 주도적인 성격적특질은 시대와 함께 일관하게 계승되고 발전풍부화되어왔으며 그것은 선군시대에 이르러 수령결사옹위정신을 핵으로 하는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승화되어 온 사회가 따라배우는 기풍으로 확립되었다.

또한 《고난의 행군》, 강행군에 이어 새 세기에 들어와 강성대국건설의 세찬 불바람속에서 우리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과학과 기술의 시대적본분에 맞게 모두가 실력가형의 인간으로, 세계적인 첨단과학기술로 무장함으로써 하루빨리 우리나라를 경제강국으로 전변시키려는 높은 자각과 불변의 신념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리키시는 보다 휘황한 패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이러한 현실을 깊이 파악함으로써 오늘의 참다운 애국자의 전형적인 모습에서 모르면 인민경제의 현대화에 기여할수 없으며 따라서 누구나 다 최신과학기술에 능통하여야 강성대국의 휘황한 앞날을 앞당겨울수 있다는 높은 자각을 가질수 있는 그런 작품을 창작하여야 한다. 바로 여기에 장편소설 《불타는 려명》이 제기한 새로운 인간문제의 진가가 있고 이 작품의 사상예술적풍격이 가지는 높이가 있다.

이 작품에서는 특히 주인공 차정민의 성격을 잘 형상하였다.

그의 성격적특성은 일단 내세운 목표는 끝까지 관철하고야만한다는 견인불발의 강한 의지와 드세찬 열정으로 돌진하는 높은 정신력이다. 이로 하여 그는 자기에 대하여 공명주의자라고 뒤소리를 돌리는 기사장 류기철이며 이에 맞장구를 치면서 비상설기술혁신참모부를 조직할 때 자기의 이름을 빼버린 지배인 권택호의 근시안적인 행동을 두고서도 크게 마음을 쓰지 않는다. 또한 그는 남포제련소에 중요자재구입차로 출장간 힘든 환경속에서도 대안중기계공장을 오가면서 이미 수행하고있던 피복재연구와 고압까벨중간접속부개발문제를 놓고 늘 사색하며 그 수행방도를 찾기 위해 모지름을 쓴다. 그는 자기와 함께 이 공장에 배치되었은 기사 오영국에게 공장의 일부 책임일군들이 현존 생산설비에 대한 만족, 기껏해서 국가계획을 수행하고 만세만 부르는 그런 관점으로 하여 나라가 더딘 걸음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한다. 이것은 국가계획이나 매달 완수하고 종전의 기계설비들을 약간씩 보강하면서 기술혁신운동을 소극적으로 벌리는 지배인 권택호며 기사장 류기철 등과 기술혁신에 대한 태도와 관점에서 서로 다르다는것을 웅변적으로 잘 보여주고있다.

그의 성격적특성은 또한 기술혁신운동을 대함에 있어서 자기를 내세우려는 공명심이 전혀 없으며 지식이 받은 압연직장 로동자 한원민을 비롯한 로동자, 기술자들이 착상한것들이 당면한 생산과제수행을 위해 절실히 필요되는것이라고 간주될 때에는 몸을 아끼지 않고 도와주는 고상한 인간애를 겸비한것이다. 이것은 처음부터 새로운 절연피복재연구방법에서 기술공범상 심히 대치되는 안을 내놓은 기사 장영범을 자기 연구조에 기어이 망라시킬뿐아니라 자기의 연구성과를 고스란히 그에게 넘겨주는 일이라든가, 압연공 한원민을 공장대학에 다니게 하고 그를 기술혁신운동의 앞장에 내세워 마침내 높은 과학기술의 소유자로 키우는 사실만 보더라도 잘 알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그의 성격미를 돋구어준다.

말하자면 주인공 차정민은 일군으로서 대중을 자기 주위에 끄는 인정미와 아량을 갖고있다면 현장에 나타나 찍하면 큰소리를 치면서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들어하게 하는 지배인 권택호나 처세에 능한 기사장 류기철 등은 성격미에 있어서 그와 강한 대조를 이룬다.

강성대국건설의 장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오늘의 시대적요구로 볼 때 이렇듯 대조되는 일군들의 성격을 통하여 우리 시대의 참된 애국자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새로운 인간문제를 해명한것은 참으로 이 작품의 사상예술적풍격을 높이게 한 중요한 비결이라고 할수 있다.

성격의 진면모를 립체적으로...

장편소설 《불타는 려명》에서 중요한물형상

이 주는 커다란 예술적감화력은 성격을 리상화, 기정사실화하지 않고 변화발전과정을 통하여 형상한것이다.

성격을 리상화하거나 기정사실화하면 생활을 다면적으로 보여줄수 없으며 이야기전개가 단순하여 아무리 부피 큰 장편소설이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누구는 긍정인물, 누구는 부정인물이라는것이 미리 정해져있기때문에 앞부분만 봐도 뒤가 뻔드름하게 내다보여 읽을 재미가 없게 된다.

우의 장편소설이 독자들에게 흥미진진하게 읽히우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주인공을 비롯한 중요 인물들의 성격을 리상화, 기정사실화하지 않고 변화발전과정을 통하여 그의 진면모를 립체적으로 파악할수 있게 한데 있다.

레컨대 주인공 차정민만 보더라도 기존설비들이 세계공업발전추세에 뒤떨어졌다고 하여 그것을 단숨에 전면개조해야 한다고 하던 나머지 자기 세대에 량심껏 성실히 살았다고 할수 있는 지배인 권택호나 기사장 류기철을 크게 노엽히는 말을 망탕한것으로 하여 그들로부터 심한 오해를 받는다. 그리하여 지배인의 딸 의순이가 그를 보고 1층계단을 밟아야 10층계단에 올라설수 있지 않겠는가, 당장 생산계획을 추진해야 할 기존설비개조안은 매일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 내놓게 되는가 하면서 전 세대를 팔세한다고 비판을 하게 된다.

차정민은 이러한 충고를 제때에 귀담아들으며 이로 하여 기존설비개조를 위한 기술혁신운동에도 발벗고나서서 생산을 추진시키며 그에 기초하여 공장현대화를 위한 설비들을 받아들인다.

차정민의 공장현대화를 위한 발기들을 그릇되게 인식하였다가 자기들의 협애한 생각을 뉘우치고 지지해나서는 지배인 권택호나 기사장 류기철의 성격도 변화발전과정속에서 다면적으로 형상되고있다.

지난 세기 60, 70년대에 그때로 말하면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할 대형압연기를 설치하는 일에서 량심껏 성실히 헌신해온 이들.

지배인 권택호는 예나 지금이나 공장에 대한 애착심이 무척 강한 인간이다. 그런데 지금은 실력적으로 뒤떨어져 공장현대화를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리해가 극히 부족하다. 실력이 딸리니 결린 고리를 앞장서 풀어나갈수 없다.

그는 자기의 짧은 생각에 전면도전해나선 차정민의 말을 듣고서야 부쩍 정신을 차리게 된다. 그는 실력이 딸려 더는 지배인사업을 할수 없다고 심각히 자책하면서 지배인자리를 내놓을 의향을 당위원회에 제기한다. ...

육망 하나만으로 현대공업발전을 추진시킬수 없다.

그의 성격에서 아름다운것은 자신을 제때에 알고 지배인직무를 내놓는것이다. 이것은 실력이 없는 현대공업을 지도관리할수 없다는 시대의 요구를 제때에 간파하고 자각한 옳은 처신이며 그의 아름다운 성격을 특색있게 형상할 가능성을 준다.

작품에서는 중요인물인 지배인 권택호의 성격을 기정사실화하지 않고 시대에 뒤떨어진 일련의 부족점들을 긍정으로 대치시켜 극복해가는 과정을 타당한 생활을 통하여 깊이있게 형상함으로써 성격의 진면모를 진실하게 느끼게 하고있다.

작품의 중요인물인 기사장 류기철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의하여 외국류학까지 마치고 온 기술일꾼이다.

그는 한때 공장의 설비들을 창안개조하는데 앞장섰으나 선군시대에 이르러서는 사회생활을 큰 과오없이 조용히 마무리짓자고 하면서 공장현대화에 외면하면서 그럭저럭 체면유지나 하려고 한다. 그는 전형적인 보신주의자이지만 충격적인 사건이 있는 후(압연기의 중요부속품을 교체할 때 비겁하게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사건) 자진하여 화력발전소에 들어가 로동현장에서 단련한 후 자기의 과오를 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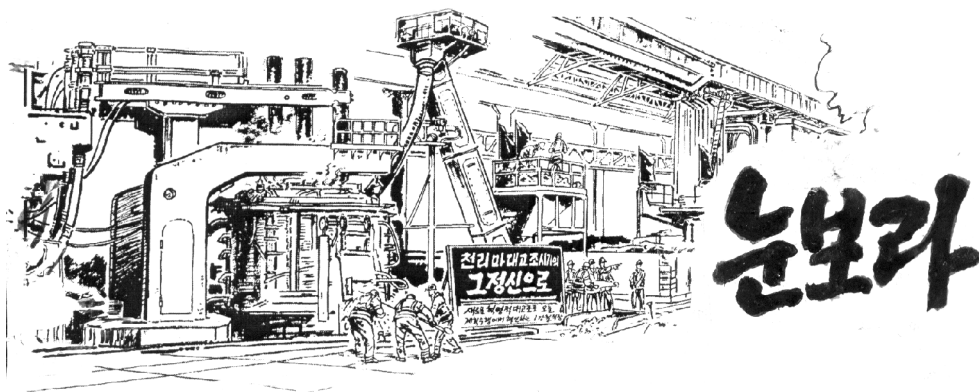
그의 성격에도 긍정면이 있다. 이것은 그가 자기희생성을 발휘하여 동무들을 구원하고 부상당한 처녀와 일생을 함께 한 아름다운 행동을 한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작품에서는 이렇듯 중요인물들의 성격을 리상화, 기정사실화하지 않고 변화발전속에서 긍정을 통하여 부족점들을 개조해나가게 함으로써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이 일심단결된 우리 나라, 서로 돕고 이끌며 동지적협조와 단결이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는 우리 식 사회주의사회의 진면모를 진실하게 느끼도록 하고있다.

작품에서는 인간관계도 여러 갈래로 나누어 다양한 각도에서 뒤떨어진 점들을 타개해나가도록 하고있는바 레컨대 기사장 류기철은 제가 자기의 후임으로 키운 기사 장영범과의 관계속에서, 주인공 차정민은 자기와 함께 일하는 보조공 송언희의 어머니인 설계원 인수임과의 관계속에서 그리고 지배인 권택호는 공무동력직장의 오랜 혁신자인 로력영웅 한재용과의 관계속에서 극적으로 이야기를 심화시켜 마치 여러갈래의 시내물이 모여 큰 강을 이루어 바다로 흘러들어가듯이 강성대국건설의 휘황한 목표를 향해 힘과 지혜를 합쳐 일떠서게 하고있다.

작품은 예술적흥미를 끌수 있는 특색있는 생활세부들을 잘 인입하여 이야기를 재미있게 잘 엮어나가고있다. 이러한 실례로는 여러 인물들의 관계를 극적으로 맺게 하는 감나무세부며 바느질세부등을 들수 있다. 소설창작에서 이러한 세부형상은 독자들에게 지울수 없는 강한 인상을 남겨주며 작품의 내용을 기쁨진 형상으로 충만되게 한다.

장편소설 《불타는 려명》은 작가가 현실체험의 목표를 뚜렷이 정하고 거기서 시대가 요구하는 인간문제를 민감하게 포착할뿐아니라 그것을 전형적인 생활속에서 형상하기 위한 깊은 탐구와 사색을 기울일 때 현실주체의 우수한 작품이 창작될수 있다는 철리를 더욱 뜨겁게 느끼게 하고있다.



김 리 돈

그림 류 명 구

1

겨울해는 우물에 드레박 떨어지듯 한다더니 락조가 걷히자마자 어둠이 내려앉았다. 검푸르게 얼어붙은 하늘에서는 바스라진 얼음조각들을 마구 쥐어뿌린것 같은 별들이 오돌오돌 떨어지고있었다. 맵짠 바람이 방향도 없이 갈개며 떨어진 나무잎들을 말아올리기도 하고 산지사방으로 뿌려던지기도 했다. 떠올랐던 나무이파리 하나가 기사장을 만나고 돌아오는 공무원장장 유명재의 얼얼해진 볼을 후려갈겼다. 공무원기사장을 립시 대리하고 있는 그는 아침에 초고전력전기로의 선회들을 제작할데 대한 과업을 받은것이 아릅차서 이모저모 따져보다가 아무래도 운반수단만은 우에서 풀어주었으면 좋겠다고 기사장에게 제기했다가 통을 맞고 내려오는 길이었다.

기사장은 제기를 받고도 잠시 말이 없더니 초고전력전기로를 빨리 일떠세워야 어버이수령님 탄생 100돐을 맞는 해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데서 우리 강선이 자기의 몫을 떼뻗이 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에게 의존해버릇하면 제힘으로 할수 있는것도 못한다고, 뉘니뉘니해도 제힘부터 믿어야 한다고 오금을 박았다. 유명재는 그 생각에 움하여 추운것도 별로 느끼지 못하는듯 솜옷에 달린 모자도 쓰지 않았고 털지도 세울념을 못한채 걸음을 다우쳐 사무실에 들어섰다. 그는 전등을 켜고 한쪽구석의 자그마한 원탁앞으로 가서 보온병을 기울였다. 차거운 두손으로 따스한 고뿌를 감싸쥔 그는 우두커니 섰다가 물은 마시지도 않고 컴퓨터가 놓인 책상앞으로 다가가 앉았다.

공장안의 사무실들이 다 그러하듯 이 방도 밤색의 윤기도는 책상과 같은 색깔의 길죽한 앞상이 맞대여있었다. 맞은편벽에는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다!》라는 구호가 가로건너갔다. 다른 방들에 비해서 좀 이채로운것이 있다면 창가의 책상우에 있는 컴퓨터와 그 옆벽에 걸어놓은 대형액정화면이랄가, 네등분된 액정화면에는 공무원직장의 내부전경이 비쳐지고있었다.

유명재는 컴퓨터의 전원스위치를 넣었다.

피아노연주가들이 흔히 그러하듯 그는 손가락들을 굽혔다 폈다 하면서 의자를 바루 당겨놓고 앉았다. 탄력이 있어보이는 손가락들이 건반과 마우스우에서 날렵하게 움직이는데 따라 화면에는 초고전력전기로의 웅장한 자태가 나타났다.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기업소를 현대화하기 위한 공정으로 제강소에서는 화면에 비쳐지는것과 같은 현대적인 초고전력전기로건설을 본격적으로 내밀고있었다.

유명재는 선회들의 여러 부분품들과 요소요소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선회들은 외형부터 어마어마했다. 부피도 요란했고 높이도 굉장했다. 마치도 큰 배의 마스트를 방불케 했다. 전극승강장치와 유압설비 등 전기로의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모든 구동장치들이 이 선회들에 배치되어있었다.

용접부위만 해도 수백미터나 되고 무게는 수십톤이나 된다.

하지만 이런것들은 그닥 문제될것이 없었다. 제일 어려운것은 제작공정상 최대의 정밀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수직장 제판장에서 1차적으로 용접한 선회들을 공무원직장으로 운반해다 가공하고 그다음 다시 제판직장으로 날라다 또 용접을 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세번씩이나 오르내려야 완성되는 바로 그것이였다. 보수직장 제판장에 구내철길이 들어가있으면 문제될것이 없겠는데 거기에는 철길이 들어가있지 않았다. 그렇기때문에 부득불 대형추레라로 운반하여야 하는데 제강소에는 그것

이 없었다. 그러니 어차피 남의것을 빌려써야 한다. 자기 칼도 남의 칼집에 들어가있으면 쓰고싶을 때 꺼내쓰기 어려운데 하물며 남의것을 빌려쓰기란 여간 어렵지 않을것이다. 그것도 한번이 아니라 여섯번씩이나...

선회틀을 제작하여 조립에 넘겨야 할 날자는 기껏 20일밖에 없었다. 이것은 종전같으면 한달반의 작업량이었다. 온 공장의 이목이 집중된 속에서 청년돌격대원들은 정신력을 총발동하여 벌써 공사에 달라붙어 많은 량을 해제졌다. 그러므로 선회틀의 용접과 가공을 빈틈없이 맞물리는 운반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초고전력전기로의 준공 기일이 당겨지기도 하고 늦어지기도 할것이다.

마음이 가는데 손이 간다고 유명재의 손가락이 움직이는데 따라 화면에는 물음표가 런던아 새겨졌다.

《? ? ?》

그때 근심에 잠긴 그를 꾸짖는것 같은 문두드리는 소리가 방안의 고요를 깨뜨렸다.

땀뿜지 못한 생각을 하다 들킨 사람처럼 그는 흠칫 놀라 출입문을 돌아보았다.

최만기가 들어섰다. 예순살이 지난지도 퍼그나 오랫동안 아직 혈색이 좋고 흰 머리칼도 많지 않아 나이보다는 썩 젊어보이는 대형보링공아바이였다. 부리부리한 눈과 왕붓초리같은 눈썹이 위엄 있어보였으나 성미는 서글서글했다. 이 땅에서 천리마대고조가 일어날 때부터 보링공으로 일해오면서 아래사람에게서는 물론 나이는 사람에게서도 존경받는 고지식한 아바이였다.

유명재는 컴퓨터를 멈추고 의자를 밀어놓으며 앉으라고 권했다. 그는 아바이가 선회틀가공이 걱정되어 찾아왔을것이라고 생각되어 저으기 고마웠다. 역시 천리마대고조시기 사람이 다르다고... 선회틀가공은 전적으로 보링에서 해야 하기때문에 보링공인 그가 찾아올만 했다.

하지만 최만기는 뜻밖에도 주머니에서 자기의 년로보장수속문건을 꺼내서 유명재앞으로 내밀었다. 수표를 해달라는것이였다. 문득 유명재의 뇌리에는 아침에 아바이에게서 견습을 받은 리정애라는 보링공처녀가 찾아와서 제발 아바이를 집에 들여보내지 말자고 애원하다싶이 했던 생각이 떠올랐다. 리정애는 아바이가 집에 들어가면 자기가 단독으로 선회틀을 가공해야 하는것이 여간 걱정스럽지 않았던 모양이였다. 그때 유명재는 걱정말라고 그를 안심시켰었는데 뜻밖에 제가 직접 문건을 들고온것이다. 중대한 과업이 떨어졌다는 것을 알면 집에 들어갔다가도 뛰쳐나올 아바이가 어쩌면 이럴수 있단 말인가. 물론 이 문제는 이미 전부터 제기되어오는 문제였다.

그는 문건을 받아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조

국앞에, 당앞에 성실한 그의 한생이 함축되어있었다. 1960년대초에 보링공으로 일을 시작하여 몇해후에는 천리마작업반 반장으로 일하다가 그후에는 부직장장사업도 했고 나이가 들어서 다시 보링공으로 일하는 성실한 아바이였다. 지난 《고난의 행군》 시기에 대학을 졸업하고 온 자기에게 보링견습을 시킨 사람도 바로 아바이였다. 유명재는 생산공정원을 할 때 그와 마찰을 일으킨적이 있었다. 그것은 소재직장에서 보내주어야 할 가공품소재가 미처 들어오지 않아 말썽이 생겼을 때의 일이었다. 그는 소재를 빨리 보내달라고 그곳 공정원에게 전화독촉을 하다가 서로 언성이 높아졌는데 최만기가 불쑥 공정실에 들어서며 소재를 가져왔다는것이였다. 전화독촉을 한 덕이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아바이가 직접 가서 가져왔다는것이 아닌가. 유명재는 입이 쓰거운듯 입맛을 다셨다. 일이 땡랑하게 되었던것이다. 지금도 그는 그날 최만기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고있었다.

《아바이한테 또 한풀 먹었군요.》

고맙게 여길대신 자기 립장을 난처하게 만들었다고 그는 고깝게 생각했었다.

언제인가는 아바이가 직장장이 컴퓨터만 들여다보지 말고 사람들의 마음도 좀 들여다보라고 톡담삼아 말한적이 있었다. 그때 유명재도 톡담처럼 아바이는 무슨 일이나 제손으로 해야 마음을 놓는데 컴퓨터하고는 그럴 생각이 없는가고 물어보았다. 거기에는 모름지기 컴퓨터는 제손으로 하고싶어도 어쩔수 없을것이라는 그의 속대사가 깔려있었다. ...

최만기의 년로보장수속문건을 앞에 놓고 이런 생각을 더듬던 유명재는 생각깊은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직장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천리마대고조시기 사람이였다. 유명재는 그를 집에 들여보낼 생각이 꼬물만큼도 없었다. 그것은 그가 보람차고 의의있는 일을 해제끼 공지를 안고 인생을 총화하도록 하고싶기때문이였고 다른 하나는 선회틀가공은 고급기능공인 그가 해야 마음을 놓을수 있기때문이였다. 그가 말아서 키운 리정애라는 처녀는 역빠르고 눈썰미가 있어서 벌써 기대를 능숙하게 다루고있지만 역시 햇병아리였다.

《아바이, 새 전기로를 일떠세운 다음에 집에 들어가는것이 좋을텐데요.》

인생의 마무리를 의의있게 하는데서도 그렇고 정해진 기일에 선회틀을 제작하는데서도 그래야 한다고 유명재는 확신하고있었다.

《선회틀을 정애한테 맡기고 들어가다니... 절대 안됩니다. 두어달만 참으십시오.》

《정엔 해낼거네. 선회틀이 뭐 그리 대단하게?》

최만기는 술진 눈썹을 치켜올렸다.

《좀 보겠습니까.》

유명재는 컴퓨터마우스를 움직여 아까 꺼냈던 화면들을 다시 펼쳐놓았다. 눈여겨 살피던 최만기는 컴퓨터앞으로 바투 다가들었다.

《거 요란하구만. 정애가 근심할만 한걸.》

그 말에 유명재는 알릴듯말듯 미소를 지었다. 그사이 꼬리를 물고 흘러가던 화면에는 아까의 그 물음표가 런던아 세개 나타났다.

《저 의문부호는 뭐가?》

영문을 알수 없는듯 최만기가 성급하게 물었다.

《솔직하게 말하면 내 마음입니다.》

꽤 해낼수 있을가 하는 유명재의 근심스러운 심정이 그대로 비껴있는 물음표였다.

최만기는 물음표가 마음에 들지 않은듯 고개를 기웃거렸다. 그는 컴퓨터앞으로 더 바짝 다가들어 투박한 손을 건반위에 올려놓더니 세개의 물음표를 뺄 지워버린 다음 제힘을 믿고 하면 된다는 글을 새겨넣고 감란부호를 세개 찍어놓았다.

유명재는 깜짝 놀라 히죽이 미소가 떠도는 그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컴퓨터를 신기하게 들여다보던 아바이가 그것을 다루는것도 놀라왔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것은 제힘을 믿으면 된다는 그 배짱이었다. 제힘을 믿고 하면 된다?! 물론 옳은 말이다. 하지만 실천이야 다르지 않는가. 글썽 가공 같은것은 할수 있다쳐도 세손에 없는 운반수단은 어떻게 해결한단 말인가. 유명재는 아바이가 실정을 잘 모르고 너무 어별이 크게만 생각한다고 여겼다.

《제힘을 믿으면 방도는 생각나기마련이니까. ...》

아바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직장장의 마음속을 꿰뚫어본듯 최만기는 그러고 나서 요새 째째이 컴퓨터를 배우고있노라고 덧붙였다.

유명재는 언제인가 자기가 아바이에게 컴퓨터를 두고 했던 말이 떠올라 아무말도 못했다.

《정애는 얼마든지 해낼수 있네.》

최만기는 주머니에서 원주필을 꺼내서 직장장이 제앞으로 밀어놓은 문건위에 올려놓더니 그것을 다시 그앞으로 밀어놓았다. 여러 생각 말고 수표를 해달라는것이였다.

《진짜 들어가겠습니까?!》

유명재는 큰일을 두고 집에 들어가려는 그가 야속스럽기까지 했다. 털어놓고 말해서 그는 산같은 배포와 남다른 일욕심, 끝장을 보고야마는 검질긴 승벽으로 매사에 의지가 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기어코 수표를 해달라고 하니 여간만 섭섭하지 않았다. 하기야 것처럼 성실하게 일했으면 편히 쉴 때도 되었고 또 그럴 권리도 자격도 당당했다. 그렇지만 유명재는 선회들이 완성되기 전에는 절대로 그를 집에 들어보낼수 없다는 생각을 눌러버릴 수 없었다.

《집에 들어가면 평양 아들네 집에 가있을 작정입니까?》

알고싶어서라기보다 수표를 하지 않을 구실을 찾으려는 심사로 해보는 말이였다.

《거긴 뭇하러 가겠나. 난 여길 뜨면 못살아.》

그의 얼굴에서는 미안해하거나 섭섭해하는 표정이 아니라 장난군녀석들의 얼굴에서나 볼수 있는 지긋은 미소가 떠돌고있었다.

《하여간 이걸 두고 가십시오.》

유명재는 문건을 책상뼒에 놓으며 의아쩍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2

《이녀석, 정신없이 뭘 바라보는거야?》

머리에 썼던 용접면을 제끼고 제관장올타리너머로 눈을 팔고있는 서춘오의 곁으로 다가간 최만기는 그의 어깨죽지를 톡 쳤다.

서춘오는 흠칫 놀라 얼굴이 지지벌개서 어쭙게 인사를 했다. 아바이는 슬쩍 그의 곁에 가 서며 멀어져가는 처녀를 바라보았다.

《저기 가는게 우리 정애가 아니냐?!》

깜자주빛숨옷을 입고 눈처럼 하얀 목도리를 휘둘러감은것을 보니 리정애가 틀림없었다.

《거 참, 날래기두 하다.》

공무직장현장에 있는것을 보고 왔는데 어느새 자기를 앞질러 와서 서춘오를 만나고 가는것이였다.

서춘오는 가타부타 아무말없이 용접면을 내리우고 서둘러 용접을 시작했다. 리정애를 친딸처럼 돌보며 착실하게 견습시켰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그는 아바이를 어려워했다.

《벌써 퍼그나 내밀었구만.》

최만기는 선회들의 용접부위를 쏘아보며 흡족해하였다. 이런 속도로 용접하면 1차용접이 이삼일 안팎에 끝날수 있을것 같았다.

《사흘후에는 기어코 끝내겠습니다.》

서춘오는 자신만만한 태도로 다짐했다.

《지내 무리하진 말라구. 그런데 이녀석아.》

이러며 최만기가 그의 엉덩판을 철썩 갈기자 그는 눈이 켜하여 용접면을 잡아제겼다.

《정애가 사준 털신은 왜 안 신었어? 발이 시리지 않아.》

최만기는 두드러져 나울사한 눈을 부릅떴다.

《아바이가 그걸 어떻게?...》

남몰래 무슨 장난을 하다가 들킨 아이처럼 그는 어쭙게 웃었다.

《난 너희들이 만나서 하는 말까지 알고있어.》

《그게 정말입니까?》

《정말 아니구.》

《야, 그거 정말, 창피한것두 모르구. ...》
점직하여 서춘오는 얼굴을 붉히며 눈을 내리깔았다.

《일을 잘하자는 약속이 왜 창피하단 말이냐.》
그제야 서춘오는 잘못을 용서받은 장난꾸러기처럼 빙그레 웃었다. 사실 그들은 만날적마다 선회들의 용접과 가공을 잘할뿐아니라 앞당기자고 약속을 하곤 했었다. 방금도 그들은 그런 말만 하다가 헤어졌다. 그것이 그들의 정이었고 그들의 불같은 사랑이었다.

《아바이가 집에 들어간다는것이 사실입니까?》
그렇게 되면 리정애가 단독으로 이 우람찬 선회들을 가공해야 하는것이 저로서도 걱정이 되는지 서춘오는 근심스럽게 아바이를 쳐다보았다.

《걱정 말라구, 정애 해낼테니까.》
이렇게 대꾸하며 사방을 휘둘러보던 최만기는 눈을 홑뜨고 그에게 관공목기작업대로 쓰던 대형 정판이 왜 보이지 않는가고 물었다.

《전기료가 먹어치웠습니다.》
《뭘라구? 언제?》

최만기는 와플 놀라 눈을 치떴다.
부기사장을 대리하는 공무직장장 유명재의 지시로 그 자리에 현대적인 관공목기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먹성이 커지는 전기료에 저리 그것을 토막내어 먹었다는것이였다.

《아뿔싸?!》
어차피 설비갱신은 하기마련이지만 정판이 없어진것은 여간만 아쉬하지 않았다. 사실 최만기는 선회들을 싣고 왔다갔다 할것없이 보링을 제창 제판장에 옮겨다놓고 가공도 제판장에서 하면 어떨가 하는 생각을 하고있었던것이다. 대소한추위때여서 기초콩크리트를 칠수 없기때문에 그 정판을 기초대용으로 쓸수 있을것 같아 걸음을 한 그였다. 그런데 그 기대가 허물어졌으니 어차피 추레라에 의거하는 수밖에 별도리가 없지 않은가. ...

최만기는 맥빠진 걸음으로 제판장을 나섰다.
《어디 갔다오십니까?》
추레라에 의거하는것이 아무래도 미덥지 않아이 생각 저 생각을 하며 강철직장앞을 지나가는데 뒤에서 유명재의 목소리가 따라왔다.

최만기는 주춤 섰다가 자전거에서 내린 그와 나란히 공무직장으로 걸었다.
유명재는 추레라때문에 출장을 갔다더니 지금 돌아오는 모양이였다. 얼굴이 꺼칠해지고 잠을 설쳤는지 언제 보아도 정기가 돌던 눈이 벌겍게 충혈진것이 여간 피로해보이지 않았다.

《고생했겠구만. 추운 날씨에 ...》
《하지만 추레라를 쓰기로 약속해놓았으니 숨이 나갑니다.》

남에게 의존해버릇하면 체힘으로 할것도 못한

다는 기사장의 충고를 받고보니 속이 요글요글해서 성나면 보리방아 더 잘 찼는다는 격으로 허를 깨물고 나선 유명재였다. 추레라에 선회들이 걸려있다고 생각하니 힘든줄도 모르겠고 추운것도 느끼지 못했다. 여기저기 뛰어다니던 끝에 서해갑문건너편에 있는 어느 한 기업소에 축이 부러져 세워둔 추레라를 축을 가공해주고 열흘동안 쓴다는 약속을 받아낸 그는 지금 기분이 이만저만 아니였다.

이 추운 엄동설한에 자전거를 타고 그 모든 곳들을 돌아다녔다는 말을 들으며 최만기는 그 젊은 혈기와 패기가 여간만 부럽지 않았다. 말은 일은 열밤을 새워서라도 해내고야마는 그 성미는 꼭 자기 아버지를 닮은것 같았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짙은 서방갈던 그가 이즈음에 와서는 여간만 다기차고 날과람있어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난 미덥지 않구만. 남의 차를 얻어다 쓴다는것이 어쩐지 ...》

최만기는 백여리밖에 있는 축이 부러진 추레라에 의존하는것이 아무래도 썩 내키지 않는 기색이였다.

《다른 뽕족한 수가 없으니 어찌겠습니까.》
유명재는 추레라를 쓰도록 교섭한 기쁨이 아직도 가셔지지 않아 아바이의 립장이나 태도 같은것에는 류의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한동안이 지나서 직장장실에 들어섰다.
유명재는 공정원을 불러 떠온 추레라축도면을 넘겨주며 오늘중으로 가공에 물리라는 긴급지령을 떨어갔다. 그런 다음에야 그는 책상앞에 앉아서 두손바닥으로 꺼칠해진 얼굴을 몇번이나 문질렀다. 뻘뻘한 다리를 굽혔다 폈다하며 주물기도 했다. 잠시 그러고나서 책상빼람에서 사업일지를 꺼내던 그는 무엇인가 메달 같은것을 손에 들더니 그것을 최만기앞으로 내밀었다.

《? ...》
《아바이의 천리마휘장입니다.》
유명재는 며칠전에 아버지가 쓰던 장을 정리하다가 그 천리마휘장이 눈에 띄우길래 살펴보니 뒤면에 아바이의 이름이 새겨져있어서 가지고나왔다고 말했다.

《내 이름? ...》
어리둥절한 최만기는 휘장뒤면을 들여다보았다. 정말 칼끝 같은것으로 새긴 자기 이름이 아직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한동안이 지나도록 휘장을 들여다보던 그는 천리마작업반운동이 한창 벌어지던 천리마시대에 있었던 일이 떠오르는지 빙긋이 웃었다.

《아바이거가 맞지요?》
《아닐세. 이건 직장장의 아버지것일세.》
《그럼 이름은? ...》
《그렇만 한 일이 있었지, 허허허.》
최만기는 허구프게 웃었다. 그의 생각은 총각시

절로 거슬러올랐다. 피가 넘쳐나던 총각시절에 있는 일이었다.

...

신록이 짙어가던 초여름 어느날 최만기는 한사람의 소개로 부근마을에 맞선을 보러 가게 되었다. 그무렵 유명재의 아버지인 유정환과 한호실에서 합숙생활을 하고있었는데 마침 쉬는 날이어서 그도 같이 가게 되었다.

아침에 소개자가 와서 《인물심사》를 하였다. 그는 유정환의 옷에 달려있는 천리마휘장을 떼서 최만기의 양복에 달라고 《지시》했다. 선을 보는 데서는 그쯤한것은 허용된다는것이였다. 그때 유정환은 천리마작업반 옹해공이였지만 최만기네는 천리마작업반칭호가 추천은 되었지만 아직 수여식을 하지는 못했던것이다.

《남의 휘장을 어떻게?...》

최만기는 속이 켜기는지 낮이 벌개서 사양했다. 그래도 소개자는 막무가내였다. 천리마휘장을 척 달아야 인품이 올라가서 처녀와 그 부모들의 환심을 살수 있다고 한사코 우겼다.

그때로 말하면 천리마운동이 거세차게 벌어지면서 경제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변혁이 일어나고있던 때였다. 천리마기수들에게 우선권이 부여되어 천리마휘장을 단 사람들에게는 식당이나 리발소에서 우선봉사해주며 영웅처럼 떠받들던 시기였다. 그러니 소개자의 억지도 결코 무리가 아니였다. 게다가 유정환도 맞장구를 치면서 자기 양복에서 휘장을 떼내어 최만기의 양복에 달아주었다.

최만기는 거울앞에 서서 휘장을 단 자기 모습을 비추어보았다. 제가 보기에도 멋이 있었다. 한결 의젓해보이고 또 위신도 있어보였다.

《그런데 이거 들장이 나면...》

이런 망신은 더 있을상싶지 않았다. 그는 아무래도 어색하고 량심이 허락치 않아 휘장을 떼내었다.

《아따, 떨긴. ... 그럼 이름을 새기자구.》

의심하는 눈치가 보이면 뒤집어서 이름을 보이면 될것이 아닌가고 하면서 최만기의 손에서 휘장을 받아든 유정환은 그것을 책상에 놓고 칼끝으로 뒤면에 최만기의 이름을 새겼다. 그러고나서는 막무가내로 그의 양복에 달아주었다.

《에라 모르겠다. 달테면 달자.》

그런데 일은 매우 아짜아짜하게 번져졌다.

처녀앞에서도 장인될 사람앞에서도 최만기는 뽕박질하는 가슴에 자주 손을 가져가며 어색한 표정으로 휘장을 만져보곤 하였던것이다. 그것을 보자 처녀의 아버지는 이 총각이 천리마휘장을 자랑하고싶어 그런다고 생각했는지 그에게 천리마작업반 칭호를 언제 받았느냐고 물었다.

《저, 이 휘장은...》

얼굴이 대번에 지지벌개진 최만기는 구원을 청하기라도 하는듯 유정환을 돌아보았다. 여차하면 들장이 날것 같아 유정환이 말꼬리를 가로채며 두달전이라고 끼어들었다.

《멋있구만. 어디 좀 만져보기라도 합세.》

이렇게 말하며 장인될 사람이 손을 내밀었다.

최만기는 몽둥이가 다가오기라도 하는듯 아찔했다. 그는 잉걸볼을 뒤집어쓴듯 얼굴이 화끈거리려 눈을 딱 감았다. 처녀의 아버지가 휘장을 만져볼때 그는 오한이 나는듯 가슴을 떨었다. 난생처음 당해보는 《도덕적고문》이였다. 등골에 땀이 줄뻑하니 내배였다. 손바닥도 축축하니 젖었다. 난생처음 량심을 숙인것으로 되지 않았는가. 제것이 아닌 남의것, 제 뜻이 아닌 남의 뜻대로 주대없이 행동한탓에 당하는 응당한 벌이였다. 그는 남의것을 가지고 금새를 높이려던 자신을 두고두고 후회하였다.

비록 실수는 하였지만 그로부터 찾은 교훈은 매우 컸다. ...

《그때부터 난 남의것을 넘겨다본다든가 남에게 의존하는 버릇이 톱 떨어졌지.》

최만기는 천리마휘장을 생각깊은 눈길로 내려다보았다. 휘장은 세월의 흐름속에 누르끼레하니 퇴색되었지만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것도 서슴지 않는 그날의 그 정신만은 절대로 퇴색되지 않았다고 그는 믿고있었다. 그렇다. 더없이 소중한것은 색깔이나 년대가 아니라 그 정신이다. 그런데 유명재를 포함하여 일부 젊은이들은 그때의 그 정신을 안다고 말은 쉽게 하고있으면서도 실지 생활에는 구현하지 못하고있는것이 아닌가. 결국 선회틀문제도 그 정신문제에 귀착된다고 최만기는 생각했다.

유명재도 최만기의 생각깊은 표정을 읽으며 무엇이 감촉되는지 천리마휘장을 자기 가슴에 대보며 은근히 말을 건넸다.

《아바이생각엔 내가 그때 사람이라면 이걸 달 자격이 있을것 같습니까?》

《글쎄...》

대답을 피하는 최만기를 바라보며 유명재는 아무말없이 천리마휘장을 점도록 내려다보았다.

3

긴급지령으로 깎던 추레라축소재가 오작이라는것을 알려주려고 최만기가 직장장실에 들어서니 유명재는 컴퓨터를 마주하고 앉아서 선회틀의 총조립도를 검토하고있었다. 그는 한동안이 지나서야 직장장에게 그 이야기를 하였다. 그 말이 떨

어지자 유명재의 손이 얼어붙기라도 한듯 딱 멎었다. 얼굴이 대번에 해쓱하게 질렸다. 그는 다급히 솜옷의 팔소매를 꺾며 현장으로 나갔다.

뒤쫓아나가려던 최만기는 무춤 걸음을 멈췄다. 따라나갔잖아 뽕족한 수도 없거니와 더는 덩달아 춤춰선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때문이었다. 그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조용하니 마주앉아서 진지하게 의논해보고싶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리정애가 나부시고 개부터 숙이며 문안에 들어섰다.

《아니, 벌써 출근했니?!》

무슨 일이 생겼는가싶어 그는 눈을 치떴다.

리정애는 창가에 서있는 사람이 최만기라는것을 알아보고 섭섭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외로 꺾었다. 언제보나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곤 하던 생기와 발랄은 어디로 갔아들었는지 눈을 내리칸 채 새침하니 서있기만 했다.

《수표를 받아냈다는게 사실이나요?》

잠시후에야 리정애는 접었던 고개를 들고 최만기를 올려다보았다.

《음, 그래서 뿔났구나.》

최만기는 시물시물 웃었다. 사실은 누군가 수표를 받아냈는가고 묻기에 어정쩡하니 고개를 끄덕했는데 그것이 어느새 리정애의 귀에까지 들어간 모양이었다.

리정애는 어렵고 중대한 일감을 자기에게 떠맡기고 집에 들어가려는 아버이가 여간 야속하게 생각되지 않는 모양이었다.

《제힘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더라?》

최만기가 이렇게 묻자 그를 할짓 쳐다보면서 리정애는 《제힘으로 할수 있는것도 못하지요.》 하고 입이 뽕족해서 대꾸했다.

《잘 알면서두...》

최만기는 컴퓨터앞으로 가서 스위치를 넣고 건반을 두드려 엇그제 자기가 써넣은 글을 끄집어냈다.

제힘을 믿고 하면 된다! 는 글이 나타난 화면을 결눈질해보던 리정애는 언제 새침했던가싶게 반들거리는 눈으로 아버이를 치며보았다.

《정말 내가 가공해낼수 있을까요?》

최만기는 힘을 주듯 정애를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여보였다.

《그래서 나두 뭘 좀 생각해보았는데...》

엄마를 잃은 소녀의 눈동자처럼 겁에 질렸던 리정애의 눈에 차츰 생기가 돌았다.

《그래?! 어서 들어보자.》

부쩍 호기심이 동한 최만기는 뒤말을 재촉했다.

《너무 엉뚱해서...》

러무니없다고 웃을것 같은지 리정애는 몹시 꺼려했다.

《쇠물내를 맡으며 자란 강선치녀답지 않다.》

나무람같은 아버이의 말에 정애는 입술을 잘근 잘근 깨물다가 조심조심 털어놓았다.

《선회틀을 몇번씩 여기로 날라올것 없이...》

새물새물 웃으며 말꼭지를 뽕 리정애는 불현듯 입을 다물고 아버이의 눈치를 보았다. 맥도 모르고 침통을 뽕아들었다고 할것 같은 모양이었다.

《그래서?...》

다음말을 재촉하자 리정애는 환자가 찾아오지 못하면 의사가 왕진을 가듯 하면 안되겠는가고 물었다.

《의사가 왕진을 가듯 보령을 선회틀이 있는 제판장으로 가져다놓잔 말이지?!》

《어처구니 없지요?》

리정애는 까마반지르한 눈을 깜빡거리며 간절한 기대를 안고 쳐다보았다.

《야! 넌 정말...》

최만기의 온몸에 파도치듯 기쁨이 밀려왔다. 기대를 맡은지 반년밖에 안되는 그가 이렇듯 엉뚱한 생각을 떠올렸다는것이, 더우기 자기와 똑같은 생각을 했다는것이 무척 기뻐다.

《그건 참 멋진 생각이다!》

최만기는 흐뭇하기 그지없었다. 신대원이 전쟁판에 나서면 몇해가 아니라 인차 구대원이 된다더니 정애가 바로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단 몇달 사이에 《구대원》으로 자라난것이다.

리정애는 아버이의 칭찬을 들으며 가슴이 열리는지 호- 하고 숨을 내그었다. 가슴속에 서려돌던 근심이 쑥 빠진듯 솟아올랐던 어깨가 꺼져내렸다. 그의 반짝거리는 눈과 발깃한 입술언저리로 는 춤추는듯 한 미소가 오르내렸다.

《이 엉뚱설한에 보령을 설치할 기초공크리트를 칠수만 있으면 그저 그만일텐데...》

그것때문에 직장장에게 자기 생각을 비치지 못했던 최만기는 잔뜩 호기심이 나서 물었다.

《그것두 좀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래?!...》

리정애는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차근차근 조리있게 이야기했다. 자기 생각을 건설직장 책임 기사로 일하는 사촌오빠에게 말해보았더니 기초공크리트를 건물안에서 쳐가지고 부재를 양생하듯 하면 될수 있을것 같다고 했다는것이였다. 충분히 양생하여 제판장에 가져다놓으면 한두달 쓰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아버이,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될수 있을것 같다. ...》

리정애말을 듣고 눈을 껌벅거리며 곰곰히 생각을 해보던 최만기는 이렇게 말하며 그의 어깨를 다독여주었다. 기술자들과 토론해보아야 하겠지만 우선 그에게 신심을 주어야 했다.

최만기는 기쁘기 그지없었다.

스승을 따라잡아야 진짜 제자라더니 리정애야말로 자기를 따라잡기만 한것이 아니라 앞섰다고 생각되었다.

《술직히 말해서 난 아바일...》

《꽤섬하게 생각했겠지.》

리정애는 썰기죽거리며 웃었다.

《그 수표가 아니었다면 난 아바이만 믿구...》

《내 그럴줄 알았다.》

아바이는 시물시물 웃었다.

이 며칠어간에 리정애는 마음의 키가 몰라보게 자랐다. 그 마음이면 무슨 일인들 못하랴. 힘이란 마음속에 있지 결코 팔다리에 있는것이 아니다.

최만기는 가슴이 후련했다. 천리마대고조시기에 피를 끓이던 천리마정신이 리정애와 같은 새 세대의 가슴속에 소용돌이치고있다는 생각으로 무척 기뻐다.

그때 전화종소리가 조용하게 울렸다.

《예, 예, 공무직장입니다. 직장장동문 현장에 있는데 잠간 기다려주십시오, 예.》

최만기는 송수화기를 책상우에 놓고 리정애에게 직장장을 찾아오라고 일렀다.

축을 가공해주고 추레라를 쓰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는 기관에서 온 전화였다.

잠시후 직장장을 찾아갔던 리정애가 들어서며 하는 말이 축소재때문에 직장장이 소재직장에 갔다는것이였다.

최만기는 놓았던 송수화기를 다시 들었다.

《여보시오, 직장장이 없군요. 예, 말씀하십시오. ...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리정애가 의문스러워하자 최만기는 전후사연을 이야기해주었다. 그 기관에서는 며칠전에 한 광산과도 직장장과 한 약속과 같은 약속을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여러날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그것을 무시하고 직장장과 약속을 하였는데 어제 밤에 그 광산에서 축을 가공해가지고 왔기때문에 여기와 한 약속은 부득불 지킬수 없게 되었다고 사죄하는 전화였다.

《차라리 잘됐군요 뭐. 직장장동지가 들어오면 그거(보링을 옮기는것)나 잘 의논해보시라요.》

울상을 하고 의기소침해서 들어왔던 리정애는 날아오를듯이 쿵쿵 뛰며 밖으로 나갔다.

잠시후 최만기도 현장으로 나가려고 출입문으로 나가서는데 유명재가 들어섰다.

《축소재를 가져다 또 물렸습니다.》

유명재는 몸도 정신도 몹시 피로해보였다. 가뜰이나 가름하던 얼굴이 더 갱뿔해진것 같았다.

《깎아야 필요없게 되었네.》

최만기는 아까 온 전화내용을 말해주었다.

유명재는 단대목에 벼락같은 걱정이 떨어지는 바람에 앉지도 못하고 선채 전화기를 끌어당겨 번

호판을 두드렸다. 한동안이 지나도록 두드렸으나 전화는 걸리지 않았다.

그는 속눈섭을 곤두세우고 안절부절못했다. 억이 막히는 모양이였다.

《아바이, 이런 편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슨 수가 좀 없습니까?!》

물음 절반, 하소연 절반으로 하는 말이였다.

《한가지 수가 있긴 있는데... 이걸 답이 있어야 하는 일일세.》

신경질적으로 전화기를 끌어당기려던 유명재는 아바이의 말이 떨어지자 섭섭한 기색으로 자기에게 답이 없어보이는가고 물었다.

《그럼 좋네.》

최만기는 정색하고 좀전에 리정애와 주고받은 말을 들려주었다.

《보링을 제판장에 옮겨요?》

유명재는 기절초풍할듯 굳어졌다. 잠시 입을 벌린채 아연했던 그는 제정신을 가지고 한 말인지 알아내기라도 하려는듯 최만기의 얼굴에 눈길을 박았다.

《력사에 없는걸 한번 해보자는겁니까.》

아닌게아니라 공작기계가 소재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적은 여태 한번도 없었다.

《력사에 있든없든 될수만 있다면 하자구. 초정밀가공도 아닌데 될수 있네.》

《답이 아무리 커두 안됩니다.》

유명재는 그렇게 할수 없는 리유를 과학기술적으로 론증하였다. 리정애의 사촌오빠가 더운 방에서 치면 된다는 기초공크리트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것은 참새잡이에 도끼를 들고나서는것과 같은 어이없는 노릇이라는것이였다. 우선 제철생산품도 아닌 선회틀이라는 하나의 제판물을 가공하기 위하여 기대를 떠지고 다니는것도 언어도단이지만 그것을 설치하자면 기초공크리트중량이 10톤 실히 되어야 하는데 그러자면 적지 않은 세멘트와 철근이 들어가야 한다. 거기에 드는 로력과 증기양 생열까지 계산하면 아이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다.

선회틀을 완성하고나면 기초공크리트는 더는 아무런 쓸모도 없게 된다. 실리에 맞지 않는다 맞지 않는다 해도 이처럼 실리에 맞지 않는 일이 또 어디에 있단 말인가.

최만기는 우둔한노릇이라는 직장장의 말에 그만 말문이 막혔다. 그러니 결국 추레라를 끌어오는수밖에 별다른 도리가 없단 말인가. 그럴수록 기초를 충분히 대신할수 있는 대형정판생각이 자꾸 머리에 떠올랐다. 그것만 있었다면 그야말로 땅짚고 헤엄치기였을것이다. 그렇다고 이제 그런 정판을 부을수도 없고...

《아바이, 내 죽으나사나 추레라를 끌어오겠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 못하면 우에 제

기해서라도…》

피곤이 겹쌓인듯 유명재는 주먹으로 이마를 고이고 눈을 감았다.

《나두 힘써보겠네만 정해진 날자에 선회틀을 완성하려면 결정적으로 보링을…》

《그만하십시오, 아바이. 그건 아무리 강조해도 고양이목에 방울달기가 아닙니까.》

하지만 최만기는 그 생각에서 벗어날수가 없었다.

그때 기사장에게서 선회틀제작을 이틀 더 앞당겼으면 좋겠다는 전화가 걸려왔다.

지금 형편에서는 앞당기기는커녕 제 날자에 완성하는것도 불가능해보였지만 유명재는 그렇게 해보겠다고 가카스로 대답했다.

4

한낮부터 성난 곰같은 구름장들이 뒤흔락거리며 밀려들더니 땅거미가 내려앉을무렵에는 함박눈이 되어 쏟아져내렸다.

유명재는 아까부터 턱에 손바닥을 고이고 앉아서 창밖을 내다보며 같은 생각에 잠겼다. 어쩌면 종단 말인가. 아무리 생각을 굴려보아도 뽕족한수가 떠오르지 않았고 승산도 보이지 않았다. 보링을 제판장으로 옮기자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기절초풍할듯 놀랐었지만 추레라가 튀고보니 그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노상 어처구니 없다고는 할수 없었다. 추레라가 아니면 보링, 이 둘중에 하나라도 되면 되겠는데 둘 다 묘연하였다.

어떻게 할것인가.

그때 설비개조안을 토론하러 들어왔던 공무과 설계원에게서 귀가 번쩍 열리는 말을 들었다.

평양에 있는 최만기의 아들이 어느 성에서 운수국장인가 치장인가 한다는것이였다. 죽을수가 나면 살수가 난다더니… 그는 패재를 올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닌보살하고있는 최만기가 패침하기 짝이 없었다. 자기는 추레라때문에 속이 까매서 돌아가는데 어쩌면 그런 내색조차 하지 않았단 말인가.

《아바이, 이건 너무하군요.》

즉시 최만기를 불러들인 유명재는 그가 들어서자마자 불부은 소리를 터쳤다.

《?…》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더니 최만기는 어리벙벙하여 눈이 켜해졌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데 있습니까.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들한테 전화를 걸어 래일모레까지 추레라를 끌고 내려오라고 하십시오. 운수국장이면 한대가 아니라 석대두 끌고 올수 있을겁니다.》

유명재는 전화기를 들어서 그앞에 놓아주었다.

그제야 최만기는 직장장이 역증을 내는 리유를

알아차렸다. 그의 심정이 십분 리해되였다.

《난 남한테 손내밀 생각이 없네.》

《남이라니요. 자식인데… 오히려 아버지를 도와줄수 있게 되었다구 기뻐할겁니다.》

뒤를 바짝 조이느라 한 말이였지만 유명재는 노죽을 부리는것 같아 저로서도 어색하였다.

《어쨌든 아들의 힘두 제힘은 아니니까. …》

이러며 최만기는 도무지 응할 잡도리가 아니였다.

《좋습니다. 내가 손을 내밀겠으니 전화번호나 대주십시오.》

유명재는 전화기를 자기앞으로 끌어당겼다.

아바이에게서 기어이 전화번호를 알아낸 그는 제창 국장실을 찾았다.

《말 한마디면 되겠는데 공연히 보링을 옮긴다 어쩐다 할거 있습니까.》

유명재는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았다. 상대방이 송수화기를 드는 소리가 들리자 유명재는 송수화기를 최만기앞으로 쑥 내밀었다. 하지만 아바이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아바이, 내가 아바이한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는 부탁이니 제발…》

다른 손바닥으로 송화구를 덮은 유명재는 간절한 눈길로 아바이를 쳐다보았다.

최만기도 직장장을 마주보았다. 하지만 그의 눈길은 직장장과는 달리 안타까움에 젖어있었다. 이윽고 그는 직장장의 손에서 송수화기를 받아들였다. 살얼음이 덮인것 같던 직장장의 얼굴이 확 피어나면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저도 모르게 후— 하고 큰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최만기는 송수화기를 받아들고 무슨 신기한 물건이기라도 한듯 그것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전화기우에 놓았다.

《아니, 아바이?…》

아연하여 아바이를 바라보는 유명재의 눈살이 꺾끗해지면서 모가 섰다.

《아바인 진짜 너무합니다. 집에 들어가게 되었으니까 새 전기로가 제 기일에 일떠서건말건 상관 없다는거지요.》

《직장장동무, 오해하지 말라구.》

이러면서 아바이는 남의 추레라를 빌려쓰겠다는 것은 언제인가 자기가 천리마휘장을 빌려달았던것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것이라고 하였다.

유명재는 그 말을 듣는동안은등 하고있다가 다시 송수화기를 움켜잡았다. 그와 때를 같이하여 마디굵은 최만기의 투박한 손이 그우에 덧놓이며 두사람의 눈길이 불꽃을 일으켰다.

유명재는 약이 올라 아바이의 손을 뿌리치고 쫓쫓이 일어섰다.

《앉으라구, 직장장.》

최만기는 나가려는 직장장의 팔을 잡고 의자에

않았다.

《남을 바라보아야 쓴 입을 다실것밖에 없어. 우리가 이러고있는건 직장장의 아버지가 천리마대고 조시기에 발휘한 그런 정신이 없기때문이라고 난 생각해.》

이렇게 말한 최만기는 말이 난김에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할테니 들어보라고 하면서 입을 열었다.

《그때가 아마 아버지네가 천리마작업반칭호를 수여받은 그해일거야. 아버지네 작업반에서 한 차지의 쇠물만 쏟아내면 그해 연간계획을 하는 날이었어. 그날은 아버지한테 뜻깊은 날이었지. 연간계획을 수행한 바로 그날 처녀와 맞선을 보기로 약속이 되어있었으니까. 연간계획두 끝내구 색시감두 보구.》

…그런데 그날 뜻하지 않았던 사고가 생길줄이야.

추가장입을 하고나서 잠시 땀을 들이는데 갑자기 전기로동체가 기울어지기 시작했던것이다. 후에 밝혀진데 의하면 나쁜놈들이 한창 끌어번지는 쇠물을 쏟아버리려고 몰래 제어를 돌려놓았다고 한다. 로가 기울어지는것을 본 유정환이 다짜고짜 제어가기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데 벌써 쇠물이 쏟아져내리기 시작했다. 위기일발의 순간이었다. 출강남비에는 미처 빠지지 못한 탱크수가 고여있었는데 거기에 쇠물이 쏟아지면 폭발이 일어난다. …

《그것을 잘 알고있는 아버지가 죽기내기로 달려갔지만 쏟아지기 시작하는 쇠물은 마침내 폭발을 일으켰네. 하지만 아버지는 돌아서지 않고 총알처럼 날아오는 쇠물을 맞받아 달려가서 끝내 제어를 반대로 돌려놓았네.》

그래서 쏟아지던 쇠물도 멈추었고 연간계획도 끝냈지만 날아오는 쇠물에 아버지는 세군데나 가슴에 화상을 입었다는것이였다.

《난 그런것도 모르고 퇴근하면서 둘러보니 그 지경이 아니겠나. 그래 진료소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보고 그길로 처녀의 집에 가서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글썽 처녀의 아버지가 약을 구해가지고 딸과 함께 그날밤에 병문안을 가지 않았겠나. 그 정신이 더할나위없이 마음에 든다면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렇게 맞선을 보고 가정을 이루었지. 사람들의 연분이란 참…》

최만기는 그것이 바로 강철로 우리 당을 받드는 강선로동계급의 정신이라고 하면서 제힘을 믿고 하면 된다는 배짱도 바로 여기서 나왔다고 강조했다.

아버지의 가슴에서 훈장만 한 크기의 화상자리를 보기도 했고 어머니에게서 듣기도 한 유명재였지만 아버지의 말을 듣느라니 별로 가슴이 뭉클해지는것 같았다. 그는 책상뺨람을 열고 며칠전에 넣어둔채 감감 잊고있던 아버지의 천리마휘장을 꺼내들었다. 깊은 생각에 잠긴 눈길로 그것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천리마시대를 력사적시기나 년

대로는 잘 알고있었지만 그때의 정신에 대해서는 수박겉핥기식으로나 알고있었다는것을 자인하지 않을수 없었다. 중요한것은 년대가 아니라 정신이 아닌가. 아버지의 그 불굴의 정신이 휘장에 깃들 어있다고 생각되면서 아버지앞에 죄스러운 느낌이 드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며칠전에 아바이에게 자기가 천리마휘장을 달 자격이 있는가 물었던 생각도 났다. 그는 오랜 세월이 흘러간 지금에 와서도 천리마휘장을 달 자격이 없는 자신을 보는것이 여간만 괴롭지 않았다.

《기적은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야 한다는 말도 있지 않나. 제힘을 믿고 하면 된다니까.》

최만기가 이렇게 말하며 현장으로 나간지도 오랫동안 유명재는 창가에 서서 바깥만 내다보았다.

×

그동안 공무관련부분 직장들을 차례차례 다니며 선회틀에 들어갈 부분품생산정형을 알아보고 더 바싹 다그치도록 대책을 세운 유명재는 점심때가 되어서야 자기 방에 들어섰다.

전화기를 놓고 아바이와 옥신각신했던탓인지 그것이 선참 눈에 들어왔다. 전화기를 물끄러미 바라보느라니 그것을 사이에 두고 아바이가 절절하게 한 말이 새삼스럽게 뇌리를 쳤다.

《총알처럼 날아오는 쇠물을 맞받아나간 그런 정신이 없기때문》이라는 말이였다.

아침부터 아바이의 이 말이 잠시도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책상앞으로 다가가던 그는 탁상일력장에 아침에 아바이에게서 알아가지고 적어놓은 그의 아들 전화번호가 눈에 띄우자 잠시 그것을 바라보았다. 어째서인지 입맛을 다시던 그는 탁상일력장을 뜯어내어 휴지통에 넣어버리고말았다. 그는 의자를 끄당겨놓았으나 앓을념을 못하고 크지 않은 방안을 오락가락하며 생각에 잠겼다. 아바이의 목소리가 떠오르는가 하면 리정애의 생기발랄한 모습이 떠오르고 그런가 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것 같은 기사장의 리지적인 눈길이 떠오르기도 하였다. 그런데 놀라운것은 지금까지 그토록 신경을 써오던 추레가가 아니라 보령이 더 자주 눈에 밟히는 것이였다. 결핍하면 보령이 떠오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것은 사실이였다. 이를테면 마음속의 《배비변경》이 시작된것이였다. 일단 선회틀의 명줄이 보령을 제관장으로 옮기는 데 달려있다고 마음을 정하고나니 별의별 그럴듯한 생각이 다 떠올랐다. 에스키모인들은 눈으로 불로크를 빚어서 집을 짓고 산다는데 겨울철이라 고 보령 한대쫄 설치하지 못하겠는가 하는 배심도 생겼다. 그에게는 그것이 바로 물러설수도 피할수

도 없는 배수진으로 여겨졌다. 그는 컴퓨터앞에 앉아서 추위와 열에 관련되는 자료들과 각종 기계기초의 형식과 대용구조물에 대한 자료 등 필요한 여러가지 자료들을 꺼내보기도 하고 강도를 계산해보기도 하였다.

그러던 유명재는 불현듯 저도 모르게 입을 딱 벌렸다. 번개의 섬광과도 같이 기묘한 생각이 피뚝 떠올랐던것이다. 저로서도 깜짝 놀랄 뜻밖의 생각이였다. 진리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단순하다고 하더니 자기 머리에 떠오른 생각이야말로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단순한 리치였다. 무더운 여름철이 아니라 혹한의 겨울철인것이 정말 다행이였다. 만세라도 부르고싶은 심정이였다. 그는 창문을 활짝 열고 시원한 겨울대기를 한껏 들이마셨다.

유명재는 이튿날 건설기술자들과 오랜 기능공들을 찾아다니며 토론도 해보았고 컴퓨터로 이모저모 따져보기도 하였다. 여러 사람들이 지지했지만 그중에는 머리를 흔드는 사람도 있었다. 컴퓨터는 적극적인 지지자였다.

여러모로 자기의 생각을 확인한 그는 타래자를 꺼내들고 부랴부랴 제판장으로 갔다.

제판장에서 제일선참 맞아준것은 용접공들이 승벽내기로 날리는 불꽃이였다. 그는 제판장을 돌아보며 타래자로 이곳저곳의 거리를 재어보기도 하고 문형기중기의 높이를 가늠해보기도 했다. 또한 서춘오가 용접하고있는 선회틀의 높이와 너비를 각이한 지점에서 측정해보았다. 그런 다음 제판장의 한복판에 길이가 약 7미터쯤 되고 너비가 4미터쯤 되는 직사각형을 그려놓았다. 마침내 유명재의 생각이 실현단계에 들어선것이였다. ...

그가 제판장을 나서서 강철직장앞을 지나가는데 최만기가 마주왔다. 그의 손에는 자그마한 구력이 들려있었다. 활개짓을 하며 씨엉씨엉 걸어오는 것을 보니 도무지 늙은 사람같지 않았다.

《어디 가는 길입니까?》

유명재는 그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직장장을 찾아가는 길일세.》

숨이 찬지 아바이는 비자루같은 허연 김을 내뿜었다.

《왜요? 또 무슨 좋은 궁냥이 떠올랐습니까?》

《글쎄 좋은건지 나쁜건지. ... 좀 들어보라구.》

이렇게 말한 최만기는 잠시 숨을 돌리고나서 자기의 생각을 털어놓았다.

《야! 아바인 정말!...》

《왜, 어처구니없는건가?》

최만기는 눈을 흡뜨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에게는 유명재의 탄성이 짜증처럼 들린 모양이다.

《어처구니없는것이 아니라 아바이의 생각이 어찌면 나의 생각과 신통히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 그럼 됐구만, 직장장.》

최만기는 길 한복판이라는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유명재의 팔을 붙잡고 빙글빙글 돌아갔다.

유명재는 아바이와 한마음이 되어 기뻐할수 있는것으로 하여 여간만 흡족하지 않았다. 필연과 같은 우연이란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같았다.

하지만 유명재는 마음을 놓지 못했다. 오히려 더 긴장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여차하면 선회틀제작 기일을 드리는 후파가 초래될수 있기때문이였다.

《어떻습니까, 될것 같습니까?》

함께 걱정해주는것만으로도 아바이의 말은 한결 의지가 되기때문에 묻는것이였다.

《어떻게 있나, 하면 되는거지.》

아바이의 배심은 예나지금이나 다름이 없었다.

《어쨌든 난 아바이만 믿습니다. 여차직하면 제끼 〈복선〉을 동원해야 합니다.》

《〈복선〉이라니?》

《거 있지 않습니까, 아들한테 전화해서...》

《아, 추페라... 〈복선〉을 친다는건 제힘을 믿지 않는건데... 믿으라구. 그래야 용기도 생기구 지혜도 생겨.》

최만기는 아직도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있는 직장장이 비위에 거슬렸다.

《그런데 손에 든건 뭘니까?》

《응, 이거? 제판장에서 흙을 파서 뜬 시편일세.》

최만기는 구력을 헤치더니 자그마한 나무함을 짜서 그안에 흙을 다져넣고 얼큰 흙시편을 보여주었다.

《야! 아바인 벌써...》

유명재는 입을 딱 벌렸다.

5

하늘에서도 눈보라, 땅위에서도 눈보라가 불맞은 범처럼 길길이 날뛰며 아우성쳤다. 포효하는 눈보라는 하늘중천에 아름답리눈기둥을 맡아세우기도 하고 성난 구렁이처럼 꿈틀거리며 용접공들과 선회틀을 칭칭 휘감고 모지름을 쓰기도 했다. 하늘과 땅의 모든것을 요정내기라도 할듯 태질하는 눈보라는 이쪽저쪽에 눈무지를 옮겨쌓아가는 허물고 허물었다가는 또 쌓으며 심술을 부렸다. 한낮에야 얼굴을 내민 해도 눈보라에 묻혀 별거우리하니 빛을 잃었다.

눈보라는 무엇이 그리도 성차지 않는지 맞다드는 모든것을 물어뜯으며 요동발판을 해댔다.

유명재는 제판장에서 울부짖는 눈보라를 더없이 고맙게 생각하며 아까부터 꽃이 만발한 공원을 거닐듯 기분 좋게 오락가락하며 기사장을 기다렸다.

《무슨 〈요술〉을 보여주겠소?》

어제 밤 전화를 걸었을 때 기사장은 대번에 이

렇게 넘겨졌었다. 《요술》이란 기발한 착상을 두고 그들사이에서만 통하는 말이였다.

《제힘을 믿고 하면 된다는 우리 식 〈요술〉입니다.》

《거 그럴듯하구만. 10시에 가겠소.》

그때까지는 10분이 남아있었다.

그사이 유명재는 공무원직장에서 보령해체작업을 지휘하고있는 최만기에게 전화를 걸어 진행정형을 알아보고 필요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였다.

기사장은 약속한 시간에 제판장에 나타났다. 그는 제판장에 들어서자바람으로 인사를 받는등마는 등하고 구석구석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눈길을 끄는것은 1차용접을 끝낸 선회틀밖에 없었다. 세찬 눈보라속에 모든것이 바뀌처럼 얼어붙은 제판장에 유명재가 준비했다는 《요술》은 있을상싶지 않았다. 아무말없이 기사장의 호기심을 부추긴 유명재는 사흘전에 자기가 재어보며 눈판우에 직사각형을 그려놓았던 곳으로 기사장을 안내했다. 거기 언땡에는 네개씩 두줄로 여덟개의 기초볼트가 박혀있는것이 보일뿐이였다.

《기사장동지, 이겁니다.》

유명재는 손에 들고있던 수평기로 네모방정하게 정리되어있는 언땡을 가리켜보였다.

《이거라니?...》

기사장은 어리둥절했다. 보이는것이란 고작 한뼘도 채 안되는 8개의 기초볼트밖에 없지 않는가.

유명재는 그저께 밤에 최만기와 노동자들과 함께 밤새도록 언땡에 반메터깊이로 주먹이 드나들 정도의 구멍을 뚫고 묻어놓은 기초볼트를 손짓하며 간단명료하게 설명했다. 기초볼트는 구멍에 모래와 콩자갈, 흙을 섞어 꼴뚫하니 다져넣고 물을 부어 얼쿠었는데 평하 20도를 오르내리는 추위와 눈보라속에서 열대로 얼어붙어있었다. 바람이나 물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상쾌한 존재이지만 겨울에는 매우 사납고 앙칼진 존재이다. 이 사납고 앙칼진 바람과 물을 가지고 유명재는 여태 한번도 본적이 없는 《요술》을 준비했던것이다. 기사장은 아연했다. 범상치 않는 새로운 그 무엇이 있을것이라고 짐작은 하고있었지만 이렇듯 과격적인 기초를 보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것이다.

언땡기초라?... 정말 상상을 뒤집어엮는 기초였다.

한동안이 지나서야 그는 마치도 세계적인 특허를 받은 현대적인 기계라도 들여다보듯 엄지손가락 두개를 합친 굵기의 기초볼트를 차레로 들여다보았다.

기사장은 유명재의 《요술》이 천만뜻밖이였다. 그는 저도 모르게 신발뒤축으로 기초볼트를 탁탁 차보았다. 끄떡도 하지 않았다.

《압착강도시험은 어땡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정말 요술과 같은 기적이구만.》

웬간해서는 흥분하지 않는 기사장이였지만 언땡에 박힌 기초볼트를 내려다보며 좀처럼 마음을 진정하지 못했다. 그는 기발한 착상도 착상이지만 그에 심장을 따라세운것이 몹시 기뻐다.

《한가지 마음에 걸리는것은 보령공처녀를 이한지에서 일을 시키는것입니다.》

역시 더할나위없이 찬찬한 유명재였다.

《비닐박막으로 가설막이라두 지어주지요, 난로두 서너개 피워놓고.》

하지만 수시로 문형기중기를 써야 하는 조건에서 가설막을 지어줄수는 없었다. 난로불은 물론 피워놓도록 준비시켜놓았다.

《그래서 내가 직접 가공하려고 합니다.》

《직장장이?!》

《저도 당당한 기능공입니다.》

《하지만 차레지지 않을거요.》

담당기대공이 양보하려고 하지 않을것이다.

기사장은 이어 용접을 끝내고 검사까지 마친 선회틀을 돌아보며 보령을 가져다놓고 가공하면 기일을 얼마나 당길수 있느냐고 물었다.

《열흘쯤은...》

《열흘?!... 정말 멋있소.》

기사장은 벌써 멋있다는 말을 몇번이나 곱씹었다. 요란한 기계를 발명해놓은것도 아니고 큼직한 기술혁신을 한것도, 부속품 하나 갈아맞춘것도 없다. 단지 언땡에 기초볼트를 박은것뿐인데 열매는 얼마나 큰것인가. 새우 한마리로 고래를 낚은것 같았다. 공무원직장으로, 제판장으로 6번씩이나 왔다갔다하지 않고 여기서 제창 마무리할수 있게 되었으니 앓은 장훈이란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인듯싶었다.

《이건 우리 강선로동계급의 〈특허〉 품이요.》

기사장이 이처럼 자신을 건잡지 못하고 떠보기는 처음이였다.

그는 솜옷단추들을 모조리 벗겼다. 귀뿌리를 베여갈듯 눈보라가 칼끝같았으나 가슴속에서는 후끈 후끈한 바람이 일렁이고있었다.

그때 눈보다 더 하얀 목도리를 휘둘러감은 리정애가 제판장에 들어섰다. 공무원직장에서 해체한 보령을 신고온다는것이였다. 드디어 《배비변경》이 시작된것이다.

잠시후에 방송차가 《강성부흥아리랑》의 흥겨운 가락을 앞세우고 나타났다. 그뒤에는 최만기의 지휘밑에 키가 꺾두룩하고 곱처럼 듬직해보이는 보령을 실은 커다란 화물자동차가 따라섰다.

보령을 언땡기초우에 올려놓고 고정시키는 일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가공하게 될 선회틀도 작업대에 든든히 고정시켜놓았다.

눈보라는 난데없이 나타난 보령과 한판 겨루어

보기라도 하려는듯 맹렬하게 달려들곤 하였다.

《직장장동지, 보링공은 접니다.》

맴시나게 작업복을 갈아입은 리정애가 유명재앞에 딱 버티고서서 오돌차게 말했다. 누구한테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아니면 직장장과 최만기의 눈치를 챘는지 그는 한치도 양보하지 않을 잡도리였다. 그 말을 들으며 최만기는 직장장을 바라보았고 직장장은 기사장을 결눈질해보았다.

《직장장동지, 가져오랍니까?》

《빨리...》

서춘오는 직장장의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달려가더니 다른 한 용접공과 함께 시뵐결게 달곤 난로를 마주 메고 왔다.

리정애의 말을 적극 지지하면서도 령하 15도를 가까이하는 한지의 강추위속에서 일할 그가 애처로워서 근심에 잠겼던 서춘오였다.

그런데 천만뜻밖에도 리정애가 기대가까이로 난로를 메고 오는 그의 앞을 암팡스럽게 막았다. 리정애는 시뵐결게 돌아오른 난로가 보링가까이로 다가오는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았다.

난로의 열은 언땅을 녹일것이고 보링에도 열을 가하게 될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초볼트가 건들건들 놀수 있다.

하지만 서춘오는 물러서려고 하지 않았다.

리정애는 또 그대로 그가 한걸음 나서면 두걸음 내밀지 못해 안달아했다. 밀거니당기거니 누구도 양보하려고 하지 않았다. 순박하면서도 좀 우직스러운데가 있는 서춘오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 마음처럼 돌아오른 난로를 한치라도 보링가까이에 가져다놓으려고 애썼고 리정애는 반대로 한치라도 멀리 밀어내려고 안간힘을 썼다.

《아무리 추워두 난 참을수 있어요.》

애틀한 정에 속이 뚫어나는지 리정애는 말을 잊지 못했다. 소중한 그 무엇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솟구쳐올랐다. 그들은 서로의 가슴속에서 이글이글 타고있는 불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것을 절감하였다.

유명재도 최만기도 코마루가 시큰하여 그 싹쟁이를 어찌지 못했다. 하는수없이 서춘오가 툄툄거리며 몇걸음 물러나서 난로를 내려놓았다. 그제야 리정애는 곱살긋고 삼삼한 자기로 돌아가 사려물었던 입술을 방싯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러고나서는 큼직한 쓰레받기를 들고 눈무지에 가서 눈을 퍼담았다. 청소를 하려는가 했는데 웬걸 난로뚜껑을 열더니 퍼담아가지고온 눈을 와락와락 쏘아넣는것이 아닌가. 순간 구름같은 증기가 확 솟구쳐올랐다. 모두 가슴이 뭉클하여 바라보기만 할뿐이었다. 자기가 가공할 생각도 하고 난로를 서너개 피워다놓으라고 일렀던 유명재는 한대 얻어맞기라도 한듯 이러지도저러지도 못했다.

《정애야, 그건 너무한것 같구나.》

최만기도 가슴에 더운 눈물이 고이는지 겨우 이 한마디를 했다. 겨울화로는 어머니보다 낫다는데 정 추우면 돌아서서 손이라도 쪼이면 좋지, 불을 아예 꺼버릴것까지야 없지 않느냐 하는 속심에서 하는 말이였다.

《난 더 추워지기를 바랄뿐이에요.》

불을 쪼일수 있다는 미련은 이겨내야 한다는 각오를 약하게 할것이라고 리정애는 생각하고있었다. 마음이 못 견더 죽지 손발이 못 견더 죽는 법은 없다.

늑으면 눈물이 헤퍼진다더니 최만기는 눈물이 고인 눈구석을 뺨 문질렀다. 그는 우리 천리마대고조시기 사람들이 헛살지 않았구나, 그때의 정싹바통이 곳곳이 이어지고있구나 하는 긍지로 가슴이 부풀어오르는것을 느꼈다.

눈보라는 여전히 맴짜게 불어쳤다.

이윽고 만단의 작업준비를 갖춘 리정애가 직장앞으로 다가와서 야무지게 입을 열었다.

《직장장동지, 시작하랍니까?》

《쏹소. 제힘을 믿고 하면 된다는 배짱으로... 알지?!》

지금까지 사업을 포치하고 작업지령을 줄 때 이따금 이 말을 드문히 해온 유명재였지만 오늘처럼 진심으로 심장에서 퍼낸적은 없었다.

눈보라가 든든히 영치를 불인 보링을 쓸어뜨릴듯 맹렬하게 덮쳤다. 하지만 제판장의 얼어붙은 땅이, 아니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기어이 보답하려는 모든 강선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이 그대로 든든한 기초가 되어 역세게 받들어주는 보링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모두의 눈길은 담차고도 날렵하게 움직이는 리정애한테 집중되었다. 드디어 선회틀을 가공하는 아츠러운 금속성이 세차게 울부짖는 눈보라소리를 휘어잡으며 힘차게 울리기 시작하였다.

방송차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새롭게 형상하도록 하신 노래 《강선의 노을》의 은은한 선율이 부드럽게 울려퍼졌다.

지난 세기에 천리마대고조로 어버이수령님을 받들어온것처럼 새 세기에도 강선의 로동계급이 강성대국건설의 앞장에 서서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어려있는 노래의 선율은 눈보라속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어주었다.

울부짖는 눈보라소리와 현악기의 정서적인 울림은 화음이 되어 제판장을 엄숙한 분위기에 휩싸이게 했다. 단순히 철판이나 자르고 용접하는 일터라기보다 삶과 죽음이 맞선 격전장처럼 느껴졌다.

기사장은 유명재와 최만기와 함께 보링주변을 돌아보며 깐깐하게 살펴보았다. 언땅도 기초볼

뜻깊은 새해에도

곽 명 철

얼마나 거창했던가
내 용약 뛰어들어
선군시대 공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지난해의 150일전투는

얼마나 보람찼던가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참전자
그 끝없는 궁지와 자부심
가슴부풀도록 간직케 한
지난해의 100일전투는

시간을 잊고 산 나날이었다
세월이 어떻게 흘러
한해가 언제 다 저물었는지
미처 느낄새도 없던
열정과 열망으로 가슴 뛰던 그런 나날이었다

우리 장군님 손수 지정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이 열리는 그 시각에
늦음없이 들어서자고
늘 자신을 채찍질하며
마음의 신들매를 풀지 않고 산
아, 잊지 못할 그 나날이어

150일전투는 이미 승리로 마무리했어도
100일전투의 실적은 하늘을 찌를듯 높아도
최후승리의 령마루를 눈앞에 두고
내 어찌 순간이나마 탕개를 늦추고
안식의 그늘을 찾을수 있으랴

2010년
또다시 밝아온 희망찬 이 새해에도
어머니당은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고있나니
계속전진 계속투쟁으로
더 높은 비약을 어서 안아오라고

그렇다
150일로 부르던 당의 부름은
150일만을 위한 부름이 아니였고
100일로 땀젖어 달리던 그 발걸음은
100일만을 위한 자욱이 아니였거니

오, 뜻깊은 이해에도
맞이하는 모든 날과 날을
그처럼 빛내이리라 마음 다지고다지며
나는 또다시 새해의 365일
강성대국을 향한
전투에로 신심드높이 돌입하노라

트도 기대도 다 끄떡없었다. 리정애는 더 말할것
없고 ...

《언팡기초야말로 기막힌 〈결작품〉이요!》
기사장의 기쁨은 비등점으로 치달아올랐다.
《제힘을 믿고 하면 된다는 훌륭한 종자를 심었
으니까요!》

최만기는 이렇게 체격 받으며 직장장을 돌아보
았다.

그 말이 신통한지 유명재도 따라웃었다.

사실 기사장이 극구찬양하는 그 《결작품》은
천리마대고조시기부터 감탄부호와 함께 살아온 최
만기아바이가 마련한것이였다. 그는 생을 마무
리하는 순간에도 우리들에게 애오라지 감탄부호만
남겨놓을것이다.

유명재는 그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리정애의 작업모습을 믿음어린 눈길로 한동안
지켜보던 유명재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난듯 주머
니를 뒤적여 종이장을 꺼내들더니 최만기에게 불

쑥 내밀었다.

최만기는 얼떠름해서 받아들며 물었다.

《이건 뭐가?》

《아바이의 년로보장수속문건입니다.》

유명재는 씩 웃으며 아바이를 바라보았다.

《그래 수표는 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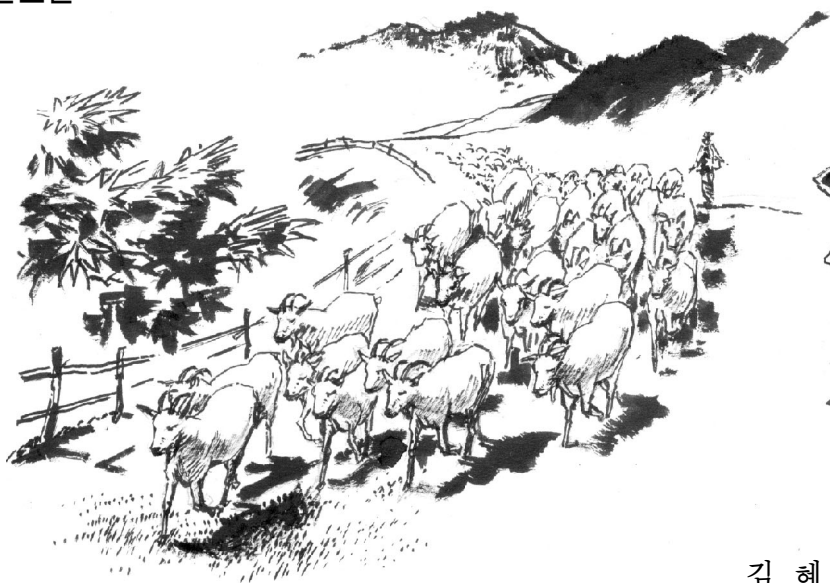
《원 아바이두, 아바이의 그 속마음을 제가 모
를것 같아서 그러니까?》

두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통쾌하게 웃었다.

아바이가 년로보장수속문건을 들고다닌것도 사
실은 유명재나 리정애에게 제힘을 믿고 분발해나
서도록 하기 위해서였던것이다.

눈보라는 강선의 기상인양 더 세차게 휘몰아쳤
다. 눈보라없이야 무슨 겨울이라. 하지만 겨울속
에서 봄이 태동하듯 눈보라속에서는 불보라가 태
동하고있었다.

더 세차게 휘몰아치라, 강선의 눈보라, 강선
의 불보라!...



가보

김 혜 인

1

암청색하늘에 별들이 많이도 났다. 갖가지 못별들이 깜빡깜빡 빛을 흘리며 우리를 내려다본다.

문득 그 별무리속에서 림광같은 빛줄기를 길게 끌며 별찌 하나가 살같이 떨어져내린다.

나와 동생 두호는 약속이나 한듯 《야!》하고 탄성을 질렀다.

《별찌가 떨어질 때 소원을 말하면 그 소원이 꼭 이루어진다고 했단다. 어디 우리 일호부러 한번 말해보렴.》

하루일의 피곤에 지친 어머니의 잠내 풍기는 파스한 목소리가 고요한 밤의 대기속에 차분히 찾아든다. 머리속의 갖가지 꿈과 희망을 이것저것 짚어보고나서 나는 그중 큼직한 하나를 성큼 골라잡았다.

《난 시내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어.》

멍석을 편 마당가에 앉아 쪽연기를 날려주던 어머니의 손이 잠시 무춤하는듯 했다.

《엄마, 난 시내에서 태어났다는데 왜 생각이 안 날까?...》

《어렸으니까. ... 자, 우리 두호도 소원을 말해봐야지?》

어머니가 애써 말머리를 돌렸다.

동생은 한참이나 꿈꿨다.

《음... 난, 난 이담에 커서두 그냥 엄마하구 같이 있구싶어.》

첻, 그게 무슨 소원이람, 사내라는게...

속으로 어처구니없어하는데 문득 동생이 졸랐다.

《이젠 엄마가 한번 말해봐요.》

어머니는 싱그레 웃으며 손가락빛으로 숯밤송이같은 우리의 머리를 정겹게 쓰다듬어주었다.

《글쎄... 엄마의 제일 큰 소원이 뭘까?》

술깃하여 두눈을 반짝이던 우리가 기다리다못해 재촉했다.

《빨리요, 엄마!》

《이담에 말해주마. 너희들이 다 큰 다음에... 난 그저 너희들의 소원을 듣는게 더 좋구나. 그 소원을 다 합치면 그게 바로 엄마의 소원이 될지도 모르지. ...》

우리는 머리를 기웃거렸다.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소원이 생겨났다. 어서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

그다음날 밤에도 하늘엔 별이 총총했다. 헌데 우리는 모기쑥불이 그물그물 타는 마당이 아니라 무섭기가 호랑이같다는 기범이네 할아버지가 지키는 수박밭머리에 맨땅을 깔고 죽은듯이 엎드려있었다. 문득 우중충하게 솟은 앞산너머로 별찌가 떨어져내렸다. 심장이 쿵쿵 방아를 찧는 속에서도 나는 재빨리 속삭였다.

《제발 들키지 말고 큰 수박 두개만 뺏으면...》

겉쟁이 두호가 기겁하여 내 옆구리를 쥐어뜯는다. 조금 떨어진 다락우에서 기범이 할아버지의 웅글은 기침소리가 울려왔던것이다. 그 소리는 마치 코앞에서 터지는 폭탄소리만큼이나 요란하게 귀청을 자극했다. 우리는 차마 발에는 기여들지 못하고 안타깝게 한자리에 못박혀있었다.

... 사실 우리는 쌍둥이형제였다. 불과 몇분 앞서 태어난것으로 하여 나는 형이 되고 잠시 지체한탓으로 두호는 동생이 되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겐 거울이 필요없다고 한다. 제 얼굴을 보고싶으면 서로의 얼굴을 쳐다 보면 된다는 것이었다. 낱아준 부모나 갈라볼 정도로 똑같은 생김새였지만 우리의 성격이나 기질은 너무도 판판 달랐다. 나는 늘 무릎의 상채기가 아물새없이 동네애들을 휘둥해가지고 산과 강을 쏘다니는 부잡통이었다면 동생은 꿈꿨던 숙제문제를 풀거나 고작해야 염소나 오리, 계사니를 방목하는 어머니의 치마자락에 묻어다니기를 좋아했다. 거기다 앓기는 왜 그리도 자주 앓는지. 어쨌든 동생은 약골에 소심쟁이었다.

말이 났으니 말이지 우리에게는 단 한명뿐인 외삼촌이 있었는데 신통한것은 어머니와 외삼촌도 오누이쌍둥이인 것이었다. 어머니가 나처럼 선동으로 태어났다. 삼촌은 내가 그리도 부러워하는 도시의 큰 공장 지배인차 운전사였는데 가끔 맛있는 간식이랑 가지고 우리 집에 찾아왔다. 끄적이 우릴 위하는 삼촌이 고마와 어느날 두호가 《엄마! 외삼촌이 왔는데 꼬꼬댁이 한마리 잡자요.》라고 말했다. 나도 질세라 《뽀뽀이두요.》하고 덧붙였다.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다가 고개를 끄떡였다. 삼촌이 허거프게 웃었다.

《누이, 내가 고기를 못 먹어서 누이가 기르는 닭을 먹겠소? 사실 혼자서 집짐승을 기르느라 애쓰는 누이를 돕지 못해 안타까운데...》

그때 삼촌의 낯빛이 왜서인지 어두워보였다.

사실 삼촌은 우리 어머니앞에만 서면 무슨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늘 미안쩍어하는 기색이었다.

내 보기엔 어머니가 삼촌에게 고맙다고 인사해야했는데 삼촌이 오히려 어머니에게 무엇인가 빚지고 사는듯이 어깨가 축 처져있으니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언제인가 한번 외삼촌이 어머니에게 주밋거리는 듯 하며 말했다.

《누이...오랜만에 그... 그걸 한번 보고싶구려.》

잠시 망설이는듯 하던 어머니는 말없이 장농을 열고 무엇인가 정히 싼 붉은 보자기를 꺼내 외삼촌앞에 조심히 펼쳐놓았다. 그것은 꽤 오래 되어보이는 낡은 검은밤색목도리였다. 굵은 실오리로 두툼하게 뜬 목도리는 어찌나 오래 되었는지 포근한 맛이란 느껴지지 않고 고작은감이 들었다.

어머니와 외삼촌은 한동안 말없이 그 목도리를 엄숙한 눈길로 지켜보기만 했다. 그러는 어머니와 외삼촌을 바라보며 우리는 고개를 기웃거렸다.

저런 낡은 목도리를 어머니는 왜 무슨 귀중하고 값진 물건이나 되는것처럼 정히 보관하는것일까? 외삼촌은 왜 그걸 보고싶어하는것일까? 의문은 끝없이 꼬리를 물었다.

한번 만져보고싶었으나 어른들의 자세가 하도

엄엄해보여 감히 그럴념을 내지 못했다.

한동안이 지나서야 우리는 막혔던 물목을 러치듯 겨끔내기로 물었다.

《어머니, 이 목도리는 엄마거나요?》

《죽실히 오래된거구나.》

《할머니가 준거나요?》

어머니와 외삼촌은 이상하게도 침묵을 지켰다. 이윽하여 외삼촌이 붉은 보자기에 목도리를 다시 싸서 어머니앞에 밀어놓았다. 어머니는 그러는 외삼촌을 지켜보더니 조용히 물었다.

《현우야, 이 목도리를 네가 건사하련? 아무래도 네가 아들이니. ...》

외삼촌은 긴숨을 내쉬더니 쓸쓸히 웃으며 안경을 벗어 닦았다.

《그야 아버지가 직접 누이한테 물려주신건데. ...》

《사실 할아버지대부터 내려오는 집안의 가보가 아들인 너에게 물려지지 못하게 나도 괴롭다만...》

외삼촌은 후유— 긴숨을 내쉬며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아니, 그런 말 말아요. 다 제탓이지요. 생전에 아버지를 그토록 노엽힌 내가 이제 와서 무슨 체면으로... 그럴 자격이...》

어머니도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다.

《너무 피로와말야. 난 널 탓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굳이 이걸 나에게 물려준 뜻은 너도 잘 아는거구... 그러니 우리 서로 할아버지나 아버지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자꾸나.》

《알겠어요, 누이.》

아닌척 하면서도 어른들의 말을 열심히 귀동냥해 들었으나 나는 통 말귀를 알아들을수가 없었다.

저런 낡은 목도리가 어떻게 집안의 《가보》로 된다는것까? 어째서 외할아버지는 저 《가보》를 아들인 외삼촌대신 우리 어머니에게 물려주었을가? 또 외할아버지를 외삼촌이 노엽혔다는건 무슨 소릴까?...

이런 땐 아버지에게 물어보기라도 했으면 얼마나 좋으랴싶었다. 우리 아버지는 리소재지에서 수십리 떨어진 염소방목지 책임자였는데 일년내내 방목지에서 살다싶이했다.

도시에서 살던 우리 가족이 여기 농장으로 자원 진출해온것은 우리가 세살나던 해였다고 한다. 어머니는 이 산골로 오자마자 본격적인 집짐승기르기를 시작했다. 농장일의 여가에 집짐승들을 기르자니 오직 힘에 부치랴.

그래서인지 아버지는 집에 올적마다 무척 미안해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대체로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명절날에만 집에 오곤 하였는데 결국 아버지가 오는 날은 명절에 명절인셈이었다. 늘쌍 어머니의 량쪽팔을 하나씩 베고 자는데 습관이 된 우리가 판방으로 가서 자는것을 내놓고는 아버지

가 오는 날은 참으로 좋았다.

아버지는 어쩌다 차례진 휴식일에도 쉬지 않고 어머니의 일손을 도왔다. 어쨌든 우리 부모들은 모두의 동경의 대상인 도시를 혼연히 떠나 깊은 산골에서 짐승을 길러서는 백두산지구건설장을 비롯한 사회주의건설장들에 해마다 지원물자로 보내 주고있는것이였다.

그런 아버지가 인츰 집에 온다는 연락이 왔다. 나는 두호와 마주앉아 어떻게 하면 오랜만에 집에 오시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수 있을가 하고 궁리하는데 문득 두호가 숨차게 부르짖었다.

《형! 수박!》

아참, 그렇지! 한창 무르익어가는 수박 몇개를 따서 감추었다가 아버지에게 드리면?... 방목지에는 수박이 없다질 않는가? 역시 우리 두호는 나보다 공부도 잘하거니와 멋진 생각을 곧잘 해낸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기다려 이 수박밭에 숨어든 것이였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엉치를 쳐드는 찰나 행길쪽에서 우리를 찾는 어머니의 부름소리가 들려왔다.

《일호야— 두호야—》

초저녁에 사라진 우리를 찾아 어머니가 마을길을 헤매고있는 모양이였다. 야단났구나!

우리는 다시 풀숲에 납작 엎드렸다.

점점 부름소리가 가까이로 다가왔다.

두호가 겁에 질려 중얼거렸다.

《형! 가자. ...》

《입 다물어!》

《씨... 엄마가 찾는데... 나 엄마한테 다 대줄래.》

내가 미처 손쓸새도 없이 두호가 뛰쳐일어나 어머니쪽으로 달음쳐갔다. 너무도 아연하여 나는 입을 하 벌렸다. 저런 나약한 배반자와 일을 꾸미다니!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어머니에게 미주알고주알 일러바치는 소리가 밤의 고요를 뚫고 똑똑히 들려왔다.

《형이 먼저 가자고 했어요. 난 흠치는건 싫다고 했는데... 엄마! 형 저—어기 숨어있어.》

제 뭇까지 몽땅 나한테 떠넘기는판이다. 육먹는데 버릇되지 못한 두호가 이따금 재구를 친 때에 조차 형답게 말아나서서 몇번 육을 먹여주었더니 이제 아예 선손을 쓰는셈이였다.

《앵이, 저걸 그저...》

나는 이발을 사려물었으나 그렇다고 어머니앞에서 사연을 까뽀히고싶지는 않았다. 또 한번 내가 고스란히 뒤집어쓰는 수박에... 이래서 어른들이 형구실을 하기가 힘들다고 했던가. ... 다리부러진 메뚜기 잡히듯 꼼짝 못하고 덩불속에서 끌려나온 나는 바작바작 타는 심정으로 어머니의 추궁을 기다렸다.

한동안 아무말없이 내려다보기만 하던 어머니가 나직이 말했다.

《가자!》

그런데 우리를 데리고가는 곳은 뜻밖에도 집방향이 아니라 기범이 할아버지가 지키는 다락쪽이였다. 어머니 대체 어쩌자는걸가?

가던 길에 어머니는 싸리올바자에서 회초리감 하나를 푹 꺾어들었다. 다락밑에 이르렀다. 용감하다고 뽐내던 나도 이때는 두다리가 참을수없이 떨려났다.

《무릎까지 걷어올려라!》

그리고는 어머니가 조용히 찾았다.

《할아버지, 기범이 할아버지 계세요?》

《어, 이거 밤중에 쌍둥이에미가 웬일인가?》

평시에 각근히 지내는 두 집이였던지라 저으기 놀라는 어조였다. 할아버지가 땅에 내려서자 어머니는 로인에게 회초리를 내밀었다.

《애들의 종아릴 쳐주세요. 우리 애들이 몰래 수박밭엘...》

《허, 요즘 애녀석들 성화가 뜬하다 했더니 이제 또 너희들이?... 그래 한통씩 제졌냐?》

《아니예요, 씨. 따진 못했는데...》

내가 다소 불분은 목소리로 웅알거렸다.

《예기, 녀석들! 먹고싶으면 초저녁에 와서 할아반 나 하나 줍소 할노릇이지 이게 뭐냐? 도적고양이들처럼, 영?》

그리고는 허허 웃으며 어머니를 돌아보았다.

《됐네, 쌍둥이에미. 애들이 그렇지. 큼직한 절루 서너통 골라줄테니 가서 먹이게.》

어머니가 황망히 손을 저었다.

《아니예요, 할아버지. 제 잘못이 뭔지도 모르는데 외려 버릇만 꺾혀요. 할아버지 손으로 꼭 때려주세요.》

어머니의 어조가 어찌나 강경했던지 할아버지는 잠시 머뭇하더니 회초리를 받아들였다.

《그래, 어디 피나게 한번 쳐볼가. 정신이 버쩍 들게.》

두호는 맞기도 전에 제깅에 겁에 질려 엉엉 울음을 터쳤다.

《할아버지! 다신 안 그렇게요. ...》

물론 바람가르는 소리만 요란한 엉터리회초리찜질이였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씨근덕거리며 어머니에게 의견을 부렸다.

《엄만 나빠, 따지도 못했는데 매맞게 하구. ...》

《일호, 너 덜맞았구나. 나쁜 마음을 먹은것 자체가 벌써 죄란다. 수박은 한알을 따기 위해 한포기를 심어. 그런데 어른들이 봄내여름내 땀흘려가꾼 그 열매에 랑심없이 손을 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니? 그렇게 살아서는 안돼, 그렇게 살아서는...》

어머니가 말끝을 흐렸다. 별안간 가슴이 찢르르 해왔다. 곁에서 두호도 훌쩍훌쩍 코물을 들이켰다. 나는 풀죽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다신 안 그럴게요.》
《나두요.》
어머니는 량쪽에 갈라선 우리를 두팔로 꼭 껴안아주었다. 우리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듯 했다. 별다른 밤이었다. 잊혀지지 않을 밤이었다.

2

지어먹은 마음 사흘을 못 간다던가?
그후에도 나는 종종 어머니의 속을 태우곤 했다.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우리는 다른 집 쌍둥이들처럼 똑같은 옷을 해입고 다니기를 싹 그만두었다. 더 어릴적에는 그것이 사람들의 감탄과 귀염을 자아냈었으나 우리는 점점 싫증이 났다.
둘이 동시에 투정을 부려 끝내 어머니의 승낙을 받아내었다. 오랜만의 행동의 일치였으나 실상 리유는 판판 달랐다. 나는 동네애들속에서 마음도 여리고 주먹도 약한 두호로 오해받는것이 싫었고 두호는 학교에서 가끔 숙제도 안해오고 말썽도 자주 일으키는 형으로 오해받는것이 싫어서였다.
나는 푸른색, 두호는 흰색... 그때부터 사람들은 우리를 갈라보기가 꽤 쉽다고 했다. 어느날 아침 당장 학교에 갈 림박해야 나는 어제 늦도록 뛰여 노는 정신에 숙제를 깜빡했다는것을 상기했다. 큰 야단이였다.

얼마전에 새로 오신 수학선생님이 오늘까지 숙제를 해오지 않으면 단단히 문제를 세우겠다고 나를 엄하게 버르고있었던것이다. 이제라도 두호의 숙제장을 옮겨베끼면 좋으련만 그럴 시간이 없다. 근심에 싸여있던 나는 두호를 꼬드기기 시작했다.

《두호야, 오늘 딱 하루만 옷을 바꿔입자. 오늘만 내대신 옥을 좀 먹으렴, 응?》
사연을 듣고난 두호는 내 신세를 진 일이 한두번이 아닌지라 마지못해 응낙했다.

《형, 오늘 딱 하루만이야.》
나는 두호의 옷을 입고 두호의 자리에 앉아 두호의 숙제장을 펼쳐놓고 의젓하게 검열을 받았다. 대신 두호는 잠시 일호가 되어 눈물이 절끔 나올만큼 맵짠 꾸중을 들었다. 집에 돌아와 나는 여전히 노염이 풀리지 않아 아래목에 웅크리고 앉은 두호에게 옷을 벗어 내밀며 게면쩍게 말했다.

《자, 다시 입어. 후담에 내 봉창해줄게.》
눈을 내리깔고 잠시 씨근거리던 두호가 불쑥 고개를 쳐들었다.

《형, 오늘만 그냥 입고있자!》
《그, 그건 왜?...》

두호가 내 귀가에 대고 자기의 희한한 구상을 재빨리 속살거렸다. 나는 입이 벌거늘해졌다.

《거참, 멋진데...》

이어 두호의 옷을 그대로 입은 내가 여럿이 모여 자치기를 하는 뒤마을아이들에게 다가가다.

항시 두호를 만만히 보고 씨부렁거리던 애들이 이게 웬떡이나 하고 벌쭉거리며 지분댄다.

《두호, 너 아직 엄마젖 먹는다지?》

《야, 남남 맛있겠네.》

히히하하 웃음소리가 터져올랐다.

나는 불끈 치솟는 뺨을 가까스로 삭이고 잠자코 있었다. 한 아이가 멍든 이마를 내보였다.

《이것 봐. 아직도 퍼런걸. 너희네 일호 숨씨야. 오늘은 대신 네가 맞아라.》

바로 이때 저쪽에서 내 옷을 입은 두호가 바지 주머니에 두손을 찌른채 스적스적 걸어왔다.

순간에 아이들이 굳어졌다.

《야, 야! 일호가 온다!》

가까이 다가온 두호가 미리 짠 각본대로 짐짓 목소리를 누르고 내뱉었다.

《누가 우리 동생 놀러왔니? 너야?》

불이 번쩍나게 귀뺨을 먹였다. 자기를 못살게 굴던 애들을 신통히 골라 맵지게 쥐여박던 두호가 별안간 내쪽을 돌아보며 환희에 넘쳐 웨쳤다.

《형! 이것들이 나한테 꼼짝 못해!》

물론 이것은 각본에 예견되지 않은 《배우》의 독창적인 대사였다. 그다음엔 모든 일이 개판으로 되었다. 감쪽같이 속히온 분풀이로 마구 달려드는 애들을 우리는 둘이서 힘을 합쳐 막아냈다. 여럿이 넘어져 팔굽이 굽히고 무릎이 찼었다.

저녁중으로 어머니에게 《신소》가 제기되었고 어머니는 《피해》입은 집들을 찾아다니며 사죄를 해야 했다. 참, 왜 우리가 하는 일들은 죄다 어머니를 실망시키고 괴롭히는 결과로만 끝나는것인지. ...

그날 밤 어머니가 우리를 나란히 불러앉혔다. 한동안 애타는 어조로 준절히 꾸짖고난 어머니가 한숨 돌렸다가 저으기 달라진 어조로 말했다.

《래일부턴 너희들이 엄마일을 좀 도와줘야겠다. 엄마도 이제 힘에 부치는구나. ...》

우리앞에서 좀해서 힘든양을 하지 않던 어머니였다. 우리는 눈이 둥그래서 서로를 마주보았다.

우리가 어머니를 도올라치면 《그만뒤라. 서로가 제 맡은 일을 하자꾸나. 너희들 일은 공부를 잘하는거다.》 하던 어머니였다. 그러던 어머니가 종래의 자세를 허물고 자기 일을 도와줄것을 호소하고있는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장난질에만 움해있던 우리들의 마음속에 신성하고 보람찬 로동에 대한 참다운 인식을 새겨주려는 어머니나름의 교양방법이 아니였을가? 그러나 그때 나는 약간 서운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떡였다.

그리하여 오후에는 우리가 어머니의 일손을 돕게 되었다. 마당가득 우글거리는 100여마리의 집짐승들… 그것들을 돌보는것이 우리 임무였다.

어머니는 즐겨 그것들을 《우리 식구》라고 불렀다.

그런데 그 《우리 식구》들은 배고프면 식장을 뒤져 찾아먹는 우리와는 달리 코앞에 딱 받쳐주거나 끌고 가져와야만 먹는 한심한 족속들이었다.

말 못하는 그 《식구》들을 먹여살리느라 어머니는 눈코 뜰새없이 바빴다. 어뜩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동네돌이를 하며 뜨물을 지어날랐다. 그렇게 날라온 뜨물을 끓이고 모이를 버무리고는 일을 나가면서 염소떼를 몰고 나갔다. 점심참이면 꺾꺾한 솔로 네마리나 되는 돼지들을 씻어주고 잔뜩 적셔놓은 복데기를 쳐냈다. 어디 이뿐인가. 퇴근후에는 산더미같은 풀을 베어다가 썰거나 땅을 깊숙이 파고 비닐박막을 깔아 만든 절임랑크에 풀을 가득 채워넣곤 했다.

사람들은 우리 어머니를 두고 오금이 무쇠같은 녀자라고 했다. 녀성의 몸으로 힘에 부친 일이었던만 어머니는 늘 성수가 나 일했으며 입에서는 코노래가 흘러나오곤 했다. 거기다 어머니는 비둘기까지 정성을 다해 길렀다.

《어머니, 비둘긴 해서 뭘 하나요?》

《음, 뭐랄까, 어머니 고향에 보내고싶어 기르는거란다.》

《고향에요? 어머니 고향이 어디게요?》

《포태란다. 백두산이 지척에 바라보이는… 너희네 외증조할아버지도, 외할아버지도 다 거기서 사셨단다.》

포태, 백두산! 나는 조용히 입속으로 외워보았다. 백두산이라는 그 신성한 부름 가까이에 어머니의 고향이 있다는 생각이 어린 마음을 숭엄하게 했다.

《항일무장투쟁때 그곳에선 비둘기를 길들여서 통신련락에 리용했단다. 유격대도, 마을사람들도 비둘기를 가지고다니며 련락을 했대. 왜놈들도 치고 원호물자도 날라가고… 그래서 우리 마을엔 비둘기가 많았지. 어머니도 어릴 때부터 비둘기를 많이 길렀단다.》

어머니의 그윽한 눈빛이 구름 한점없이 파아란 하늘가 멀리를 오래도록 더듬고있었다. 그 눈빛에는 절절한 그리움의 향수가 짙게 어려있었다.

《포태도 여기처럼 깊은 산골이나요?》

《그래.》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왜 거기 가지 않구 여기로 왔나요? 거긴 어머니 고향인데다 백두산이 가까이 있지 않나요?》

이윽하여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여긴 네 아버지의 고향이란다. 너의 아버지

님 무연한 풀판이며 자연먹이가 그득한 고향땅을 잊지 못했지. 그래서 우린 여기로 오게 된거란다.》

문득 못 견디게 아버지가 보고싶었다.

결국 어머니는 이 깊디깊은 산골에 아버지의 정과 사랑도 고스란히 함께 쏟고있는것이였다.

그때부터 우리는 더 극성스럽게 비둘기를 길렀다. 기울인 정성이 있어 날이 다르게 비둘기식구들이 늘어났다. 비둘기는 한달에 한번씩 알을 낳는다. 신통한것은 한배의 형제가 한쌍인것이다. 호기심이 많았던 나는 어느날 비둘기가 낳은 두번째 알을 슬쩍 감추어놓았다. 그랬더니 이것 봐라, 다음날 제격 한알을 더 낳는게 아닌가?

우리는 차츰 독립적으로 오리와 계사니를 맡게 되었다. 오후마다 숙제를 끝내기 바쁘게 나는 계사니를, 두호는 오리를 몰고 어머니가 찍어주는 호수가나 개울가로 자연방목을 가야 했다. 처음에는 사기도 나고 재미도 있었다.

그러나 한주일, 두주일 시간이 흐르자 무료함이 덧쌓이면서 오금이 쭈서나기 시작했다. 두호는 그런대로 집착하는것 같았으나 나는 가까스로 몸을 비끄러매고있는 그 개울가와 호수가가 점점 싫증이 났다.

더 야단인것은 어머니가 오리와 계사니를 서로 다른 곳에서 방목시키라고 장소를 딱딱 지정해주는것이였다. 그러면 나는 두호와 헤어쳐 그야말로 내가 왜웁이라고 이름붙인 말 못하는 계사니들과 밧해서 할일없이 왔다갔다 해야 하는것이다.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거의 고통에 가까운것이였다. 나는 차츰 요령이 터서 어머니가 방목장소를 두곳에 정해주면 내 방목지로 두호를 데리고 가거나 두호가 가야 할 곳으로 내가 따라가곤 하였다. 그 날도 어머니는 어김없이 따로 정한 방목지로 우리를 떠나보냈다.

나는 두호와 뽀뽀이부대를 나의 방목지로 인도하고나서 조심히 산속에 들어갈 의향을 비쳐보았다. 아무리 방목지를 합쳐도 자유주의한 일은 한번도 없었는지라 두호의 눈은 배로 커졌다.

하지만 산속에서 썰알을 좇고야말리라는 나의 결심에는 드림이 없었다. 썰알이란 참 신기한것이다. 숨으로 감싼 죄꼬만 알을 따듯한 아래목에 두고 붓으로 물을 발라주면 닭알처럼 꼭 21일만에 썰새끼가 까나오는것이다. 성긴 털이 보시시한 그 썰새끼가 알에서 까나오자마자 모이를 쪼아먹는 모양은 참으로 귀엽고 재미있었다.

나는 그렇게 썰알로 새끼를 한번 깨워보았다.

그런데 병아리들은 절대로 다치지 않는 우리 집 고양이란 놈이 그 썰새끼만은 아무래도 수상해보였던지 휙 달려들어 먹을 물고 가버렸다.

아연해서 소리소리지르며 쫓아갔으나 썰새끼

는 이미 맛난 먹이감이 된 뒤였다. 나는 벌칙으로 그 고양이목에 한달동안 《조의》를 뜻하는 시꺼먼 땡기를 매주었다. 술줄이 켜지게 바싹 당겨댄 그 《조의》땡기를 풀어버리지 못해 안달복달하는 고양이란 놈을 보며 잘코사니야 했다. 우리는 짐승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꽃이나 꽃천으로 만든 땡기를 달아주고 못되게 놀 때에는 무겁고 투박한 목사리나 보기 흉한 땡기를 매주곤 했다.

어머니는 그것을 보고 매양 웃곤 했다.

그토록 힘들게 품들여 깨운 평새끼를 순식간에 낚낚해치운 고양이에게 벌을 주었으나 좀처럼 마음이 풀리지 않았다. 기어이 평알을 다시 주어가 또 깨워보고싶었다. 어머니가 알면 만류할테지만 이미 나의 눈에는 달이 떴다. 나는 두호에게 내 왜웁이들도 좀 보아달라고 명령조로 말하고나서 다짜고짜 산쪽으로 향했다. 금시 두호가 울 가망이 되어 애처롭게 조르기 시작했다.

《형, 나두 함께 가자마, 웁?》

아마 혼자 있기가 적적하고 무서운 모양이었다.

《그럼 뽀뽀이와 왜웁이들은 어찌니?》

두호는 대답을 못하고 목에 건 호각만 만지작거렸다. 어머니가 호각을 불면 모여드는 훈련을 끈질기게 시켜서 우리 오리와 계사니들은 아무리 홀어저있어도 무방했다. 두호는 차마 입밖에는 못꺼내지만 호각을 만지작거리는걸 봐선 거기에 매달리고있는게 분명했다.

나는 두호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 혼자서 심심하기도 하여 망설이다가 《그럼 딱 한시간! 아니 30분만이야.》 하고 다짐을 받았다.

우리는 사기가 올라 숲속으로 뛰어들었다. 허나 어찌하랴. 30분이 그만 한것이나 걸린것을... 겨우 평알 세알을 찾아두고 정신을 펴쩍 차렸을 때는 해가 벌써 서산마루에 걸렸을 때였다. 정신없이 돌아오니 오리와 계사니들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다. 입이 아프게 호각을 불었으나 어둑어둑한 어스름만 깃을 펼뿐...

두호는 그만 쿵쾅쿵쾅 울기 시작했다.

나도 호각불기를 단념하고 멍하니 서버렸다.

오리와 계사니를 줄지에 잃어버린것이다. 외삼촌이 와도 한마리 잡아주지 않던 그 귀중한것들을 말이다. 서운하다못해 파랗게 질릴 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르자 겁이 덜컥 나고 울고싶어졌다.

마침 지나가던 농장원아저씨가 우릴 보더니 허를 끌끌 차며 한마디 했다.

《이 녀석들! 어서 집엘 가봐라. 계사니란 놈들이 막 눈에 들어가 난탕을 치는걸 마침 남새반에 왔던 너희 어머니가 보고 끌고갔다. 원 애꾸러기들 같으니! 너희 어머니가 관리위원회에 찾아가 버가 손해본것만큼 분배뭇에서 제해달라고 했대더라.》

가슴이 섬찟했다. 재구를 친데다 어머니가 육까지 먹게 되었으니 집에 들어갈 용기가 더는 나지 않았다. 우리는 밤이 으스스하도록 그 자리에 선채 움직일줄 몰랐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문득 멀리서 우리를 찾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고개를 떨군채 자라목처럼 더욱 움츠리고 두호는 울먹울먹하더니 끝내 참지 못하고 《엄마야!》 하며 달려갔다.

이윽고 두호를 앞세운 어머니가 내게로 다가왔다. 나는 숨막히는 두려움을 안고 어머니의 추궁을 기다렸다.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어머니가 내 어깨우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일호야, 이 어머니가 잘못했구나.》

《?!...》

《내가 너희들에게 미처 말해주지 못했구나. 왜 농장포전이 가까운 곳에선 오리와 계사니간수를 더 잘해야 하는지. ... 원래 계사니란 놈은 벼파작물을 좋아하기때문에 논에 두지 않는단다. 제일 좋기는 파밭이나 강냉이밭에 풀어놓는것이다.

강냉이대가 한참 굵어질 때 열매가 잘 달리라고 제일 밀의 잎사귀는 뜯어주는게 상례란다.

계사니는 자기 키높이만큼밖에 뜯어먹지 못하기때문에 이런 시기에 강냉이밭에 놔두면 로력을 절약하고 계사니도 배부르지 않겠니? 오리도 마찬가지란다. 논에 놓아두면 저절로 김을 잡지 않니? 하지만 벼락중한 모판에 오리를 놔두면 종자를 다 두저먹어버린단다. 수직파한 논도 물론 위험하지. 일호야, 두호야, 우리가 오리랑 계사니를 기르는 것두 다 이 땅을 풍성하게 가꾸기 위해서가 아니겠니? 농장과 사람들을 실망하게 할바엔 차라리 안 기르니만 못하단다. 내가 그걸 너희들에게 미리 말해줬어야 하는건데... 이 엄말 욕해다오.》

《아니예요, 엄마! 내가... 내가 잘못했어요.》

나는 울먹이며 어머니의 품에 안겼다.

《됐다. 어서 들어가자. 밤이 다 식겠다.》

우리는 어머니의 량팔에 매달려 집으로 갔다.

어머니는 자기의 잘못이라고 했지만 나는 엄청난 재구를 친 계사니란 놈들이 미워서 견딜수가 없었다. 벌칙을 주지 않으면 잠이 올것 같지 않았다. 나는 슬그머니 전지를 켜들고 계사니우리로 갔다. 푸득거리는 한놈을 가까스로 움켜잡아 형짚오래기를 막 줄라매려는데 심상치 않은 기미를 챜 계사니란 놈들이 급기야 왜웁 고아대기 시작했다. 옆우리에 가둔 오리란 놈들도 알뜰게 덩달아 고아됐다.

나는 당황하여 전지를 꺼버렸다.

문득 《어머니! 어머니! 족제비예요, 족제비!》 하는 두호의 성급한 웨침이 들려왔다.

《뭐라구?...》

다급한 발자국소리가 가까와지는것으로 보아 어

머니가 달려나오는 모양이었다. 언젠가 한번 족제비의 습격을 받은 일이 있는지라 어머니는 부지깽이부터 들고 뛰어나올지도 모른다.

벌칙 문이 열리더니 다짜고짜 몽둥이 같은것이 불쑥 내질렸다. 아차하면 이마가 터질판이었다.

나는 기겁하여 《엄마! 나야, 나!》하고 죽는 소리를 치며 펄쩍 주저앉았다. 그제야 영문을 깨달은 어머니가 소리내어 웃었다.

《족제비가 아니라 꿈이됐구나. 우둔한 애기 꿈!》

두호가 우스워 죽겠다며 허리를 꼬부리고 돌아갔다. 나는 눈물까지 찔끔거리며 웃어대는 두호를 따르지 않게 흘려보았다. 그날 밤 나는 도무지 속이 내려가지 않아 계사니목에 매려던 형겔오래기를 쿨쿨 잠든 동생의 이마에 동여매놓고말았다.

다음날 책가방을 열어보니 그 형겔오래기가 교과서들을 꽂꽂 얹어매고있었다. 나는 피식 웃으며 창밖으로 훌 던져버리고말았다. 그런 후에 아무리 못나게 굴어도 다시는 짐승목에 굴레를 씌우는 일은 하지 않았다.

어느날 나는 두호가 숙제를 못해가고는 선생님 앞에서 《어머니의 일손을 돕다가 그만...》하고 변명하는것을 보았다.

《그래, 너희 어머니 참 일감이 많지. 훌륭한 어머니를 잘 도와드려라.》

딱딱하기로 소문난 수학선생님이 예상외로 숙제를 푸꺼먹은 두호를 너그럽게 용서해주었다.

두호는 그런 특혜를 남달리 많이 받곤 했다.

두호가 풀을 베는것을 보면 사람들이 지원을 잘하는 집애가 다르다고 칭찬하며 왁 달려와 도와주곤 했다. 그러면 두호는 낫을 맡기고 한옆에서서 고마와하면서도 웅당한듯이 흐뭇하게 웃곤 하였다.

지어 싸움을 걸어오는 뒤마을 애들앞에서도 이제는 《우리 집이 어떤 집인지 알기나 해?》하는 말을 형의 주먹보다 앞에 내세우곤 했다. 그전에는 형의 잔등뒤에 숨곤 하던 소심쟁이가 그 말을 무기처럼 꺼내들면서부터는 아무리 허우대 큰 아이도 꺾 못하는 당당한 애가 되었다.

나는 어머니가 그토록 커다란 힘을 가지고있는데 놀랐다. 우리 고장의 수봉산은 높기로 유명해서 《수봉산 그늘이 강동 팔십리 간다》는 말이 생겼는데 두호는 그 수봉산만큼이나 큰 영향력을 가진 어머니의 그늘밑에 즐겨 숨어버린것이였다.

웃음도 있고 눈물도 있는 우리 집의 가지가지 사연속에 세월은 빨리도 흘러갔다.

지붕우에서는 나날이 식구가 더해가는 비둘기떼들이 구구거리며 날아왔고 양지쪽 뒤뜰안에선 벌떼가 꿀을 물어들이느라 부지런히 붐뚱거렸다. 물음표처럼 목이 가웃한 의심많은 계사니들과 오리

들이 마당을 디뎛거렸으며 칭얼대기 잘하는 아이같은 목소리로 염소들이 우리마당을 통탕통탕 구르며 매매 울었다. 몸이 날수록 성미가 사나와지는듯 한 돼지들이 때를 잇고 소란스레 꿀꿀거리고 닭알 한알 낳고도 온 세상을 낳은듯이 소리치기 잘하는 암닭들의 꼬꼬댁소리와 이에 장단을 맞춘 우쭐한 수탉의 꼬기요소리가 집안팎을 들썩하게 울렸다. 멍멍이가 왈왈 짖고 고양이가 야옹했으며 토끼들이 두귀를 쫑긋거리며 아카시아잎사귀를 뜯어먹고있었다.

내가 태어났다는 도시의 훈향을 싣고 가끔 외삼촌의 승용차가 들이닥쳐 대문가에서 미안쩍은듯 뱅뱅거렸고 염소마리수가 배로 늘어났다는 기쁜 소식이 담긴 아버지의 짧은 편지와 함께 의외로 묵직한 소포가 도착하여 우리를 깜짝 놀래웠다. 큼직한 마대아구리를 헤쳐보니 갖가지 영양가높은 마른 풀들이 가득 들어있었는데 그것은 어머니에게 보내는 아버지의 지극하고도 다심한 류다른 사랑이였다.

우리 형제는 별찌내리는 밤마다 자기의 소원들을 가만히 속살거렸고 나날이 우리 집 바람벽에는 지원증서들과 함께 영광의 대회에 참가한 어머니의 기념사진이 한상, 두상 늘어났다. 어머니는 우리처럼 밤하늘을 쳐다보며 소원하기보다는 그 바람벽에 오래도록 서있는것을 더 좋아하는듯싶었다. 바로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며 우리는 커갔다.

3

나는 대학을 졸업했다. 몇년전 군사복무를 마치고 대학생이 된 나는 어릴적부터 그렇게도 소원하던 도시에서 공부하게 되었다. 농업대학 축산학부를 최우등으로 마친 졸업식날 나는 저도 모르게 어머니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문득 우리 형제가 중학교를 졸업하던 때의 일이 떠올랐다.

그날 저녁 밤을 지어놓고 어머니를 기다리던 우리는 팡거미가 내려앉는 마당으로 들어서서는 염소떼의 힘찬 발구름소리를 들었다. 우리는 방문을 열어젖히며 동시에 《어머니!》하고 불렀다.

어머니도 반색을 지었다.

《일호야, 두호야, 너희들의 중학교졸업을 축하한다.》

《어머니!》

《우리 염소들을 보렴. 너희들을 축하해서 목에 꽃들을 달았다.》

정말 염소들의 목에는 들꽃들이 꽃혀있었다.

하얗고 노랗고 보라빛나는 갖가지 들꽃들...

문득 즐겁고 기쁜 일이 있으면 짐승들에게 꽃을 달아주고 못되게 굴면 형겔이나 바오래기를 매주

던 어린시절이 떠오르면서 못 견디게 가슴을 아릿하게 했다.

《애들아, 어머니를 보렴. 나두 기빠서 머리에 꽃을 달았단다.》

정말 어머니의 머리에는 들국화 한송이가 꽃혀 있었다. 우리는 환성을 질렀다.

《야! 어머니! 참 멋있어요!》

어머니는 처녀시절처럼 수줍게 웃었다.

《야! 꽃을 단 어머니모습을 사진에 담았으면! 우리랑 함께!》

두호가 진짜로 아쉬워했다. 그것은 외삼촌이 가져다준 사진기를 공연히 뜯어보다가 망가뜨린 나에 대한 가벼운 질책이기도 했다. 어머니가 제격나의 따분한 처지를 구원해주었다.

《애들아, 사진이란건 찍어두었다가 잃어버릴수도 있고 세월이 흐르면 퇴색해지기도 하지만 마음속에 새겨놓은 모습은 죽을 때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단다. 우리 셋이서 이렇게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자꾸나. 꼭 사진기가 있어야 맛이겠니?》

《좋아요!》

우리는 동시에 소리쳤다. 어머니를 가운데 모시고 두리엔 염소들을 넣어놓고 사진찍듯 하고 서있었다.

《가만, 찍겠습니다. 좋습니다!》

두호가 사진사홍내를 내며 주의를 주자 내가 제격 입사타를 눌렀다.

《찰칵!》

서로서로 마주보며 소리내어 웃었다. 즐거운 저녁이었다.

식사를 마친 우리는 마당가에 모기쭈박을 피워놓고 둘러앉았다.

《이제 너희들이 군대에 나가게 됐으니... 세월 두 참! 이제 아버지가 아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니?》

문득 두호가 난처한듯 끼어들었다.

《사실 난... 신체검사에서... 미끄러졌어요.》

눈앞이 아득했다. 설마 했더니 끝내...

어릴적부터 골골 앓기 잘하는 두호가 체육시간마다 애플 먹는것은 때때로 보아왔지만 막상 신체검사에서 떨어질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었다.

그럴줄 알았으면 엄살을 피울 때 사정보지 말구 달리기랑, 철봉이랑 부지런히 시켰어야 하는건데...

그 순간 나는 활기에 넘쳐있던 어머니의 얼굴이 금시 컴컴해보이는걸 느꼈다.

《용서하세요, 어머니! 대신 전 군에서 조직한 돌격대에 나가기로 했어요.》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인민군대에 입대하는것이냐 돌격대에 나가 는것이냐 다 좋은 일이지만 이 어머니 어쩐지 마

음이 좀 서운하구나. 그래두 난 이제는 두 아들을 인민군대에 내보낸 후방가족으로 짐승들을 키우게 됐다구 속으로 무척 기뻐했는데, 그래서 힘도 더 날거라구 생각했는데...》

나는 어머니를 실망시킨 동생이 더없이 불만스러웠다. 두눈을 내리칸채 기척이 없던 두호가 부지중 눈길을 들었다.

《물론 어머니가 섭섭해하실줄 압니다. 아버지랑 형도... 저 역시 무척...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어찌겠나요? 이미 옆질러진 물사발인데... 대신 전 어머니를 곁에서 늘 도울수 있지 않나요? 난 형이 일단 집을 떠나면 다시 여기로 돌아올수 없으리란걸 알아요.》

나는 흠칫했다. 정통을 찔려온것이다.

물론 집을 떠난 다음 여기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본적은 한번도 없었다. 그렇다고 뗏목이 부인할수도 없는것은 무엇때문인가?

항변할 말을 찾지 못해 입술만 깨무는데 동생의 목소리가 절절히 울렸다.

《난 일생 어머니곁에서 떠나지 않을래요.》

나는 감동과 부끄러움을 동시에 느꼈다.

어릴적 별많은 밤하늘을 바라보면서도 그렇게 소원하던 동생! 나는 동생이 나이보다 그리고 이 형보다 훨씬 조숙하다는것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우리는 각기 제나름의 생각에 잠겨 묵묵히 앉아 있었다. 모기쭈박은 여전히 시름시름 타오르고 가끔 하늘에선 별찌가 떨어져내렸으나 누구도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다.

이윽도록 생각에 잠겨 앉아있던 어머니가 문득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후 어머니는 붉은 보자기를 안고나와 펼쳐놓았다.

우리 집안의 가보인 목도리가 우리앞에 펼쳐졌다.

세월의 풍파속에서 다슬어지고 퇴색해진 낡은 목도리! 그 목도리를 어머니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고 정히 보관해오느것은 무엇때문일까?!

목도리를 펼리는듯 한 손길로 쓸어보던 어머니가 차분한 목소리로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다.

《너희들도 이제는 다 자라 일하는 인민군대로, 두호는 돌격대로 떠난다니 이제는 이 목도리에 깃든 사연을 알아야 할것 같다.》

너희 외증조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는 조국광복회 회원들이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으나 우리는 깜짝 놀랐다. 외증조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들이 조국광복회 회원들이라니... 그럼?!

《이 목도리는 너희 외증조할아버지가 어느 겨울날 원호물자를 지고 항일빨찌산을 찾아갔을 때 한 녀대원이 준것이라나다.》

그 녀대원은 정성담아 만든 솜버선이며 좁쌀 등

원호물자들을 쓸어보다가 할아버지의 다 해진 토스레옷차림을 가슴아프게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아버님,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눈오는 산속에서 왜놈들과 싸우며 고생을 겪지만 이제 해방된 조국땅에서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고 잘살 날이 꼭 옵니다.〉

그러면서 그 녀대원은 자기의 목도리를 풀어 할아버지의 목에 둘러주었다. 할아버지가 펄쩍 뛰며 사양하려 하자 그 녀대원은 이 목도리가 비록 별다른 것이지만 인민들의 지성이 깃든 원호물자라고, 우리는 인민들의 그 마음에서 힘을 얻으며 싸운다고, 인민들의 그 뜨거운 마음이면 우리는 눈속에서도 얼지 않는다고 하면서 기어이 목도리를 둘러주었다.

그날 할아버지는 돌아오면서 자신들은 키를 넘는 폭설과 살을 에이는 강추위속에서 왜놈들과 싸우면서도 자신들보다 인민을 먼저 생각하는 **김일성**장군님의 부하들의 그 뜨거운 마음을 후덕게 느꼈다. 그래서 유격대원호사업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가했고... 자신뿐 아니라 자식들까지도 유격대를 돕는 사업에 내세웠단다. ...〉

우리는 온몸을 뒹구는 걱정에서 사로잡혀 말없이 어머니의 얼굴만 지켜보았다. 모기쑥불길이 어른거리는 어머니의 모습은 이밤따라 더없이 엄숙해보였다. 어머니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그후 포대에서 살던 너희 외증조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들은 〈해산사건〉이 터진 후 일제의 탄압을 피해 국내깊이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렇게 고향을 떠난 그분들은 조국이 해방된 후에도 아무런 내색도 없이 성실하게 살다 조용히 돌아가셨다.

림종을 앞두고 너희 할아버지가 우리 오누이를 불러왔고 하던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구나.

〈너희들의 마음을 내가 왜 모르겠니?〉

물론 너희 할아버지나 이 아버지가 항일빨찌산을 도와 적으나마 일한 건 사실이다. 아마 당에 찾아가면 항일혁명투쟁공로자로 떠받들리우고 대우도 받을 수 있겠지.

하지만 생각 좀 해보아라. 항일빨찌산들이 산에서 풍찬로숙하며 일제와 혈투를 벌리고 있을 때 그래도 우리는 따뜻한 제 집 구들우에서 죽이나마 굶지 않고 살았다. 그분들의 로고에 비하면야 우리가 한 일이 뭐 그리 큰 것이겠니.

백성으로서 웅당 해야 할 도리를 한 것뿐인데 그게 무슨 큰 자랑거리라구 찾아다니며 알아달라고 생색을 내겠느냐? 그때 조국이 해방된 후에 무슨 덕을 보겠대구 빨찌산을 원호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나라 잃은 백성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으니까.

그래 너희들은 부모에게 효성했다고 그 값을 계산하는 자식을 본 적이 있느냐?

애들아, 좋은 일 한 것은 한 가지라도 잊어버리구 해야 할 일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게 참된 백성의 도리이니라.

난 그저 너희들이 할아버지나 아버지를 토크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제힘으로, 제발로 걸어나가는 떳떳한 삶을 살기를 바랄 뿐이다.〉

일호야, 두호야, 난 너희들이 그분들의 뒤를 참답게 이어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을 하는 거란다.》

나도 두호도 어머니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무엇인가 격렬한 것이, 뜨겁고 열렬한 것이 심장으로 흘러들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우리는 그 낡은 목도리가 어떻게 우리 집안의 가보로 되었는가 하는 사연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의문은 아직도 남아 있었다. 어째서 그 가보가 아들인 외삼촌에게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에게 물려지게 되었는지, 외삼촌이 외할아버지를 노엽혔다는 것은 무슨 일 때문이었는지. ... 어머니에게 묻고 싶었으나 왜선지 선뜻 그렇게 되지 않았다.

며칠 후 오랜만에 집으로 온 아버지도 두호의 일을 알고는 몹시 섭섭해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대범하게 얼굴색을 고치고 우리 형제를 나란히 불러 앉혔다.

《이제부터 너희들에겐 각자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사람은 의존심을 버리구 살아야 배짱이 생기는 법이다. 어렵구 힘들 때마다 너희 어머니를 생각하거라. 사실 아름답고 훌륭한 건 이어져야 하는 건데 그것이 너희 어머니 모습으로만 끝나지 않겠는지. ... 하지만 이 아버진 너희들을 믿고 싶구나.

사내답게 한번 큰 소원들을 키워보거라. 소원이란 꿈과 희망이다. 꿈과 희망의 높이가 미래의 높이로 된다는 걸 한 시도 잊지 말어라.》

인츰 나는 군복을 입었다. 마을사람들 앞에서는 혼연히 인사하고 떠난 우리가 헤어지던 순간엔 왜 그리도 눈물을 견잡지 못했던지. ... 역시 한 뿌리에서 자란 두 아지, 우리는 쌍둥이였다.

《형, 잘 가!》

《두호야, 어머니를 잘 도와드려!》

우리 형제의 작별을 어머니와 아버지가 애정스민 눈으로 오래도록 지켜보았다.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다.

그 후 어머니에게서 자주 편지가 왔다.

《사랑하는 내 아들 일호야.

이 어머니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고 또다시 영광의 기념사진 촬영을 하였단다. 온 마을이 기뻐했다. 두호랑 네 아버지랑 와서 축하해주었고 너의 외삼촌에게서도 축하전화가 왔었다.

참, 두호는 지금 돌격대 후방부에서 일한단다. 돌격대에서 짐승 기르는 걸 자진해서 맡아 성과를 낸

다고 하더구나. 자긴 벌써부터 어머니 덕을 톡톡하게 입는다고 여간 좋아하지 않더라. 휴식날마다 집에 와서 풀을 산더미처럼 베놓고 가군 한단다.

그저 짬만 있으면 이 어밀 돕지 못해 애쓰는 그 애의 마음이 참 고맙다. 하지만 왜 그런지 마음은 좀 허전하구나.

난 이 어미 하나만을 위해 살라고 너희들을 키운게 아니다. 수리개는 하늘을 날고 암탉은 둥지를 지키는데 이걸 소원이 달랐기때문이라는 속담이 있지. 난 그 애가 둥지만 부둥켜안는 암탉이 될가봐 걱정이다. 일호야, 넌 꼭 수리개가 되거라. 조국이 다 아는 수리개같은 아들이.

조국에 보탬이 되는 일, 필요한 일을 할수만 있다면 설사 도시에 가서 산다고 해도 이 어머니를 찾지 않겠다. 아들이, 넌 부디 큰 소원을 안고 살아다오.》

어머니의 그 소원속에 나는 모범군인으로, 조선로동당원으로 자랐고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

내가 제대되어 대학생이 되자 두호는 좀 당황한 눈치였다. 아직도 돌격대 후방부서의 참모로 일하고있는 자기가 부끄러워난것 같았다.

어느 휴식날 집에 갔던 나는 동생이 어머니에게 응석을 부리듯 조르는것을 보았다.

《어머니 술한 건설장에 지원을 가면서두 이 아들이 있는 곳엔 한번두 안 오는군요. 이젠 우리 돌격대차레가 되지 않았나요?》

전에 없는 투정에 어머니가 빙그레 웃었다.

《두호야, 나두 자식을 가진 어머니인데 왜 네가 일하는 곳에 찾아가고픈 마음이 없었겠니?》

하지만 뭔가 자기 자식만을 위해 원심을 쓰는것 같아서 그리구 너희 돌격대지휘관들에게 아들을 잘 돌봐달라는 낮간지러운 부탁을 하는것 같아서 차마 가지 못하겠더구나.》

《그래두 한번쯤이야... 와주면 이 아들에게 좋은 일이 많겠는데...》

어머니는 동생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어쩐지 실망하는 기색이다. 문득 어머니의 이름만 대면 모든데서 특혜를 부여받곤 하던 어린시절이 떠오르면서 두호가 아직 그 철부지시절에서 벗어나지 못한듯 한 느낌마저 들었다. 내가 한마디 했다.

《두호야, 어머니의 말씀이 옳다. 정 지원을 하고싶으면 네 힘으로 하려무나.》

동생은 여전히 고개를 외로 튼채 대꾸가 없다. 나는 우리가 얼굴은 똑같지만 어릴적 서로 다른 옷을 찾아입던 그때처럼 오늘도 마음만은 서로 다르다는것을 뼈아프게 느꼈다.

한편 측은한 생각도 없지 않았다. 두호는 나의 대학생생활을 성심성의로 도와주지 않았던가. 기숙사에 한주일이 멀다하게 찾아와서는 꼭꼭 내 사

물함안에 간식꾸러미와 학용품을 넣어두고 가군 하였다. 기숙사동무들은 얼굴도 똑같지만 마음도 한치 간격이 없는 동생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었다. 더우기 아무리 형이라고 해도 나이가 똑같은 내가 벌써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으니 두호로서는 십분 자기 운명에 대한 걱정과 위구심이 갈마들지 않을수 없을것이였다. 리해는 하면서도 한편 이제는 오래동안 돌격대생활을 하는 두호가 왜 아직도 자기 위치를 떼뗀이 차지하지 못할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도 들었다.

휴식날을 함께 보내고 두호와 더불어 집을 나서면서 나는 이것저것 힘이 될 말을 골라서 해주었으나 두호는 여전히 시무룩한채 듣는듯마는듯 스택스적 걷기만 했다. 군과 도소재지로 갈라지는 갈림길에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네가 이래저래 기분이 저락된 모양인데 어디 다음번 일요일에 만나 진지하게 얘기해보자.》

나는 그 약속을 지킬수가 없었다. 졸업이 박두했던것이다. 졸업시험, 졸업론문통과!...

분과 초를 쪼개야만 하는 드바쁜 나날속에 최우등 총평이 찍힌 대학졸업증을 받을 때까지 나는 한번도 집에 가지 못하였다. 웬일인지 그리도 잘 찾아오던 동생마저 통 나타나지 않았었다.

졸업식을 한지도 며칠이 지나서야 나는 모교의 대학교원파견장을 품고 집으로 가게 되었다.

저물녘이였다. 뜻밖에도 집앞에는 한대의 탱크가 서있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려던 나는 토방에 앉아있는 어머니와 동생의 심상치 않은 대화에 걸음을 멈추었다.

《어머니! 지금 돌격대에서 새로 건설한 염소우리에 염소마리수가 부족합니다. 우에는 100여 마리라고 보고했는데 최근에 그만 전염병에 걸려 많이 죽다니니... 게다가 인츰 려단장동지가 염소사를 돌아보겠다는 련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구 또 생각하다가 이렇게... 어머니, 좀 도와주세요. 제가 돌격대에서 실적을 낼수 있게 말입니다.》

형은 대학까지 졸업했는데 난... 난... 아직도 이러고있으니... 네? 어머니!》

동생의 마지막말은 폭 수그린 고개밑에서 들리듯말듯 울려왔다. 한줌으로 줄아든듯 한 모습! 어머니는 흐릿해진 얼굴로 아들의 측은한 모습을 가슴아프게 내려다보고있었다.

《그래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느냐?》

《저... 제 이름으로 한번만 지원을...》

《그래 이 어미가 지원을 하면 그게 네 사업성파로 될수 있겠냐?》

《예! 아니 그런게 아니라 아무래두...》

어머니는 잠자코 앉아있었다. 순간 나는 어머니가 몹시도 늙었으며 이미 머리카락이 반백이 된것

을 새삼스럽게 알아보았다. 어머니는 아픔과 애정이 동시에 깃든 깊은 눈매로 마당을 둘러본다.

염소우리며 토끼우리, 돼지우리...

손때묻은 그 모든것과 말없이 작별하는듯 한 추연한 빛이 어머니의 눈가에 가득 어려있었다. 나는 어머니의 마음속에서 언제 한번 량심에 꺼린 일을 한적이 없는 미풍선구자로서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자식을 가진 어머니로서의 녀인이 모질게 싸우고있음을 느꼈다. 나는 가슴이 조마조마해서 어머니만 지켜보았다. 혈육으로서의 나의 인정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사정하고있었다.

(어머니! 한번만 도와주세요. 예? 한번만!)

어머니는 못박힌듯 서고만 있다. 모진 번민과 괴로움이 어머니의 온몸에서 풍겨나 마당을 짹 채우는듯 했다. 그 압박감에 나머지 숨이 가빠왔다.

어머니는 스르르 눈을 감았다.

가까스로 새어나오는 떨리는 목소리!

《두호야, 어서 가져가거라.》

《어머니!》

두호는 눈물이 그렇게서 어머니를 불렀다. 선뜻 움직이지 못한채 울먹이고있었다. 나는 동생이 왜 랭동차를 끌고 왔는지 그제야 깨도가 되었다.

이윽고 두호가 염소우리 문을 열고 제일 큰놈부터 끌어냈다. 불시에 그놈은 발을 번디디며 매에 애— 하고 처량하게 울었다. 염소들이 불안하게 술렁거린다. 나는 못 볼것을 본것처럼 고개를 돌려버렸다. 어머니도 부르르 몸을 떠는게 알렸다.

두호는 신경질적으로 염소고삐를 나꿔챘다.

《매애애!》

염소가 또 어머니를 향해 구원을 청하듯 울었다. 때를 같이하여 반란이라도 일으킨듯 염소들이 일제히 울어댔다.

그 순간 어머니가 눈을 떴다. 억지로 염소를 끌고나가는 동생을 지그시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빛에서 이상한것이 번뜩인것은 바로 이때였다. 나는 어머니의 눈구석에 고인 눈물을 보았다. 염소가 또 울었다.

《두호야!》

어머니는 나직이, 근엄하게 동생을 멈춰세웠다. 침착하게 다가가더니 그의 손에서 몹시도 힘겹게, 그러나 힘을 주어 염소고삐를 뽑아들었다.

《아무래도 안되겠다. 이제, 이제 진실로 너를 위한 일이 아닌것 같다.》

《예?!...》

두호는 킁킁하게 질린 얼굴로 어머니를 뵈히 쳐다본다.

《이런 오그랑수로 실적을 낼수도 없거니와 또 그렇게 성과를 낸들 그제 어떻게 떼뻬하겠니?》

두호의 두눈에서 이상한 광채가 번뜩이었다.

이윽고 목메인 부르짖음!

《어머니! 사회를 위해서 그토록 좋은 일을 많이 한 어머니가 이 아들을 위해서는 단 한번의 좋은 일도 못해준단 말입니까? 아무래도 지원할건데 제 아들을 위해 바치면 못쓰나 말입니다, 예?》

어머니는 가슴에 칼이라도 받은것처럼 흠뻑하고 서버렸다. 온몸을 사시나무떨듯 하고있었다.

《너를 위해서라면 이 에민 피도 살도 아니, 목숨까지도 바칠수 있다. 하지만 떼뻬치 못한 자기를 가리우기 위해서 이 에미가 필요하다면 가거라!... 그런 어머니는 없다!》

《너무합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해요!》

두호는 울부짖었다. 끝내 그의 얼굴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니는 모진 힘을 짜내듯 천천히 그러나 또박또박 준절히 뇌었다.

《내가 헛키웠구나, 헛키웠어. 똑똑히 알아두거라. 인간이 누구의 공로나 덕에 매달려 살아버릇하면 눈을 편히 뜨고있으면서도 청맹파니가 되고 제발을 가지고있으면서도 옳바로 걸어나갈수 없는 법이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매달리구 어머니는 남편이나 누구한테 매달리구. ... 넌 이제 인간생활이란거겠지? 하지만 우린 인간이면서도 이 나라의 공민이야. 자기것을 창조할줄 모르는 술한 더부살이들이 있다 한들 그제 나라에 무슨 힘이 되고 보탬이 되겠니? 두호야, 조국앞에 손바닥만 한것 한 가지라도 떼뻬한 자기의것을 가지고 살아라.》

어머니는 힘들게 돌아섰다. 바꾸니를 멘채 염소떼를 몰고 천천히 대문을 나섰다. 나는 말없이 한 옆으로 비켜섰다. 어머니는 나를 알아본듯 했으나 아무말없이 지나쳤다. 그 어떤 범상한 말을 함부로 건넬수 없는 알길 없는 위압감이 어머니의 온몸에서 풍겨오고있었다. 나는 이 순간 한 어머니가 아닌 이 땅의 가장 훌륭한 애국자를 보고있는 것이었다. 동생은 숨이 없는듯 한 얼굴로 서있다.

나는 뚜벅뚜벅 그앞에 다가갔다.

《형!...》

나는 놀란 동생의 얼굴을 말없이 뜯어보았다.

눈물자국으로 초췌해진 얼굴! 그 어떤 동정과 구원을 바라고있는듯 한 가련한 모습이다.

《가거라! 썩 사라져! 다시는 어머니앞에 나타나지 말아!》

《형!》

《넌 어릴 때나 지금이나 어머니의 노력과 명예가 가져다주는 그늘밑에서 너무 편안하게 살아왔다.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 됐어. 결국 어머니의 뒤를 잇겠다는것두 다 너자신을 위해서였지. 자기것을 가지구 조국에 복무할 능력과 의지가 너에겐 없었다!》

《왜 이래요? 예? 형까지 왜 이러나 말이에요?》

《아프지만 똑똑히 알아둬라. 넌 어머니에게는 소위 효자일지 모르겠지만 이 땅의 성실한 사

람들앞에는 불효자식이다. 저 염소떼를 몰고가는 녀인은 우리 어머니이기 전에… 애국자야! 어머니를 모욕하지 말아!》

나는 돌아섰다. 정신없이 어머니를 뒤쫓아갔다. 산굽이를 돌아서는 순간 나는 무참했다. 길녘의 나무를 끌어안고있는 어머니를 본 것이었다.

아픔과 고통에 물결치는듯 한 어머니의 어깨! 간간이 들려오는 억눌린듯 한 흐느낌소리…

어머니는 울고있었다. 모성애와 애국자의 량심사에서 모질게 싸워 끝내 자기를 이겨낸 어머니가 자식들이 보지 않고 사람들이 없는 곳에선 녀성이고 어머니인 자기 모습그대로 울고있는 것이었다.

불시에 눈앞이 확 흐려진다. 온 세상에 어머니의 그 모습 하나만이 커다랗게 짙어차있는듯싶다.

《어머니!》

나는 목청껏 소리쳐 불렀다. 나의 목소리가 산속에 메아리쳐간다. 가장 신성하고 아름다운 세계에 나도 들어서는듯 한 심정으로 어머니를 향해 정신없이 달려간다.

《어머니!—》

4

그날은 레사로운 날이었다. 어머니의 생일이라는것을 제외하면 말이다. 그날도 어머니는 염소떼를 몰고 방목을 나갔다. 생일을 쇠지 않겠다고 한 어머니였다. 같은 날에 생일을 맞지만 어머니를 먼저 축하해주겠다고 외삼촌이 나와 함께 왔다. 뒤따라 동생도 들어섰다. 행동차와 함께 사라진 이후로 두번째로 보는 동생이었다.

그때 가슴아프게 두호와 헤어진 뒤 대학으로 돌아오다가 나는 삼촌의 공장에 잠깐 들렀었다. 모교의 교원이 되었다는 소식을 뒤늦게나마 알고 싶었던 것이다.

뜻밖에도 정문밖에 낮익은 행동차가 서있었다.

아니나다를까 삼촌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있던 두호가 나를 보자 바빠맞은 기색이었다.

삼촌은 별로 심각해진 얼굴로 나를 맞았다.

《일호로구나. 잘 왔다. 두호에게 무슨 얘기를 하나 들려주려던 참인데 마침이다. 너도 함께 들어라.》 하고 삼촌은 비교적 긴 이야기를 시작했다.

《수십여년전 일이다. 어떤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야 그 할아버지가 조국광복회 회원으로서 많은 일을 해놓았다는걸 알았다.

그 사람은 당장 할아버지의 공로를 인정받자구 해당 기관에 찾아가려고 했단다. 몹시 기뻐하면서 말이다. 그런데 그 사람의 아버지가 엄하게 꾸중했지. 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도 그 공로를 인정받자고 하는가? 본인조차 물어두어온것을 손자가 이제 와서 무엇때문에 들춰내려고 하는가?

그 사람은 뼈꼭소리 한마디 못했다. 사실 할아버지의 공로를 빛내구 편안하게 살자고, 그 덕을 봐서 발전하자고 했으니깐 결국 그 할아버지의 공로는 할아버지인생에는 필요없었지만 그 후대의 인생에는 절실히 필요한셈이었지. 그 후로 그 사람의 아버지는 그를 못 미더워했구 종당에는 집안의 가보도 넘겨주지 않았단다.》

외삼촌의 얼굴에 한동안 침통한 빛이 어렸다.

《일호야, 두호야, 이제 와서 무얼 숨기겠니?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이렇게 되어 우리 집안의 가보인 그 목도리는 결국 너의 어머니에게 물려지게 되었지.》

《?!…》

나와 두호는 놀랍게 삼촌을 바라보았다.

《두호야, 리해해다오. 그래서 더욱 너를 도와줄수 없구나. 왜냐면 우리 두호가 두번 다시 이 삼촌처럼 헛되게 살아서는 안되기때문이다.》

우리는 한동안 가깝 앓고 굳어져있었다. 두호의 검붉어진 얼굴에서 경련이 이는듯싶었다. …

그렇게 서로 헤어진 후로 처음 보는 동생이다.

어쩐지 풀이 죽은 인상이었고 말도 잘하지 않았다. 사람을 잘 따르는 비둘기만이 오랜만에 모여든 식구들을 보고 반가웁다는듯 구구거렸다.

문득 대문을 지키고있던 토실이가 왕왕왕 짖어댔다. 뒤미처 대문방울이 팡팡! 하고 운다.

《이 집이 리영희어머님택임니까?》

큼직한 지함을 든채 돌격대체복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섰다. 그뒤로 따라서는 낮모를 사람들!

《오늘이 어머님 생일이지요? 우린 어머니가 늘 찾아오는 ×××건설장의 돌격대원들입니다.》

반가웠다. 그뒤로 따라선 농장일꾼들이며 기타와 손풍금을 멘 농장청년들 그리고 정든 이웃들…

《자, 우리 어머니가 오기 전에 제격 생일상을 차립시다.》

눈굽이 저려왔다. 어머니가 저렇듯 많은 사람들의 신뢰속에 살고있었다는것이 선뜻 믿어지지 않았다. 마당에 명석을 몇개나 내다 깔고 보기 드물게 크고 화려한 생일상을 차리는 사이 나와 두호는 약속이나 한듯 꼬꼬대이며 뽀뽀이, 뽀뽀이 지어는 토실이며 강아지들의 목에까지 알락달락한 색천으로 꽃땀기를 달아주었다. 사기난 동네애들이 오글복작 떠들며 똥깃똥깃 달아나는 놈들을 붙잡아대느라고 야단법석이다. 우리는 소시적의 동심에 사로잡혀 죄다 시끄럽다는듯 꼬리를 사타구니짬에 끼운채 지붕우에서 가르릉거리는 야옹이란 놈까지 빠짐없이 잡아 경축땀기를 매주었다.

바로 이때 어머니가 머리에 풀단을 인채 염소떼를 몰고 들어섰다.

《어머니!》

모인 사람들이 거의 동시에 존경을 담아 불렀

다. 내가 머리에서 풀임을 내리워드렸다. 어머니의 머리에 풀단에서 떨어진듯 한 한송이의 들국화가 묻어 유난히도 빛났다. 어쩌면 어머니는 것처럼 연연하고 억세인 한송이 들국화인듯! 나는 그 들국화송이를 치우지 않았다.

《어머니! 생일을 축하합니다!》

합창하듯 울리는 목소리! 때를 같이하여 알락달락한 꽃땀기를 단 오리며, 계사니, 메추리들이 어머니주위에 다가들며 요란스레 저마끔 울어댔다.

《하, 저 말 못하는 미물들도 어머니 생일만은 알아보는 모양이구려.》

《거 축하의 레포소리같은게 참 듣기 좋다!》

와— 웃음판이 터졌다. 어머니는 그저 놀람과 기쁨, 감동에 겨워 어쩔바를 모른다.

《아니 이건 어찌자구… 어찌자구…》

어머니는 자꾸 더듬거렸다. 사람들이 어머니를 에워싸고 생일상으로 이끌었다. 축하가 오가고 그다음엔 노래가 울렸다. 춤도 추었다.

축하의 분위기가 한창 고조에 올랐을 때 한대의 승용차가 우리 집 가까이에 와 멎었다. 거기서 한 사람이 내렸다. 도당일군이라고 자기 소개를 한 그는 어머니를 축하하고나서 무엇인가 물었다.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던 그 일군은 우리를 둘러보며 말했다.

《이거 기쁜 날에 미안하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저하고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아들들도 외삼촌도 같이 갑시다.》

영문도 모른채 차에 올랐고 잠시후 군당청사에 도착했다.

당중앙위원회일군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는 한동안 어머니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리영희동지! 고향이 포태가 맞습니까?》

《예.》

어머니는 영거주춤 일어섰다.

《아, 앉으십시오.》

일군은 한껏 긴장된 어머니를 안심시키는듯 한 따뜻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는 언제인가 리명수, 포태지구를 현지도하시면서 자신께서는 백두산에서 싸울 때 이 지방 인민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감회깊이 회고하시면서 그 고마운 사람들을 다 찾아낼데 대하여 말씀하시였습니다.》

아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받들고 해당 부문에서는 그 투쟁내용을 발굴고증하기 위하여 오래동안 애써왔습니다. 그러다가 얼마전에야 리영희동지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투쟁자료를 고증할수 있었습니다.》

《예?!…》

모두들 놀랐다. 다만 어머니만이 고개를 짓수곳하고 말없이 앉아있었다.

《그때로부터 세월도 많이 흐르고 그때의 진실을 아는 사람들도 많이 우리결을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고증이 늦어졌습니다. 더우기 본인들이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있었기때문에…

하지만 우리 당은 그들의 공로를 잊지 않고있었습니다.

조국에 바친 공로는 그것이 설사 티끌같은것이라고 해도 산같이 내세워주고싶어하시는분이 바로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오늘 당중앙위원회의 위임에 의하여 리영희동지의 할아버지인 리병무동지와 아버지인 리용수동지들이 조국광복회 회원으로 잘 싸운 반일 애국렬사들임을 알려드립니다.》

너무도 뜻밖에 닥쳐온 영광! 가슴이 벅차올라 쓰러질것만 같았다. 어머니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일군의 목소리가 계속 울렸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혁명가의 혁명정신은 결코 저절로 이어지는것이 아니라고 간곡하게 가르쳐주시였습니다. 한생을 조국과 혁명을 위해 성실하게 바치고도 그 어떤 평가나 보수도 바람이 없이 조용히 살다가 세상을 떠난 리영희동지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도 훌륭하지만 가정의 그 가풍을 지켜 한생을 그분들처럼 산 리영희동지는 또 얼마나 훌륭합니까.》

《!…》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공로자 리병무, 리용수동지들에게 반일애국렬사증을 수여하는것과 함께 수십년세월 오직 당을 믿고 사회와 집단을 위해 많은 일을 한 리영희동지를 선군시대 공로자로 내세워줄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세찬 감격으로 심장이 터져나갈듯 하였다.

나도 두호도 외삼촌도 크나큰 격정에 휩싸여 아무말도 못하고 그저 서있기만 하였다.

《혹—》

문득 어머니가 어깨를 세차게 떨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거친 손등위에 맑은 눈물방울이 점점이 떨어졌다.

어머니는 고개를 들고 어딘가 멀리를 바라보며 목메여 목메여 부르짖었다.

《아…버…지!…》

×

모기쑥불은 알싸하고도 향긋한 내를 피우며 타고있었다. 건드리면 자르르 소리가 울릴듯싶게 땅땅 여문 못별들이 밤하늘에 가득찼다.

아버지와 외삼촌을 비롯한 온 가족이 마당에 나와앉아있었다.

오직 스스로 종아리를 걷어올린 두호만이 회초리를 든채 마당가에서 그냥 흐느끼고있었다.

어머니에게 어릴 때처럼 되게 종아리를 쳐달라고 애원하던 목소리가 아직도 귀가에 쟁쟁하다.

우리는 두호에게 아프고도 진실한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가 그것을 이해하고 잘못 건기 시작한 자기의 인생을 바로잡을수 있겠는지는 아직 알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통통 부어오른 눈을 감추지 못한채 두호가 중얼거린 말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난 결국 어머니에게도, 조국앞에도 필요없는 존재였습니다. 자기의것을 가지고 조국에 기여하는 생이 되지 못하면 결국 어머니에게도 효성할수 없다는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누구의 그늘 밑에서 기생하는 존재가 아니라 조국의 짐을 메고 제것을 창조해나가는 참된 인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두호를 믿고싶었다. 어쨌든 두호는 달리는 살수 없는 혁명가의 피줄이 아닌가.

나와 두호는 어머니의 무릎위에 놓여있는 우리 집안의 가보— 목도리를 오래도록 지켜보았다. 지

난 세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하많은 사연을 안고 우리에게 많은것을 말해주고있는 목도리, 우리는 세월의 흐름속에서도 그에 깃든 선렬들의 넋을 지켜갈것이다.

우리는 하많은 생각에 잠겨 별많은 조국의 밤하늘을 오래도록 쳐다보았다. 불쑥 내가 물었다.

《두호야, 생각나니? 어머니가 우리들이 다 큰 다음에 말해주겠다던?...》

《소원 말이지?...》

《응, 그게 무엇이었던지 이제야 알것 같애.》

두호도 머리를 끄덕이였다.

《어머니가 여적 말하지 않은건 우리스스로가 깨닫길 바래서였어.》

《옳아, 나두 그렇게 생각해.》

우리는 두손을 짜악 맞잡았다.

문득 밤하늘 한끝에서 길고 빛나는 꼬리를 끌며 별찌가 떨어져내렸다.

이글이글 빛꼬리를 밝히며 살같이 날아지나는 별찌! 순간 우리는 마음속으로, 아니 온 세상에 대고 소리높이 웨쳤다.

《어머니처럼 살겠습니다. 어머니처럼! 어머니처럼!》

상 식

식민주의가 낳은 인종들

16세기로부터 시작된 유럽식민주의자들의 아프리카와 아메리카에로의 대대적인 침입은 새로운 인종들을 만들어내게 하였다.

그 대표적인 인종들은 다음과 같다.

① 메스티소(메티스)— 백인과 아메리카원주민인 인디안사이에 생겨난 혼혈인들이다. 메스티소란 말은 라틴어의 《혼혈》이란 단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현재 브라파이인구의 80%이상을 차지하고있으며 페루, 콜롬비아, 볼리비아 등의 주민구성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② 몰라트— 백인과 아프리카흑인사이에 생겨난 혼혈인이다. 몰라트란 말은 라틴어 《노새》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③ 샴보— 흑인과 몰라트 혹은 아메리카원주민들과의 혼혈인을 말한다. 서유럽식민주의자들이 아프리카의 흑인노예들을 아메리카로 끌어오면서 생겨난것이다.

④ 크레올—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남부에 이주해와서 수백년간 살면서 비록 혼혈은 되지 않았어도 종래의 백인과 달라진 프랑스, 에스빠냐계의 백인들의 후손들을 말한다.

상 식

대륙간탄도미싸일

대륙간탄도미싸일은 지구의 한 대륙으로부터 다른 대륙에 있는 임의의 목표를 타격하는 탄도미싸일이다. 이 미싸일은 최신과학기술성파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가장 위력한 타격수단의 하나이다.

대륙간탄도미싸일의 사거리는 보통 700~13 000km이며 발동기가 완전히 멎는 순간의 속도는 7.9km/s정도이고 체일 높이 비행하는 고도는 1 000km이상이다.

대륙간탄도미싸일은 1계단으로 되어있는것이 아니라 다계단으로 되어있다.

이 미싸일은 주체46(1957)년에 이전 쏘련에서 처음으로 개발하였다.

대륙간탄도미싸일에는 아주 위력한 폭발력을 가진 핵탄두를 보통 3~12개 설치한다. 매개 탄두는 서로 갈라져 각이하게 폭발하는데 이러한 탄두를 다란두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대륙간탄도미싸일에 설치한 핵탄두는 목표물상공의 일정한 높이에서 공중폭발한다.

대륙간탄도미싸일은 보통 땅속의 수직갱도에 서 발사한다.

어느 한 나라에서 개발한 대륙간탄도미싸일의 사거리는 11 000km이고 질량은 86t이며 핵탄두는 10~12개 설치하게 되어있다.

우리의 주인공들은 젊다

한 미 영

새해의 청신한 기운과 더불어 바야흐로 다가오는 강성대국의 휘황한 앞날을 창조해가는 우리 인민들의 투쟁과 생활은 더욱더 줄기차게 흐른다.

그 생활의 바다속에서 그 인간들의 투쟁모습을 훌륭히 재현해가고있는 작가들의 무대 《조선문학》잡지에 발표된 소설들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은 제나름으로 각이하다.

우리 강좌의 경우만 보더라도 교수, 박사계렬의 지숙한분들은 관록있는 소설가의 이름을 먼저 찾는다. 그와 반대로 우리 젊은 축들은 처음 등장하는 새 이름들에 시선을 박는다.

론쟁도 각이하다.

나이든분들은 은근히 소설의 무게에 대하여 가늠하고 젊은 축들은 떠들면서 참신, 예리, 기교 등에 대해 종횡으로 누빈다.

《조선문학》잡지에 갓 오른 새 이름들에 대한 우리의 일가견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선다.

《조선문학》잡지에 뿌리를 박고 거목으로 자라자면 《모살이》기간을 반드시 거치게 된다.

《모살이》기간은 짧으면서도 본격적이다.

신인의 문력은 금방 넘어섰으나 대가가 되기에 아직 먼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공정은 거의 운명적이랄만치 심각하다.

그러나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모살이》의 《진통》을 맞받아 곧바로 간다.

《조선문학》잡지의 래일을 보다 멀리 내다보는 사람들은 오늘에 이미 고개숙인 이삭보다 한창 《모살이》하는 그네들의 거동을 눈주어본다.

자립의 길에 들어선 미래의 중견들,

그들을 한사람이라도 더 찾아내어 등을 두드리고 손을 다잡아 내세우자는것이 오늘 이 글의 목적이다. 아울러 그들과 어깨를 견준 우리 젊은 문예학자들의 발걸음을 스스로 재촉하자는데도 소박한 의도가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운동의 매 단계 총화사업은 창작된 작품의 질과 량에 기본을 두고 진행하여야 하며 좋은 작품을 쓴 작가들을 운동의 선구자로 적극 내세워야 한다.》

이 땅의 방방곡곡으로 드넓은 《조선문학》의 대지우에는 한두해어간에 벌써 새 사람들의 새 발자국이 여럿이나 찍혔다.

그중 포렷한 발자국으로는 단편소설 《나의 불빛》과 더불어 인상적인 전은심, 단편소설 《내 고향은 아름답다》를 쓴 김홍균을 꼽게 되고 제일

두드러지기로는 단편소설 《다시 찾은 열쇠》와 《나래를 퍼덕이라》를 련이어 창작한 김경일을 들게 된다.

그들은 《조선문학》잡지의 지면에서 제나름의 장끼들을 보여주었으며 아울러 《모살이》기간의 《진통》도 모두 제나름으로 겪고있다.

그 각이한 장끼와 각이한 《진통》을 간단간단히 적어보려 한다.

《쌍둥이자매》

《나의 불빛》이라는 제목으로 작품을 발표한 은심이 펼친 은아(주인공)의 이야기는 담담하고 섬세하다.

샘이라면 웅달샘이라 할것이다.

추억과 추억이 마치 웅달샘마냥 풍풍 솟구쳐여 하나의 소설을 이루는...

부언컨대 이 필자에게 잊을번 한 추억이란 없는 듯싶다.

학령전 유년기부터 대학졸업에 이르기까지의 지가지 추억들을 스케취정도로가 아니라 세부적으로 채색하여 참신하게 펼친 이야기솜씨는 매우 달변적이다.

어른이 펼치는 아이적의 이야기라지만 동심이 여전하여 매력적이고 대학생처녀들중에서도 시를 알고 노래를 아는 처녀의 이야기여서 짙은 여운을 자아낸다.

《아버지, 이것 봐. 시금치네 엄만 이렇게 자기네 아이들을 많이 엮구있는데 뭐.》—《나》—은아의 《착상》은 잠들었던 수많은 동심들을 흔들어 깨운다.

《그 창가에 다시 서고싶어요. 거기에 서서 어릴적의 목소리로 속삭이고싶어요.

사랑을 알고 조국을 알게 해준 나의 창가여! 거기에 올리던 나의 노래를 기억해주렴.》—《나》—은아의 《시》는 지성인의 독백으로서 깊은 사색을 불러일으킨다.

한마디로 시를 아는 사람이라 말하고싶다.

한생 소설을 쓰고도 즙을 내지 못하는 소설가들이 없지 않아 있다.

긴 장편을 쓰고도 일화 하나, 세부 하나 남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 초면의 필자에게는 즙이 있고 일화가 있고 세부가 있다.

이것은 많은것을 시사해준다.

이 걸음으로 중편에로의 길에도 능히 접어들수

있을것이다.

아쉬운 점으로 이 소설에서 섬세한 묘사와 풍부한 이야기는 있으나 단편적기교는 아직 짙이지 않는다.

만약 단편의 능수가 되는것이 목표라면 생활적 단면의 포착과 형상의 집약, 집중에 모를 박아야 할것이다.

총적으로 묘사의 문학, 이야기의 문학이라는 소설의 본도에 깊숙이 뿌리내린것으로 하여 이 《모》의 장래는 확정적이다.

《생활은 어쩌면 이다지도 아름다운것일가요? 전 하루빨리 이 생활의 바다속에 풍덩 뛰어들어 마음껏 나의 노래를 부르고싶어요.》- 아직도 귀가에 쟁쟁한 은아의 열편 부르짖음.

주인공 은아이자 필자 은심이라는 집작은 이제 와서 거의 사실로 되고있다.

쌍둥이자매-은심과 은아는 서로 터놓으며 서로를 추동한다.

그때. 처녀소설가여, 어서!

생활의 바다를 향하여 어서!

그 바다의 한복판에 너의 엄마가 지켜주고 조국과 시대가 지켜준 소설의 등대가 있는데야 무슨 주저가 있으랴.

아름다운 내 고향- 생활의 한복판에서

가장 최근에 김홍균이 쓴 단편소설 《내 고향은 아름답다》는 문자그대로 한쪽의 풍경화를 방불케 한다.

보다 적실하게는 여러첩으로 나뉘어지면서도 하나로 이어지는 현대의 민속병풍도라 해야 할것이다.

이 소설은 최전연초소에서 원쑤와의 격전끝에 부상을 당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영예군인청년 오철윤과 바로 그 고향처녀 로귀향이 뜻깊은 백년가약을 맺는 결혼식날 하루동안에 벌어진 다채로운 이야기를 소재로 하고있다.

영예군인과의 결혼이야기라면 대체로 이성간의 감정조직이 기본으로 되면서 청혼, 거절, 고민 등의 공정이 치차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식의 꾸밈새가 보통이어서 때로는 실화를 읽는듯 하다는 비평도 받는다.

이 소설은 그런 상투적꾸밈새와는 전혀 다르게 엮여졌다.

우선 《도대체 조국을 위해 바친 삶이 불행하다는게 말이 되느냐,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오철윤과 《나는 그가 훌륭하기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하는 로귀향이 사이는 더 따져볼나위없이 훌륭하고 지어 부러울 정도이다.

상식을 초월한 격이 높은 설정으로 하여 소설전반의 양상문제가 대번에 풀렸다.

밝고 아름다운 양상을 휘어잡은 작가는 이 행복한 한쌍을 축하하기 위하여 온 하루 제나름으로 들끓는 인봉사람들을 그리기 시작했다.

몇사람을 그럴것인가. 다 그러야 한다, 군당 책임비서부터 시작하여 오로인, 양반장, 장안순, 병원의사, 동창, 나중엔 동리 조무래기들까지, 아니 사람뿐아니라 닭, 토끼, 강아지에 이르기까지.

이 술한 대상을 어떻게 그럴것인가, 방법이 있다. 굶거나 가는 선, 진하거나 연한 선, 크고작은 점, 파줄것은 파주고 스칠것은 스치고 돌구거나 깎거나...

묘사속도는 어떻게 정할것인가, 물론 단편이니만치 빨라야 할것이다. 되도록이면 단뿔질로,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이는 실로 과중한 요구가 아닐수 없다.

그러나 작가의 자세를 보면 믿음이 간다.

그는 귀가 번쩍 열리거나 눈이 덩들해지는 놀라운 사건이나 비범한 인물을 찾아 숙절없이 애쓰거나 덤비지 않는다. (소재를 취하는 자세)

그는 평범한 생활속에 깊숙이 틀고앉아 생활의 동음(지어 소음에 이르기까지)에 침착히 귀기울이고 그 다채로운 모양을 찬찬히 들여다본다.

고향과 고향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때는 멀리서 부감하고 어떤 때는 가까이에서 투시한다.

전체적으로는 시대의 숨결로 뿜이는 고향사람들의 심장의 박동소리를 듣고 구체적으로는 사랑과 인정으로 뭉쳐진 참다운 인간교향곡을 듣는다.

이렇게 그려진 고향에 대한 속사는 얼마나 소박하고 또 아름다운가.

꼭두새벽부터 조무래기들이 《신랑》, 《신부》 눈사람을 만들고, 애들이 만든 얼음판에 영치를 짓짖은 오로인이 허허 웃으며 영금영금 일어나고, 눈천지에 꽃을 꺾어오겠다며 둘러리로 당선된 천학술이는 자전거바퀴로 눈가루를 휘말아올리며 읊으로 다우치고, 온 농장이 달라불어 짓고 꾸리고 다듬은 영예군인 새집에는 사람보다 닭, 토끼, 강아지가 먼저 《입사》하고, 입담 세고 눈썰미 빠르고 너자일, 남자일 한것새 제끼는 장안순이는 배가 끊기도록 사람들을 웃기고, 군당책임비서로부터 농장원, 지나가던 사람들까지 한덩어리가 되어 길옆 수렁에 미끄러져 들어가는 발전설비를 실은 차를 구해내고, 신부와 그 본조, 온 작업반이 또 한덩이가 되어 막개펄 니탄캐기와 운반을 멋들어지게 끝내고...

그 술한 사람들이 큰일 제끼 후련함을 안고 결혼식집에 축하하러 가는... 그야말로 장판이 아닐수 없다.

온 하루동안에 웅근 한단락으로 개성을 드러내놓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중에는 한줄, 지어 한두단어로 얼굴을 내여민 사람도 있다. 사람들이 아름다와 산천이 아름다와지는 선군시대 고향풍경.

이 지구상에 오직 하나뿐인 장군님의 한식술풍경! 소설은 비교적 성공하였다고 생각한다.

물론 부족점도 있다.

소설의 가장 중요한 인물인 로귀향의 성격이 약화된것이다. 그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다투어 개성화된데 비해 기본인물 로귀향의 매력은 살아나지 않는다.

《좀해 소리내어 웃을줄 모르는 귀향》, 《말이 적고 마음씨가 고운》 귀향으로 그린것은 범박하기 그지없다.

《나는 그가 훌륭하기때문에 사랑한다.》고 떳떳이 말하는 처녀이고 결혼식날에도 한두시간 여유가 아까와 분조가 일하는 막개필로 종종걸음을 치는 귀향이고보면 그 개성이 《말이 적고 마음씨가 고운》 정도를 훨씬 벗어날것이 분명한데...

로귀향의 개성이 상투적인 평가로 국한된 점을 반드시 잊지 말고 극복하여야 할것이다. 결국 주선문제이며 중점문제이다.

단편소설 《내 고향은 아름답다》를 통하여 우리는 가까운 래일의 거목을 본다.

인간에 대한, 시대에 대한 송가로 하여 소설가의 미래는 또한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래를 퍼덕인다

단편소설 《다시 찾은 열쇠》에서 선을 보이고 이번에 두번째로 《나래를 퍼덕이라》를 내놓은 젊은 작가의 모습이 보인다.

한해어간에 그는 또 전진하였다.

무엇보다 평가할것은 예리한 사회적문제의 제기 와 단편적기교의 런마이다.

그의 두 작품에서 우리는 소설가의 날카로운 시선을 동시에 느낀다.

《기사동무처럼 꼭 제 공장 신발을 신어야만 맞인가요?》(명미의 반발)

《난 좋게 생각했는데요. 설계자들이 고급신발을 많이 신어봐야 그 특성을 잘 파악할수 있지 않을까요?》(철운의 방어, 실은 맵잔 공격이다.)

제집 신발장에 수입제 고급신발 몇켤레를 《진렬》하도록 하고 그 가운데 자기 공장에서 만든 구두가 하나도 없음을 별로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던 명미에게 있어서 철운의 미소 낄 이 말은 날선 비수가 아닐수 없다.

《자기를 확신하는 초연한 눈빛... 당당해서 참 보기가 좋소.》(명미에게 향한 철운의 평가)

《아이참... 기사동무에겐 그런 자부심이 없나요?》

《자부심보다는 의문이 더 많지. ...

내가 무엇을 할수 있는가. 무엇이 부족한가. 내 능력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명미의 감탄표와 대조되는 철운의 물음표)

스스로 엮은 채찍으로 자신의 삶을 부단히 재촉하는 철운과 그와 늘 나란히 걸으면서도 실은 제자리걸음밖에 할줄 모르는 명미사이의 얼마나 먼 것인가.

이런 식의 문제제기로 하여 이 소설은 맵짜고 당돌하면서도 의미심장한 질감을 준다. 그런가하면 간편한 형상구조속에서 날카로운 사회적문제를

숨씨있게 풀고 뒤이어 여운있는 결말을 재빨리 따라세우는 기교도 매력있다.

《다시 만나서 정말 기뻐요. 우리가 잃었던 열쇠를 찾아준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요. 그렇지요?...》(《다시 찾은 열쇠》의 마감)

《부를테니 적어줘요. ... 5분동안 포장길을 달렸음. 앞코 원형선심부분 변형 없다. ... 중창의 탄력 좋았다. ... 뒤굽높이 0.1낮출것, 아이 아파...》

(《나래를 퍼덕이라》의 마감)

두 단편의 마감은 다 두 처녀의 천진스러우면서도 의미있는 대사로 처리되는데 그 형식은 매우 새롭고 발견적이다. 고민, 갈등을 전제로 하는 심각한 사회적문제가 뜻밖에도 질은 랑만과 결합되어 이채롭게 풀리는 모양도 특색이요 지성적인 두 남녀가 말로는 서로 충돌하면서도 내심으론 계속 가까워지는 과정도 제격이다.

소설가는 분명 《단편의 능수》에로의 길에 접근하고있다.

하다면 이제 무엇을 할수 있는가. 무엇이 부족한가, 소설가에게 물음표를 제시한다. 이 시각부터 소설가는 마땅히 도식을 경계해야 할것이다.

두 소설은 비교적 둘 다 성공적이나 벌써 약간의 도식이 감촉된다.

앞서 인용한 두 처녀의 대사는 서로 다른 소설의 두 대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투나 양상이 비슷하지 않는가.

이는 맹목하게 보아 동일한 《개성》이라는 결론을 짓게 한다.

동일한 《개성》이란 있을수 없다. 소설가는 이에서 재빨리 탈피해야 한다.

새로운 문제, 새로운 개성을 찾으라.

지금은 시점인물이 계속 처녀인데 시점인물부터 달리할수 있을것이다. 그다음은 주인공...

어쨌든 기본문제는 해결한셈이다.

이 소설가에게서 《운명적인 모살이》는 거의 끝나가고있다.

《좀 보오 저 담찬 기상... 명미동문 날개를 접고 날아오르는 새를 본적이 있소? 그런 새는 세상에 없소. 또 하늘을 날던 새도 날개짓을 멈추면 오래 견디지 못하지. 돌덩이처럼 곤두박힐테니까. ...》

이는 명미를 사정없이 채찍질하는 철운의 말이다. 아울러 이것이 소설가 자신이 자기 몸에 안기는 스스로의 채찍이라 믿고싶다.

나래를 퍼덕이는 젊은 작가여.

더 높이 오르라. 더 세차게 퍼덕이라.

x

자, 보시라.

우리의 주인공들은 젊다.

무엇보다도 《젊다》는 그것이 우리를 든든하게 하고있다.

굴할줄 모르는 정신력으로

불철주야의 희생적인 정신력으로 장편소설 《석개울의 새봄》 제3부를 끝낸 작가 천세봉은 숨들릴 틈도 없이 즉시 새 장편소설 《대하는 흐른다》 제1부 창작에 진입하였다.

집안식구들과 동지들이 작가의 과로를 걱정하며 당분간이나마의 휴식을 권고했지만 작가의 불같은 정열을 막아낼수 없었다.

어떻게 구상되었던 소설이었던가.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가 열린 그날 작가는 몹시 흥분된 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역사적인 보고를 청취하였다.

모든 작가들이 그러하였던것처럼 천세봉도 여기서 자기 문학의 전과정을 돌이켜보았다. 그는 이날부터 또 새 장편소설을 쓸것을 결심하고 해방된 그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조국의 역사를 더듬어보았다.

돌이켜보건대 이 시기는 참으로 인민의 성장이 대하와 같이 도도히 흐른 영광에 찬 역사가 아닌가.

그런데 이 흐름을 이끌고 간 그 위대한 사상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이 아니었던가.

작가는 자기의 새 장편소설에서 우리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이 가지는 역사적의의를 서사시적으로 천명하려고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작가는 늘 보아오던 《**김일성**선집》을 새로운 각도에서 다시 새겨읽었고 고전작품들도 읽으면서 작가적력량을 축적하였다.

드디어 창작에 착수하였다.

매일 50~60매, 아니 어떤 때에는 지어 90매까지 원고를 써나갔다. 그런데 1 000여매까지 원고가 이르렀을 때 작가에게 그만 오래전부터 앓던 위병이 도졌다. 심한 출혈로 작가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눈이 펄펄 내리는 밤길을 달려온 군병원의사들이 작가의 상태를 보고는 이런 말을 하였다.

《꼭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 쓰면 1년도 지탱해낼수 없습니다.》

또 앞집의 의사는 맥을 짚어보고 더 험악한 소리를 하였다. 50살을 못 넘기고 작고할것이라

는것이였다. 그때 작가의 나이는 47살이였다. 하긴 당시 장신의 작가의 몸무게가 48키로그램이 되나마나하였다니 그런 소리들이 나을만도 하였다. 하지만 작가는 몽롱한 의식속에서도 기어이 창작을 해야 한다는 량심의 목소리만은 똑똑히 듣고있었다. 위대한 사상, 위대한 로선을 따라 력사의 대하로 전진하는 조국과 주인공들의 모습이 못 견디게 머릿속에 떠올라 쓰지 않고서는 도무지 견디어 낼수가 없었다.

작가는 자리에서 겨우 일어나 원고지를 찾았다. 그러나 원고지는 어머니가 어디에다 감춰놓았는지 한장도 찾아볼수 없었다. 늘 하던 버릇대로 작가는 쪼그리고 앉아 신문지 여백에다 떠오르는 생각을 쓰기 시작하였다. 이것을 본 어머니가 눈물이 글썽하여 말없이 원고지를 내놓아주었다.

작가는 자리에 누워 팔에를 불렀다.

《자, 내가 부를게 받아써라.》

소설은 다시 씌여지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하여 단 두달만에 장편소설 《대하는 흐른다》의 제1부 3 000여매의 초고가 끝났다.

장편소설 《고난의 력사》를 쓸 때도 그랬다.

평안남도 강서군 약수리의 한 농가집 옷방에서 이순이가 팔려가는 장면을 쓰고있었는데 혈압이 갑자기 높아지더니 열이 뛰어올라 작가는 고열상태에서 헤매이게 되었다.

옆에서들 깜짝 놀라 황황히 평양에 알리였다. 얼마 안있어 평양에서 의사들이 내려와 당장 평양 병원으로 들어가자고 소동을 피웠다. 그러나 그는 래일 들어갈테니 먼저 가보라고 겨우 설복해서 의사들을 돌려보냈다. 그 착하고 불쌍한 이순이를 생각하니 도무지 붓을 놓고 돌아설수 없다는 작가의 말에 모두들 눈물이 글썽하여 물러섰던것이다.

이렇게 작가는 끝내 장편소설 《고난의 력사》 제1부를 끝내고야말았다.

수령의 문학, 당의 문학을 건설하는 과정에 발휘한 선배작가들의 불굴의 정신력은 오늘 위대한 선군문학을 건설하는 우리 작가들에게도 귀중한 모범으로 된다.

김 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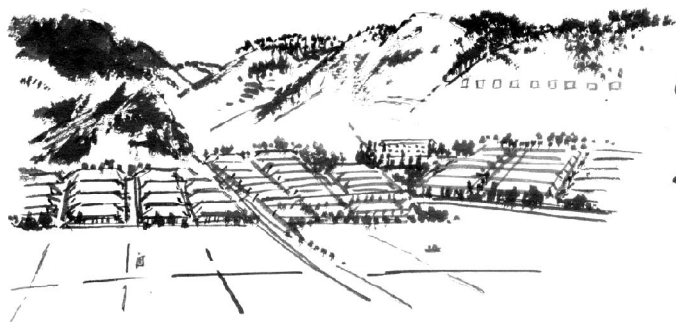
신인의 문력은 넘어섰지만 대가가 되기엔 아직 먼 사람들이라고 일부러 기웃거리는 축도 있으나 우리의 젊은 소설가들은 배짱있게 전진하고있다.

2012년으로 마주보이는 강성대국의 령마루를 향

하여 《조선문학》의 지면에 떠받들려 도도히 내닫는 젊은 주인공들에게 문단은 무엇을 줄것인가.

뜨거운 고무, 격려, 준절하고 예리한 비판...

이는 우리 젊은 문예학자들도 스스로 바라느바 임을 덧붙이며 펜을 놓는다.



아름다운 저녁노을

리 통 운

리영석이 양흥리 관리위원장으로 임명받은 것은 자신으로서도 뜻밖이었다. 평양에 있는 중앙농업일군양성기관을 졸업하고 오니 배치장이 그를 기다리고있었다.

하긴 십여년전부터 양흥리와 인연을 맺고있는 영석이다. 군대에서 제대되어 농업대학을 졸업하고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 있으면서 다년간 양흥리를 담당하고있었던것이다. 지금도 어느 자그마한 오솔길이며 그 길옆의 주먹만 한 돌맹이까지도 눈감고 알아맞출수 있다. 자기를 이곳에 배치한것도 모름지기 그때문이라.

몇년만에 와보니 산천은 예나 다름없는데 농장은 눈이 번쩍 뜨이게 달라졌다.

이전에 왕골대만 무성했던 저기 벌귀통이 수령관이 네모반듯한 양어장으로 변했다. 《장수원》이라는 번듯한 간판을 지붕우에 얹은 리종합편의 건물도 그때는 자그마한 《7》자형의 단층건물이었다. 아마 마을뒤에 병풍처럼 둘러선 장수산에서 파다불인 이름이라. 그 장수산기슭에 새로 준비하게 들어왔던 수십동의 살림집들은 이곳 관리위원회 마당에서도 환히 건너다보인다. 집집마다 메탄가스가 되고 목욕탕까지 달렸다고 한다.

거기서 한마장쯤 떨어진 곳에는 농장축사를 마치 자를 대고 그어놓은듯 여려줄로 앉혀놓았다. 일전에 가보니 칸칸이 소쌍같은 돼지들이 꿀꿀거리고 염소까지도 한마당 씨글거렸다. 영석이 떠날때는 한창 기초파기를 하더랬는데...

농장 축산을 추켜세우느라 무던히도 애를 쓰던 이전 관리위원장 강찬익이 끝내 해낸것이라.

영석은 그런것들을 볼수록 강찬익의 수고가 가슴 빠근한 무게로 안겨왔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 일종의 죄스러움을 금할수 없었다. 남이 품들어 꾸린 풍성한 살림을 통채로 타고앉은것 같아서였다.

예순도 썩 넘긴 그가 농장을 이처럼 꾸리기 위해 얼마나 마음썼는가를 하는것을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도 영석은 가늠할수 있었다.

오늘 오전 한것이면 인계사업이 완전히 끝난다. 닷새나 한주일이면 끝날줄 알았던 인계사업이 예상외로 열흘남짓이 걸렸다.

농장재산중에 전동기나사못 한개라도 빠뜨릴세라 찬익은 마치 깨종자 골라주듯 하였다.

더우기 토지인계때에는... 토지인계는 별에서 눈두렁을 따라가며 매 포전별로 진행되었다.

《...이것 보우. 여기가 바로 위원장당무가 떠난 해에 진흙갈이를 해준 땅이요. 그런데 그새 모래기운이 또 많아졌구만. 늦어도 내년쯤엔 또...》

리에서 그중 유촉진 삼개마을에 올라갔을 때 찬익은 한웅큼 쥔 흙을 손끝으로 헤쳐보이며 말했다. 여기서만도 웅근 한것이 걸렸다.

그러다나니 영석은 리안의 땅에 대해 포전별로 필지별로 손금보듯 훑하니 알수 있었다. 현지답사에 지친 몸으로 사무실로 돌아와서는 또 밤늦도록 문진인계사업이 진행되었다.

젊은 자기가 다 빠근한데 년로한 찬익이 얼마나 고단하랴 하는 생각도 들었으나 그에게서는 조금도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장부에 적힌 자그마한 소수점아래의 수자들까지 꼭꼭 짚어가며 마치 잠든 아이 머리칼 세듯 하였다.

몇년만에 다시 만난 찬익이지만 한생을 땅기운에 절어 그런지 이전과 별반 다름이 없었다. 껍두룩하니 큰 키에 이전보다 좀 마르긴 했어도 그의 몸에서는 여전히 노가지나무와 같은 강단이 느껴졌다.

퇴직을 앞둔 그를 두고 마을사람들속에서도 말이 분분했다. 그중에서도 제일 그럴사한 말이 찬익이 곧 자식들에게로 옮겨가리라는것이였다.

그에게 두 아들이 있다는것은 영석이기도 알고있는바이다. 맏이는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 처장사업을 하고 둘째는 제대군관으로 어느 광산의 후방부에서 일한다고 했다. 두 아들이 모두 일찌기 집을 떠나고 언제 보나 호젓한 그의 집은 안해까지도 중학교 수학교원이어서 늘 비어있었다싶이 하였다.

《글쎄 아들 둘씩이나 끝날같이 키웠으면 뭘 하나요? 이젠 머느리들한테 지칭구 한마디 할 일이 있겠나 손자애들 기저귀 한번 주물러보겠나.

그이는 밤낮 일만 일이라고 나가살지요.

형감과 내가 겨끔내기로 나가살다나니 집살림이란게 말이 아니예요.》

이전에 찬익의 안해는 영석을 만나기만 하면 곧잘 이런 푸념을 하곤 했다. 그때부러도 영석에 대해 혈분이처럼 각근하던 녀인이었다.

누가 말했던가?! 가정은 변함없는 마음의 정화지이고 삶의 의미를 항시적으로 느끼게 하는 행복의 터전이라고.

이런 의미에서 찬익은 한생에 그런 생활을 별로 누려보지 못하였다. 영석이기도 그것을 잘 안다.

한생토록 오직 땅만을 알고 그 땅을 잘 가꾸어 더 많은 낱알을 내기 위해 자기를 바쳐온 강찬익이다.

그럴수록 영석은 이 사업인계를 신중하게 대하였고 어찌보면 잔소리같기도 한 찬익의 말 한마디도 주의깊게 들었다.

그런 영석의 마음속에 느닷없이 불안의 그림자가 던져지게 되었다. 무엇때문인지.

현재 리안의 열세개 작업반에서 부은 벼모파상수면 해당 모내기면적에 충분하다. 한견으로는 흙보산비료생산용 니탄케기도 끝났고 기계화반에서 하고있는 석대의 프락토르수리도 이번주내로 끝날것이다. 참, 보수분조에서 말아하던 유치원보수가 엇그제부터 중지되었다.

리병원뒤의 넓은 공지에 현대감이 나게 2층으로 올려지는 유치원지붕은 원래 청색스페트를 씌우게 되였었다.

그런걸 마감단계에 이른 지금에 와서 강찬익이 중지시켰는데 원인은 다름아니라 지붕을 조선식합각지붕으로 해야겠다는것이였다.

《새 주인과 사전토의두 없이 그렇게 했수다.

아무래두 그게 좋을것 같아서... 리당비서동무두도에 강습가면서 내 의견에 찬성합디다.》

찬익의 그 말에 영석은 난처한 기색을 지었다.

《참 아바이두, 유치원보수문제야 아바이가 발기하고 내밀던건데 아무래두...》

《뒤에서 말들이 많을게요. 늙은게 또 변덕을 부린다구, 허허.》

찬익은 웅색해하는 영석의 립장을 능처주려는듯 꺾꺾 웃었다.

어차피 합각지붕으로 하자면 이미 완성된 수평식지붕골조를 새롭게 뜯어고쳐야 한다. 그러자면 시간도 시간이려니와 기와가 문제다.

...바로 그날 그들은 토지인계때문에 삼개마을에 올라갔었다. 그들이 어느 발머리에선가 새로 짜야 할 배수로문제를 의논하고있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났다. 돌아보니 이전부터 푹눕이나 익은 보수분조장 유춘학이였다.

작달막한 키에 희끗희끗한 고수머리가 훌어져 내린 이마밑으로 만만치 않아보이는 눈빛이 자기들을 바라보았다. 빠른 걸음으로 다가온 그는 영석에게 수인사를 건네고나서 대뜸 찬익에게 말했다.

《유치원지붕 말이웨다. 아까 헤어져가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타산이 서질 않수다. 우선 더 들어가야 할 목재량부러가...》

찌글서한 눈길로 바라보던 찬익이 채 들어보지도 않고 그의 말허리를 분질렀다.

《왜? 마을제분소뒤에 쌓아둔 목재량이면 꽤 됴지하던데.》

《예? 아니 그거야...》

뭔가 들여다보는듯 한 찬익의 눈길을 마주보던 보수분조장은 웬 까닭인지 낮빛이 데친 문어처럼 되어 고개를 돌렸다.

《이건 참, 쌓아둔 나무 쓸일이 없을라구...》

뿔이 언짢은듯 쏙얼대던 그의 말은 맥없이 찾아버렸다. 영석이 보매 그들 둘사이에는 상하급의 관계를 초월한 그 어떤 친밀감이 깃들어있었다.

《이것 보라구. 임자두 손자애들 둘씩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나. 이왕이면 좀더 품을 들여서 그 애들앞에 떼떽하게 지어주면 좋지 않나.》

그래도 유춘학의 낮빛은 개운치 않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도전하는 투로 물었다.

《참, 도에 있는 만이한테 인차 갈거라고들 하던데. 그건 무슨 말이요?》

찬익은 그 말이 별로 놀랍지 않은듯 되물었다.

《그런 말은 어디서 들었나?》

《아낙네들이 수군거리는데 귀결에 들었수다.》

《임자두 늙었군. 동네녀인들 말에까지 귀를 기울이게 됐으니...》

시카스르듯 하는 찬익의 말에 유춘학은 씩－ 웃어버렸다.

《사업인계를 끝내고는 우리한테나 나오시우. 이전에 새집들을 지을 때처럼 매일 코맛대구 옥신각신해보게스리...》

그는 더 론할것도 없다는듯 팔을 허공에 젖더니 올라온 길을 되짚어내려갔다.

딱 바라진 어깨로 하여 박달나무밑동같은 그의 뒤모습을 이윽히 바라보던 두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허허 웃었다. ...

그러나 그 유치원지붕이 지금처럼 마음을 번거롭히는 원인은 아니였다. 그러면...

×

어제 저녁이였다. 새땅찾기계획서까지 인계한 후 찬익은 우득우득 소리가 나도록 두 어깨를 쭉

렸다.

《오늘 저녁엔 우리 집에 가지요. 우리 로친이 나한테 책망이 대단해. 새 위원장이 온 뒤로 여적 일에만 파묻어두었다구. … 아마 뭘 좀 차렸을게요.》

영석은 군말없이 따라나섰다. 오후내껏 사무실에 들어박혀 그렇지 않아도 영치에 쫓겨 쫓기던 터였다. 두사람은 어깨나란히 길가에 나섰다.

찬익은 우정 길을 에돌아 영대천제방쪽으로 접어들었다.

참으로 봄날다운 봄날이었다. 마을로 곧추 뻗은 동쪽길은 한적한데 눈색이물이 흘러들어 풍만하게 늪실대는 영대천물우에는 흰구름이 거꾸로 잠겨흘렀다. 봄물이 파랗게 오른 뽕나무술너머 누군가가 불러제끼는 《민들레 곱게 피는 고향의 언덕에…》하는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좋은데요. 참 멋있습니다. 땅두 기름지구…》

영석은 새삼스레 산천을 휘돌러보며 말하였다. 그러면서 마을을 향해 심호흡을 하듯 두팔을 힘껏 벌렸다.

《땅이야 뭐… 좋지요.》

찬익은 히끗이 웃었다. 다른 칭찬은 몰라도 땅이 좋다는 말에는 늘 입이 벌싹해지는 그였다.

《지난해에는 수확이 팬찮았소. 덕화, 천제 같은데서는 벌써 여러차례 최고수확을 냈는데 우린 근간에 처음이요.》

영석은 어쩐지 찬익의 그 말이 마음에 들었다.

흔히 자랑은 과장하고 허물은 감추려 한다. 오직 자기 힘에 대한 믿음과 락관에 넘친 사람만이 저렇듯 자기를 드러낼 용기를 가진다.

찬익의 구부정하고 긴 팔, 휘우듬한 어깨는 농사일로 한뼉을 보낸 실농군의 자부심을 당당히 과시하는듯 했다. 검실검실하고 구레나룻이 덮인 얼굴과 작을사한 눈에 비해 우뚝하게 큰 코는 고집스럽고 결패있는 그의 성격의 일면을 엿보게 했다. 그런 그를 보느라니 이곳 양흥리에 내려와 며칠 후에 있는 일이 생각났다.

…그날도 두사람이 마주앉아 인계사업을 하다가 찬익이 불쑥 창가로 다가서며 날씨걱정을 했다.

칭찬한 하늘을 바라보며 의아해하는 영석에게 찬익은 마을의 한켠끝을 손으로 가리켰다.

《저기 자개등마루에 구름장이 걸려 재미난 일이 한번도 없었소.》

그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아닌게아니라 지평선 끝의 산허리들에 바람꽃이 새뽕양게 내돋았다.

찬익은 아침에 사업조직을 하면서 모판들에 대한 보은대책을 각별히 강조하지 못한것을 후회하였다. 한낮이 되면서 바람은 더 기승을 부리었다.

우려하던바는 마침내 닥쳐오고야말았다.

오후에 접어들어 눈깜빡할 사이에 북서풍으로

돌변한 바람은 드넓은 벌판을 온통 휩쓸었다.

재빛하늘아래 부영게 드러난 자개등판으로부터 쏟아져내리는 바람은 얼음장같이 차가웠다.

모든것이 일시 중단되고 바람과의 싸움에 온 벌판이 펼쳐나섰다. 여러 작업반을 돌아 6반에 이른 두사람은 자기들이 때맞추 왔다고 생각했다. 바람막이바자를 기술규정보다 훨씬 넓게 들렀을뿐더러 어떤 모판의 새끼그물은 눈에 띄게 성글었다. 관리위원회에서 멀리 떨어진 작업반이어서 그런지 영석이 보기에도 거슬리는것이 많았다.

찬익은 불달린 수닭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는 6반반장을 불러 당장 시정하도록 엄포를 놓는 한편 선자리를 발뒤축으로 쿵쿵 굴렀다.

《파오.》

지레대를 집어든 반장은 울상이 되었다. 말뚝감이 없다는것이다.

《무슨 소릴 하는거요?》

영석이 저도 모르게 언성을 높였다. 방금전에 작업반실앞을 지나오면서 산더미처럼 가려진 나무더미를 보았던것이다.

《그건 저… 집재목감으루…》

반장은 어물거리며 말끝을 흐렸다. 집작이 가는 일이었다. 보나마나 욕심많은 6반반장이 집재목감으로 따로 내놓았을것이다.

《그만큼 알곡생산에 선차적힘을 돌려야 한다구 귀에 못이 박히게 일렀는데… 어서 내오게.》

《저…》

《내오라지 않소.》

찬익은 고집스레 되뇌었다.

그는 반장의 손에서 지레대를 앗아들고 힘껏 땅에 들이박으며 중얼거렸다.

《흠, 누가 방풍목으로 제집 서까래 절겠단다구. 하긴 저 6반반장이 사람은 팬찮소. 일욕심두 있구, 내밀성두 있구. 때로 그 욕심이 도가 지나쳐서 야단이긴 하지만…》

그날 저녁 관리위원회로 돌아오며 찬익은 몇번이고 시름에 겨워 곱씹었다.

《사람들두, 언제면 다 채심할가, 언제면…》

세월의 흐름에 모났던 사람의 성격도 다스려진다고 한다. 그러나 그날 영석은 예나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없는 강찬익을 보았다. …

지금도 찬익은 물날은 솜옷주머니에 두손을 지르고 무슨 생각엔지 골똘해있었다.

침묵이 지겨운듯 영석이 먼저 물었다.

《그래,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말해놓고보니 영석은 적중한것을 물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에 이곳에 내려와서도 느낀바이지만 그렇듯 많은 일을 한 선임관리위원장의 앞으로의 생활을 자기가 관심하는것은 웅당한것이였다. 영석의 물음에 찬익은 느슨한 웃음을 지었다.

《...내가 이 나이에 뭘 더 하겠대구...》

《참 아바이두, 바로 그 나이가 중요한게 아녜니까? 누구나 쉽게 터득할수 없는 경험이며 방식들이 그 나이속에 있거던요. 나이가 사람을 먹는게 아니라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지 않습니까.》

영석은 저도 모르게 말소리를 높여가며 그의 말을 시정해주었다. 그런데 그 말에 찬익이 그렇게 기뻐할줄이야.

《정말 고맙소, 그렇게 생각해줘서...》

그는 마치 아이들이 무엇인가 하기 전에 앞서 어른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었을 때와 같은 표정이었다. 스적스적 내짚던 걸음마저 활기차보였다.

길을 따라 펼쳐졌던 뽕밭이 끝나는 곳에 이르러 찬익은 무춤 걸음을 멈추었다.

그의 시선이 미치는 곳을 보니 일매지던 뽕밭두렁 한귀퉁이가 해토에 설익은 설기처럼 무너져버려 밭그레한 뽕나무뿌리가 거의다 드러나있었다.

찬익은 말없이 쭈그리고앉아 흘러내린 흙을 정성스레 떠올렸다. 양지쪽인데다 봄바람에 걸마른 흙이어서 잘 붙어있으려 하지 않았다.

곁에서 보던 영석이 얼른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영대천기슭의 물이 줄줄 흐르는 흙을 두손가득 떠왔다. 손마친다는 찬익의 만류도 마다하고 영석은 영대천가를 서너번 더 오갔다.

《이젠 됐소.》

잔뿌리 하나 보일세라 물질을 해가며 무너졌던 자리를 정성스레 손질해주고난 찬익의 얼굴에 만족스런 웃음이 한껏 어리었다.

그리고는 파리끼레한 새움이 막 눈을 뜨려는 나무아지를 흙물은 손으로 조심히 어루만졌다. 이런 때 보면 마치 장하게 자라는 손자앞에 선 다심한 할아버지같았다.

어둑어둑해서야 찬익의 집에 이르니 한손에 지집칼을 든 안주인이 반색을 하며 달려나왔다.

《아니, 오셨으면 집에서부터 들릴노릇이지.

원, 이젠 어려워서 마주서 인사두 못하겠어요.》

예순고개를 바라보는 나이답지 않게 얼굴이 불을 켜듯 환한 안주인이 진심으로 반가와하며 수선을 떨었다. 이태전에 교편을 놓고 집에 들어왔다더니 보기 좋게 몸까지 나서 여불없이 평범한 농촌아낙네였다.

《무슨 학위논문까지 발표했대지요? 정말 수고했어요. 우리 령감이 손꼽아 기다리더니...》

녀인의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영석은 자기가 졸업하기 바쁘게 배치되어온 까닭이 어렴풋이 짐작되었다.

《쫓쫓, 그만 노숙부리구 어서 상이나 차리우.》

토끼장안에 마른 풀 한줌 넣어주고 돌아서며 찬익은 편잔하듯 말하였다.

부엌에 들어갔던 찬익의 안해가 곧 김이 모락모

락 피어오르는 국자를 들고나와 남편앞에 내밀었다.

《이거 맛 좀 봐주시우. 원, 찐지 싱거운지 어디...》

찬익은 안해의 뜻밖의 행동에 아연한 낮빛으로 영석이쪽을 바라보았다. 뜨거운 국물을 꿀꺽 삼키고 눈물이 그렇게있는 남편을 바라보는 안해의 실주름이 영성한 눈가에 따뜻한 미소가 어리었다. 그것을 바라보는 영석의 가슴도 화로를 안은듯 훈훈해왔다.

두 자식을 일찌기 내놓고 아직도 가슴속에 차고 넘치는 정을 남편에게라도 기울이고싶어하는 녀성고유의 애뜻함을 보았던것이다.

《여보, 아까 철이 예비한테서 전화가 왔댔수다.》

방안에서 성의껏 차린 상을 마주하고 두어순배 돌았을 때 사이문새로 안주인의 얼굴이 나타났다.

《말이가? 무슨 일로?!》

찬익의 뜨아한 표정에 그의 안해는 뻔한걸 묻는다는듯 말했다.

《왜라니요. 이젠 사업인제두 다 끝났다니 아예 함께 올라가자는거지요.》

영석은 저도 모르는새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강구었다. 웬일인지 찬익은 이 말을 듣고도 덤덤히 앉아있었다.

《그래 당신은 뭐랬소?》

한참 지나서야 하는 남편의 물음에 안해는 신이 나서 대답했다.

《아, 어쩔게 있어요? 아버지도 찬성하실거라구 했지요. 원, 세상에 손자가 학교 다니도록 머리 한번 빗겨주지 못한 할미가 어디 있답니까?》

찬익은 아무 대꾸도 없이 앞에 놓인 잔을 들어쭈크 비웠다.

《그래, 어찌실려우?》

안해의 성화는 불같았다.

《당신 젊은 사람들 생각도 좀 해줘야지, 령감이 곁에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오금저려 맘놓구 일하겠소?》

이 말을 들으며 영석은 전에 보수분조장이 찬익에게 따지듯 하던 말이 생각났다. 말이한테 가려는것이 사실인가고... 그러니 결코 무근거한 말은 아니었다. 또 이렇게 앞장을 쳐가며 남편의 마음을 든장질하는 안주인의 수에는 혀를 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도 묵묵부답인 남편을 답답한 눈으로 바라보던 찬익의 안해는 상우의 빈 접시를 들고 부엌으로 내려갔다. 조금 있다 부엌에서 무엇을 엮질렀는지 《에그머니.》 하고 기겁한 소리가 들렸다. 그편을 기웃이 건너다보는 찬익의 눈앞에 그의 안해는 뭔가 흙물이 똑똑 떨어지는걸 내들었다.

《아까부터 묻자던건데 이진 뭐요?》

《그게 앵두나무모요. 아직 밤날씨엔 얼겠기에.》

《이건 뭘하자구?...》

《뭘하다니, 심지!》

《아니, 이 많은걸 어디다?...》

《잘 전사해두오. 다 심을데가 있으니.》

남편의 단마디 말에 그의 안해는 불만스런 기색을 가무리지 못하며 잉그르 돌아섰다.

자식들이 당장 부모들을 모시러 오겠다는데 남편이 이런 말을 하는것이 제 듣기에도 가당치 않았던것이다. 음식이 담긴 접시를 들고 다시 방으로 올라온 안주인은 남편의 곁에 더 바짝 다가앉으며 칭원하듯 말했다.

《도대체 어쩌시려우?... 자식들 성의두 생각 해줘야지. 지금 철이 에미가 당신 오면 주겠다구 좋은 낚시대두 하나 장만해두었답디다.》

그는 드림없이 앉아있는 남편의 기색을 살피며 은근한 어조로 뒤를 보낸다.

《왜, 우리두 늘그막에 손자들 앞세우구 유보도 랑 좀 거닐어보세다래.》

어린애 젖 조르는듯 한 눈빛으로 꿈꾸듯 하는 안해의 말에 찬익은 허거픈 웃음을 지었다.

《흠, 로친이 로망을 하는군, 이 나이에 무슨...》

《왜요. 나두 텔레비죤으루 다 봤어요.》

불그레한 눈확을 껌벅이며 안해를 바라보던 찬익은 그런 안해의 심정이 리해되었던지 슬며시 눈길을 떨구었다.

밤이 깊어 자고 가라고 붙잡는 주인내외의 성의를 굳이 마다하고 영석은 밤길에 나섰다. 방금 본 가정분위기로 보아 두 량주가 할 말이 좀 많으라는 생각에서였다.

이른봄이라 밤공기는 무척 쌀쌀했다.

고요한 마을에는 개짖는 소리가 간단없이 들리는데 뉘집 대문앞에서는 한쌍의 검은 그림자가 나란히 서있다가 인기척에 소스라쳐 허둥지둥했다. 그들의 발치에 앉았던 검정개가 허리를 펴며 위협적으로 낮게 으르렁거렸다.

영석은 어둠속에서 빙긋이 웃으며 눈에 띄는대로 옆의 소로길로 접어들었다.

이밤따라 유난히도 많은 별이 떠서 새실새실 웃었다. 그걸 보느라니 불현듯 읍에 두고온 가족들이 그리워났다. 방금 소학교에 입학한 딸이 더욱 보고싶었다. 복숭아처럼 숨털이 보시시한 얼굴에 등에 진 책가방을 달랑거리며 무척도 귀염을 자아내던 딸애였다. 그사이 더 자랐을것이다.

못 본것이 열흘남짓한데 마치 해를 넘긴것 같다. 그러느라니 방금전 자식들에게로 가길 그리도 조르던 찬익의 안해의 심정이 절로 리해되었다.

들어보면 그러루한 말이 어제오늘사이 있는것 같지도 않다. 멀리 둔 자식들을 그리는 애모쁜 심정은 아마 그들부부가 자기보다 더할것이다.

그런 안해에게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는 찬익의

심정이야 또 오죽하랴. 쉽사리 훌 떠나기에는 너무도 많은것을 여기에 남겨놓은 그가 아닌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러다 혹시 하는 위구심이 갈마들었다. 그럴만한 일이 있었던것이다.

...어느날 아침 관리위원회마당에 들어서던 영석은 뜻밖의 광경을 목격하였다.

널직한 마당의 한쪽변두리를 따라 줄느런히 심어져있던 단벚나무들이 무참하게 밀등이 베어져 여기저기 덩굴고있는것이 아닌가. 흰 속살이 드러나도록 찢겨진 나무가지들중에는 잎눈마다 봄기운이 뽕뽕하게 잡힌것도 있었다. 어수선한 마당 저편에서는 먼저 출근한 회계장이며 지령원 같은 사람들이 마지막나무를 금시 넘겨뜨리고있었다.

《그만하오. 이게 무슨짓들이요?》

영석은 그만 저도 모르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 바람에 나무를 찍던 사람들은 물론 다듬은 아지를 날라가던 회계원처녀도 깜짝 놀라 쳐다보았다. 영석은 당장 험한 기상이 되어 그들에게 다가갔다. 이 나무들이 어떤 나무들인가. 바로 강찬익이 수십년전 관리위원장사업을 시작하면서 제손으로 직접 심은 나무들이 아닌가.

그리고는 제손으로 가꾼 열매를 사람들에게 맛보이면서 즐겨 말하곤 했다.

《어떤가? 맛있지?》

영석이도 이전에 이 나무밑에 서서 달고 새콤한 그 열매를 맛보았다. 이새와 허끝에 스며드는 그 감미로움에 한눈을 질로 실그리는 모양을 재밌스럽게 바라보며 그때에도 찬익은 물었다.

《어떤가? 맛있지?》

한마디로 이것은 나무이기 전에 찬익의 한생을 함축하여 지닌 상징과도 같은것이였다.

그래서 이전에 관리위원회건물을 다시 옮겨지면서도 이 나무들만은 그대로 고이 옮겨다 심었다고 한다.

《이 나무들은 왜 찍는거요? 누가 이런 지시를 했소?》

채차 다우쳐묻는 영석의 앞에 엉거주춤 서고만 있을뿐 누구도 선뜻 대답을 못했다.

《그만하오. 내가 먼저 시작한 일ियो.》

등뒤에서 나는 말소리에 뒤돌아보니 뜻밖에도 강찬익이 아닌가.

(아니?!)

《뒤해전부터 보자니 이게 필요없이 열매만 가득 맺었지 알이 영 보잘것없습디다.

그 맛도 이전같지 않구. 과일나무라는게 늙으면 그런다우. 그밑에 새로 심은 나무들에 되려 그늘이나 쫓지 없는것만 못하더란 말ियो.》

너무도 혼연히 하는 그의 말에 영석은 속으로 놀랐다. 판에는 일리도 있는듯 하나 어쨌든 좀 지나친 처사인듯 하여 뭔가 한마디 하려던 영석은

그만 입을 다물어버렸다.

깊은 생각에 잠긴 그의 눈길에 갓 베어낸 나무 그루터기를 바라보고있었던것이다. 하얀 나무속살 위에 또렷이 새겨진 선홍색년륜, 그 사이마다 뽕 질뽕 질 내돋히는 진한 나무진...

한참 그것을 바라보던 찬익이 제게로 향한 영석의 시선과 부딪치자 입가에 게면쩍은 웃음을 지었다. 그것은 그 어떤 마음속 번민과 싸우던 사람이 본의아니게 자기의 심중을 남에게 드러내보였을 때 짓게 되는 그런 웃음이었다.

《음, 올해부터 이 어린 나무들이 시원하겠군.

지나해랑 보자니 확실히 어린 나무 열매맛이 썩 낫더라니.》

찬익은 누구에게라없이 이렇게 말하며 사무실 쪽으로 휘적휘적 걸어갔다. ...

강찬익의 그때의 그 행동을 음미해볼수록 혹시 그가 정말로 안해의 말을 따라 이곳을 뜨려는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부지중 갈마들었다.

년로한 부모들이 자식들에게로 가는것은 웅당한 것이고 찬익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영석은 찬익이 그냥 여기에 남아있어주기를 더 바랐다. 자기 혼자 이 큰 농장살림을 떠맡기에는 좀 힘에 부치리라는 생각에서였다. 찬익은 영석에게 있어서 마음놓고 기댈수 있는 든든한 담벽이나 같았다. 이러한 영석의 심리적허전함이 점차 알지 못할 불안감으로 환기되어 이 아침까지도 그의 마음에 야릇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

오늘따라 찬익은 거의 중낮이 되어서야 나타났다. 별로 희색이 만면하여 방에 들어서는걸 보니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가싶다.

그는 들어서는 길로 제잡담 영석의 앞에 마주앉았다.

《위원장동무, 내 오늘 찾아뵈소.》

《찾아내다니요, 뭘...》

《거 있잖소, 앵두나무발자릴 찾아뵈단 말이요.》

갑자기 앵두나무라니, 이건 무슨 소린가.

어리둥절해하는 영석에게 찬익은 서둘러 말했다.

《삼밭골 파수반 말이요. 그 어귀에 이전에 병원에서 약초밭을 꾸렸드랬소. 이제 가보니 거의 이백평이나 될 땅이 온 한해 묵여 잡초가 범 새 끼치겠더군. 내 오는 길에 병원에 들러 원장한테 물었더니 왜 그런지 그 땅에 약초가 잘 안되네. 그래 판데로 약초밭을 옮겼다는만.》

영석은 종이장우에 서투르게 지형까지 그려가며 흥에 겨워 설명하는 찬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갑자기 그가 왜 이렇듯 앵두나무에 관심을 두는지 선뜻 리해가 되지 않았다. 어제 저녁 그의 집

에서도 앵두나무모퉁이를 보지 않았던가.

영석의 이런 생각을 넘겨짚은 찬익이 그만 열적게 얼굴을 붉혔다.

《위원장동무 보기에다 내가 우습지 않소?

...사실 우리 농장 파수반에 자그마한 앵두밭이 따로 있었소. 그런걸 몇해전에 ...

결국은 내 지시로 파수원의 앵두나무를 몽땅 뽑고 그 자리에다 수확이 높은 배나무를 심었지.》

찬익은 동안을 두었다가 한결 가라앉은 어조로 계속했다.

《수확도 보장없고 생산지표에도 없는건 사실이요. 그러면서도 유치원에랑 마을에들에게 첫물앵두를 먹이지 못한다는 생각은 못했거던.

글쎄 마을에 앵두나무를 심은 집이 없는건 아니지만 마음이야 어디 그럴소?》

간해의 묵은 풀씨가 여기저기 달라붙은 찬익의 바지가랭이가 책상밑으로 보였다. 그걸 보는 영석의 마음이 불시에 찌르르해졌다.

《참 아바이두, 그런건 제게다 얘기해두 뭇걸. ...》

영석의 감동어린 말에 멧적었던지 찬익은 《올해두 년초부터 징조가 좋아. 오다보니 벼모씨가 벌써 파랑게 나왔더라니까!》하고 한마디 덧붙였다. 그는 두눈을 깜박이며 기쁜 기색을 가무리지 못했다.

아마 빨간 앵두알을 입에 물고 방실거릴 애들을 생각하니 스스로도 즐거운 모양이었다.

하지만 영석은 그의 말과 행동에서 딱히 이름 못할 그 어떤 초조감 비슷한것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지는해를 바라보며 갈길을 재촉하는 길손을 볼 때와 같은 감정이었다.

바로 이때 마주앉은 두사람사이에 놓인 라지오처럼 생긴 지령전화기가 찌르거렸다.

송화단추를 누른 영석이 입을 가져다대고 말했다.

《리영석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중폭수화기의 송송 뿜린 구멍으로 석범한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제 보수분조장 유춘학입니다. 다른게아니라 유치원지붕개조 말입니다. 이거 아무래두 다시 좀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석은 뜻밖의 정황에 일순 당황했다.

저도 모르게 앞에 앉은 찬익의 얼굴을 살피는데 그는 들은듯만듯 무표정한 기색이었다.

《분조장동무, 그거야 이미 합각지붕으로 개조할결루 락착이 된게 아닙니까.》

《그러자니 시간이 문젠디다. 지금 해놓은 지붕 골조를 다 뜯어고치자면 닳새는 걸립니다.

대상이 어디 그뿐인가요? 중학교보수도 제기되지요? 그러느라면 모내기가 당장입니다.

또 당장에 그 많은 기와를 어디서 얻겠습니까?》

그는 마치 이 순간을 위해 미리 잘 외워두기라

도 한것 같았다. 끝날것 같지 않은 그 사실이 마침내는 강찬익의 자제력을 터뜨렸다.

찬익은 마치 그것이 보이지 않는 상대이거나 하듯 외락 거머쥔 지령기에 대고 버럭 고함을 쳤다.

《이놈, 어제까지 하겠다던 놈이 갑자기 무슨 변덕이나. 시간이 모자라면 밤을 패는게구 기와가 모자라면 내집, 내집 기와를 다 벗기는게지.

할미한테 매맞구 에미한테 송사질할 놈...》

저편에서는 잠잠했다. 두 관리위원장이 한자리에 있으려니 생각지 않았다가 불의의 급습을 받고 주눅이 들어버린 모양이었다.

한참후야 다시 찌룩찌룩 전류흐르는 소리가 나더니 능청스러우나 태연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거기 세셨소? 뭐 그쯤한데 그렇게 버락치듯 할거야 있소. 당장 지붕공사를 시작할테니 그만 성내구 저녁에 집에나 좀 들려주시우. 처가 작년에 담근 살구술단지들 오늘 터뜨리겠대요.》

그리고는 급기야 전화를 끊어버렸다.

잠시 달아오른 얼굴로 씨근거리던 찬익은 그제야 영석의 존재를 느끼고 두툼한 손바닥으로 벌개진 목덜미를 문질렀다.

《헛참, 노여움이 많아진걸 보니 나도 이젠 늙었나보우.》

찬익은 어색한 눈길로 변명하듯 중얼거렸다.

《사실 저 사람 거기서 남는 목재루 농장제분소 지붕을 다시 씌우자고 저러질 않소. 처가 그곳 책임자라오. 엉큼한 그 속을 내가 몰라서...》

말없이 앉아있던 찬익은 아무래도 안심치 않아 유치원에 가본다고 나갔다. 그가 나간 뒤에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방안에서 서성대던 영석은 드디어 자전거를 밀고 별로 나갔다. 지난밤지간에 돌아왔다는 첫 벼모싸움을 한시바빠 보고싶었던것이다.

연보라빛운무가 채 건히지 않은 장수산을 배경으로 온 들판이 바야흐로 다가오는 농사준비로 들끓었다. 바람막이바자를 두른 모판안에서는 물초롱을 든 관리공들이 분주히 오갔다.

저편에서 활창대뭉음을 메고 오던 청년이 무엇에 걸채였는지 쌓아놓은 나래무지우에 나동그라졌다. 그것을 보고 깔깔 웃어대는 처녀들의 웃음소리가 귀가에 들려온다.

멀리 보이는 산자드락에선 꿈무늬에 보습을 주런이 매단 프락포르가 그리로 올라서느라 용을 쓰고있었다.

새봄을 맞은 활기로 약동하는 드넓은 전야를 바라보느라니 어쩐지 어깨가 묵직해왔다. 이 대자연이 울리는 거대한 《교향곡》을 이제부터는 자기가 지휘해야 한다는 책임감때문일것이다.

그런데 나에게 이 《교향곡》을 능숙하게 지휘할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원만히 갖추어져있다고 할수 있는가?! 고양이 소대가리 말은 격으로 아를

차고 빠근하게 느껴졌다.

제나름의 성격과 취미를 가진 농장원들을 앞장에서 이끌고나가며 백가지, 천가지 농사일을 막힘없이 지휘해나갈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추어야 했다. 그런데 그 능력과 경험이라는것은 결코 책상머리에서만은 깨달을수 없고 한두달내에는 터득할수 없는 그러한것이 아닌가.

이 모든것을 하루빨리 터득하기 위해서는 강찬익과 같은 유능하고 관록있는 선배들의 풍부한 경험과 사심없는 방조가 필요했다.

하지만 영석에게는 왜선지 그가 꼭 떠날것만 같은 위구심이 갈마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를 붙잡기도 어려운노릇이었다. 찬익은 그렇다치고 늦게나마 인생말년을 자식들의 곁에서 보내고싶어하는 그의 안해의 애절한 소망이야 어떻게...

가만, 가만,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의 손자애들중 누구든 할아버지, 할머니곁에 데려오도록 한다면, 어느결엔가 찬익에게서 유치원에 다니는 손자애가 있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다. 가정이라는 《기계》의 윤활유는 애들이라지 않는가.

찬익의 자식들을 전화로 만나 선뜻 이 땅을 뜨지 못하는 아버지의 심정에 자기의 심정까지 합쳐말해주자.

생각이 예까지 미치자 들레이는 마음이 발걸음을 자꾸 앞섰다.

×

오후 첫참에 영석은 유치원으로 향했다. 한시바빠 강찬익을 만나 자기 생각도 말하고 그가 떠나지 않도록 설복해보자는것이였다.

아니나다를가 먼발치에 보이는 유치원지붕의 서까래 한귀통이가 헐리기 시작했다. 그아래서는 많은 사람들이 한곳에 모여 뭔가 열심히 토의하고있었다. 영석이 병원옆으로 난 길로 막 접어드는데 누군가 바빠 달려내려오다 그의 앞에 멎어섰다. 유춘학이였다.

어디를 급히 달려가던 길인지 가슴이 연신 풀땀거렸다.

《위원장동무, 기와가 풀렸수다.》

밀도 끝도 없는 소리였다. 기와라니?

갑자기 그 많은 기와가 어디서?! 그렇게 서있는 영석에게 유춘학이 또 한마디 했다.

《방금 찬익위원장의 아들이 왔다 갔수다. 차에 가득 싣고온 기와를 부려놓고 갔지요.》

갑자기 이건 또 무슨 말인가. 강찬익의 아들이 오다니?! 오전까지만 해도 그런 말이 없지 않았던가.

《뭘요? 위원장아바이 아들이? 지금 어디 있소?》

다급히 묻는 영석에게 유춘학은 락심한 기색으로 말했다.

《집으로 넘어간다고요? 집을 신는다고요. 이번 길에 아예 부모들이랑 모셔간다는데 내 그래서 거기서 가는 길입니다.》

부모들을 모셔가다니?! 이렇게 갑자기?!

뭐가 뭔지 알수 없어 잠시 서있던 영석은 황급히 발길을 돌리며 유춘학에게 재촉했다.

《뭘 하오? 빨리 가보지 않구.》

두사람은 거의 반달음을 놓다싶이 강찬익의 집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도 영석의 생각은 줄창 키에 까불리듯 하였다. 어제까지만 해도 며칠후에야 올것 같았던 아들이 어떻게 되어 벌써 왔단 말인가, 그리고는 오자바람에 부모부터 모셔가겠단?!

어디 만나서 말 좀 해보자, 어쩌면 한생을 터잡고 살던 부모들의 뿌리를 그리도 쉽게 뽑아갈 생각을 하느냐고... 영석은 속으로 이렇게 옥별렸다.

가까이 가면서 보자니 찬익의 집 울바자옆 큰 살구나무밑에 화물차 한대가 서있는데 거기에는 벌써 크고작은 이사짐이 실리기 시작했다.

그것을 본 영석은 그만 자신을 잃고 그곳으로 달려갔다. 활짝 열린 대문안에 들어서니 마당에는 동네녀인들 몇이 짐싣는 일을 거들어주고있었다. 찬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는데 그의 안해가 반색을 하며 다가왔다.

그런 그에게 영석은 자기도 모르게 무뚝뚝하게 물었다.

《아바인 어디 가셨습니까?》

《글쎄, 아까 점심상을 물리자마자 나갔는데...》

찬익이 없다니 우선 한숨 나갔다.

영석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재차 물었다.

《헌데 이젠 도대체 어떻게 된겁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령감이 나간지 얼마 안돼서 우리 애가 문득 들어서지 않겠나요.》

그 애가 말하는걸 봐선 령감하고 미리 말이 다 있는것 같던데. 그러구두 령감은 꿈쩍 아닌보살이니.》

자기 남편을 나무라는 풍수박선 입가에는 하냥 웃음이 흘렀다. 미구에 만나게 될 귀여운 손자에 들을 벌써부터 눈앞에 그려보는지도 모른다.

경황없이 그 말을 들으면서도 영석은 도무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이미전에 찬익이 자식들과 말이 있었다는건 무슨 뜻일까? 그럼 그는 벌써부터 이곳을 뜨기로 작정했단 말인가? 영석이 뭔가 깨닫기도 전에 웬 젊고 끼끗하게 생긴 사람이 찬익의 안해에게 다가와 물었다.

《어머니, 토끼들이 퍼그나 많군요. 어떻게 할가요?》

《그래도 봐두렴. 내 있던 학교에 넘겨주고 가련다. 참, 인사해라. 새로 오신 관리위원장동지

다. 우리 둘째라우.》

부디 소개하지 않아도 영석은 그 젊은이가 찬익의 아들임을 알았다. 후리후리한 키에 우뚝한 코며 길쭉한 얼굴은 그대로 아버지를 쫓아박았다.

헌데 어제까지도 도에 있는 만아들이 울거라고 하지 않았던가. 갑자기 어떻게 돼서?!...

영석은 쌓이고 덧쌓이는 의문속에 그와 인사를 나누었다. 걸렸던 기와문제를 해결해주어 고맙다는 영석의 말에 그는 서글서글한 웃음을 눈가에 띄웠다.

《그런게 아닙니다. 며칠전에 전화할 때 아버지가 얘기하더군요. 오던 길에 천계리에 들러 기와를 좀 싣고오라고요.》

그곳 관리위원장동지와는 다 의논이 있었다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희천발전소건설장에 지원물자를 실어다주고 오던 길에 기와를 가져왔다는 것이었다.

결국 찬익은 제 잡도리를 다 해두고 유치원지붕 개조를 결심한것이였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떠난다니 도무지 그의 속마음에 가늠이 가지 않았다. 불현듯 요즘 자주 뭔가 깊은 생각에 잠기군 하던 찬익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우에 갓 베어낸 단뽕나무그루터기를 추연히 바라보던 그의 눈길이 겹쳐지였다. 그때마다 그의 마음을 제나름으로 리해해보려 했지만 이렇게 떠날줄은...

영석은 제 생각에만 빠져있느라고 예까지 오면서 별려두었던 말을 가말게 잊고말았다.

이때 활짝 열린 부엌문으로 큼직한 망돌을 안은 녀인이 얼굴이 빨개서 나오고있었다.

영석의 곁에서 이 모든것을 찌프린 눈으로 지켜보던 유춘학이 형하니 그것을 받아다 차밑에 내려놓았다.

《그건 왜 싣지 않나요?》

망돌을 들고나온 녀인이 묻자 그는 마뜩지 않은 투로 내뱉듯 대답했다.

《모르면 가만있소. 망돌이란건 이사짐의 맨 나중에 싣는거요.》

영석은 그의 말에서 《쳇, 설마 진짜 가기가 할라구?》 하는 속마음을 읽었다.

경우를 봐서 가만있을수가 없어 영석이도 하는수없이 팔을 걷고 나섰다.

《이건 참, 떠나는 사람 등 떠민다더니...》

자기뒀을 따르며 혼자말처럼 쏙얼거리는 유춘학의 말은 꼭 영석이 자신에게 하는듯 했다.

어느덧 집은 다 싣렸다.

두 내외가 살던 살림이라 이사짐이라고 믿기 어렵게 단출했다. 유춘학이 굳이 우겨서 망돌 하나만이 차밑에 덩그러니 남았다.

실어도 주인이나 온 다음에 싣자는것이였다.

찬익은 그때까지도 오지 않았다. 그의 안해는 남편이 나타날듯 한 길목을 살피 연신 목을 기울 거렸다.

《철이 할머니, 이제 가면 언제나 오시겠나요?》
모여섰던 마을녀인들 가운데 그중 젊은 녀인이 물었다.

《왜?! 이제 봉춘이 엄마 아들 낳았다면 우정이 라도 오지 않으리.》

찬익의 안해가 여전히 길가에 눈길을 둔채 대꾸 하자 봉춘이 엄마라는 녀인은 입을 싸쥐었다.

《애개, 큰일나겠네. 우리 봉춘이 아버지인 그런 말 하면 손부터 내저어요.

딸 셋만도 귀박죽에 넘친다구요.》

《애, 너의 남편 분조장노릇에 타산 밝은걸 봐선 아직 철부지다. 좋은 사위 맞으면 딸 하나가 아들 열 맞잡이라는데. 난 이제라도 그런 딸 하나 두는게 소원이다.》

짐짓 시투해서 하는 찬익의 안해의 말에 녀인들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영석은 그런 그들에게 시원히 욕이라도 해주고 싶은 심정이었다.

사람 하나 떠나보내면서 뭐가 그리 기쁘가고... 강찬익이 나타난것은 바로 그때였다.

한손에 낫을 쥐고 다른 어깨에 삼을 걸멘 그는 종종걸음으로 마중나온 안해의 곁을 지나 아들앞에 와섰다.

《오던 길에 말을 들었다. 생각보다 빨리 왔구나.》

그런 그에게 아들은 갑자기 떠나게 된 사연을 간단히 설명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며 영석은 지금껏 아니아니하던 마음 한귀퉁이가 와르르 무너지는듯 했다.

아, 어쩌면 이리도 쉽게 떠날 생각을 했을가. 찬익이 몸에 지녔던 쟁기를 아들의 손에 들려주고 영석의 앞으로 다가왔다.

그의 입가에는 미안쩍은 미소가 얹게 떠돌았다.
《위원장동무두 왔소?》

망연히 서있는 영석을 대신하여 곁에 있던 유춘학이 물풍스레 말했다.

《어딜 갔다 오는 길이요? ...할 일 다하구 죽은 사람 있겠기에 떠나기 전까지 극성이요?》

영석이로서는 뜻밖의 말이었으나 찬익은 별로 탓하는 기색이 아니었다.

《임자 왜 그렇게 속이 비틀렸나?》

《몰라서 묻소? 그래, 이렇게 떠나자구 아침까지 큰소릴 쳤소?》

그 말에도 찬익은 혼연히 대답했다.

《왜, 나두 말년에 임자처럼 손자애들 거느리고며느리 지어주는 밥 좀 먹어보면 안되나?》

《안될거야 뭘 있겠소. 그저 그 성한 오록에 벌써부터 자식들 그늘아래 드는게 내 보기에두 남의

일같지 않아 그러우.》

치받으려는 황소처럼 고개를 수긏하고 여전히 불멘 소리를 하는 그를 보며 찬익은 허허 소리내어 웃었다. 한동안 차에 실린 짐들을 바라보던 그는 그 주위를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한바퀴, 두바퀴... 그 걸음은 그대로 열려진 대문안을 지나 마당으로 이어졌다. 마당의 이 구석, 저 구석을 둘러보는 그의 눈빛은 추연했다.

찬익의 눈가에 담긴 만단사연이 영석에게는 분리해되었다. 새도 한때 살던 등지를 쉬이 뜨지 못한다는데 하물며 찬익입에랴. ...

어쨌든 여적 아무 말없이 이렇게 훌쩍 떠나려는 찬익의 소행이 더없이 섭섭하고 노여웠다. 그것은 갓 시집온 새색시에게 큰 살림 떠맡기고 가는 시어머니를 볼 때와 같은것이였다.

이때 찬익의 아들이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아버지곁에 다가와 나직이 말했다.

《아버지, 이제 떠나야 할것 같습니다.》

아들의 말에 찬익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떠나야지.》 하고 낮은 소리로 응수했다.

그런 그를 실췌해진 눈으로 마뜩지 않게 바라보던 유춘학이 차밀에 있던 망돌을 훌쩍 들어 차에다 쿵— 하고 었어놓았다. 그리고는 어디론가로 장달음을 놓았다.

순간 영석이도 그만 자제력을 잃고 찬익에게 다가갔다.

《아바이, 그래 정말 떠나시겠단 말입니까?》

영석은 찬익의 거쿨지고 마디 센 두손을 꼭 잡고 절절히 물었다. 찬익의 눈길은 영석을 면바로 보지 못하고 그의 어깨너머 어딘가를 지그시 견주었다. 그들 두사람을 바라보던 찬익의 아들이 슬며시 고개를 돌리고 대문밖으로 나갔다.

마당에는 그들 두사람만이 남았다.

찬익은 주머니를 뒤적여 담배갑을 꺼내들었다. 뿔아든 담배가치를 영석에게 먼저 권하는 찬익의 손은 가볍게 떨리였다.

영석은 사양않고 받아들였다. 담배불을 붙여 문 찬익은 사뭇 진지한 태도로 영석의 어깨를 툭 건드렸다.

《정작 이렇게 떠나자니 자네한테 미안하구만.》

영석은 이전과 달리 《자네》라고 무릅없이 불러주는 그 말에서 이름못할 친근감을 느꼈다.

그러면서 무작정 가지 말라고 막아나서고싶은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이상한것은 입안에서 뱀도는 그 말을 섣뚱 할수 없는것이였다.

그런 그를 얼핏 스쳐본 찬익이 뜨직이 입을 열었다.

《자네도 알겠지만 여기가 뭐 내 고향은 아녜세. 하지만 나에겐 고향이상으로 귀중한 땅이야. 여긴 내 한생에서 제일 귀중한것들이 묻힌 곳이거든.》

마당가 어느 한곳을 응시하는 그의 눈가에는 전
에없이 물기마저 어린듯 했다. 그속에서는 오만가
지로 한데 영킨 그 무엇인가가 서서히 끓어오르고
있었다.

《난 세대마다 각기 제 몫이 있다고 생각하네.
제 몫을 다했으면 스스로 물러나는것이 옹당하지.
허허. 이제두 오면서 빙 둘러봤네만 난 자기 량심
껏 일했네. 솔직한 말로 난 살아온 궁지와 자부심
을 느끼군 하네. 그래서 더우기 이 땅에 묻히고싶
었고…》

찬익은 잠시 말을 끊고 새 담배를 붙여물었다.
한줄금의 소슬한 저녁바람이 그들사이로 빠졌다.

《세대교체라는게 아무때나 옹당한것인데 사
람의 마음이란 참 이상해. 어쨌든 섭섭하거던.

아직도 속은 젊었다는것이겠지. 물론 아까 누군가
도 말했듯이 일 다하고 죽은 사람은 없어. 하면서도
섭섭하거던. 이런걸 두고 로파심이라고들 하겠지.

내 여담삼아 한마디 할가.

내가 처음 관리위원장을 인계받았을 때 아마 임
자나아쥔 됐을거네. 그때 먼저 관리위원장을 하던
분이 내결에서 나를 많이 도와주었지. 협동화때부
터 일해온본인데 사람이 참 진국이었지.

한데 일을 하면서 보느라니 무슨 일이 생겨도
그의 눈치를 먼저 보게 되더라 말일세. 이런 때에
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식으로 말이야. 아래
사람들도 내 말보다 그의 얼굴을 먼저 쳐다보구…
그래서 한번은 그분이 나를 되게 꾸짖더군. 이젠
이 땅의 주인은 나인데 왜 자꾸 남의 눈치를 보
는가구, 왜 마음껏 나래를 펴구 농사일을 밀고나
가지 못하는가 하구 말일세. 그제서야 내 정신을
차렸지.

아무래도 시어머니와 한부엌에 들어서면 며느리
가 불편해하는것만은 사실이거던, 허허.

하지만 내가 굳이 이 땅을 뜨려는것은 그래서만
두 아니구…》

영석은 그의 말을 들으면서야 비로소 강찬익이
굳이 이 땅을 뜨려는 마음을 들여다볼수 있었다.
그것은 여직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이야기였다.

그의 두 아들중 막내아들은 제대군관이기 전에
영예군인이었다.

어느 광산가까이에서 대대장으로 복무하던 그는
어느날 뜻하지 않은 정황앞에 한몫 내대고 수많은
로동자들을 구원해냈다.

그 일로 하여 오래동안 병원생활을 한 그는 끝
내 복무능력상실로 제대되게 되었다. 제대후에도
그는 부모들결의로가 아니라 그곳 광산에 남았다.

광산당위원회에서는 영예군인인 그를 위해 정양
소에서 일할것을 권하였으나 그는 우기다싶이 하
여 광산후방부를 택하였다.

뽕니뽕니해도 광부들을 잘 먹여야 쇠돌도 많이

쏟아진다는 생각에서였다. 실제로 그는 후방부
산하목장 하나를 맡아안고 아글타글 애썼다.

하지만 불편한 몸인데다 워낙 처음 해보는 일이
여서 모든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한 그의
고충을 적은 며느리의 편지를 받은것이 벌써 지난
해말이라고 한다. 그때부터 찬익은 둘째에게로 갈
결심을 하고 은근히 영석이 내려오기를 기다렸다
는것이다.

《내가 여기 남아있어주길 바라는 임자네 마
음을 모르진 않네. 나도 있노라면 제 할 일이야 찾
게 되겠지. 하지만 어쩐지 여기 일은 맘이 놓이네.

…능력? 능력이야 첨단교육을 받은 임자네한
테 비하겠나. 내 경험이란것도 그렇지. 이젠 낡은
것이거던. 이제야 자네들이 말하는 정보산업시
대에 맞는 그런 능력과 경험이 있어야지.

남은 여생에 몇몇한 제 몫을 찾는다는게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내 몇년동안 품을 들여서 그런지
축산은 물계가 환해. 혹시 알겠나. 내 거기 가서
얻는 새 경험이 자네에게 도움이 될는지… 허허.》

찬익은 심각해진 영석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껄껄 웃었다. 평소에 파묵한 그에게서 이렇게 많
은 말을 들어보기는 처음이었다.

그동안 영석이 보아온 찬익의 모든 행동이 새로
운 의미를 띠고 부각되어왔다.

《뭘 그리 심각해서 그러나. 늘그막에 앵두나무
밭이라도 하나 일궈보자 했는데 아무래도 틀렸어.
손주녀석이 지금쯤 눈이 까맣게 기다릴걸세.

나두 벌써부터 그녀석이 얼른거리는데…》

찬익은 영석을 바라보며 밝게 웃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덧붙이였다.

《앞으로 일이 더 잘될거요. 땅이 좋은데다 우
리 양흥리사람들이 원체 순박하거던.》

찬익은 영석의 손을 꼭 잡고 자기가 못다한 앵
두나무밭과 유치원지분문제를 다시금 당부했다.

그들이 대문밖에 나서니 어떻게 알았는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있었다. 작업반장들은 물론이고
일 끝내고 벌에서 들어오던 많은 사람들이 찬익을
예위쌌다.

며칠전 바람막이바자말뚝때문에 경을 칠번 했던
6반반장이 끌고온 살진 염소고삐를 찬익의 손
에 들려주며 말했다.

《집에서 기르던건데 종자가 좋습니다. 가져
다 길러보십시오.》

갑자기 둘러선 사람들을 와락와락 헤치고 찬익
의 앞에 나서는 사람이 있었다.

보수분조장 유춘학이었다. 어디를 다녀왔는지
얼굴이며 목언저리까지 온통 땀범벅이었다.

그는 가슴에 불안고온 콧직한 물건을 찬익에게
푸쩍없이 안겨주었다.

《이크, 이게 뭐가?》

찬익이 의아해하는데 그는 손등으로 연신 턱을 훑치며 씩근거렸다.

《술이외다, 살구술이요. 함께 마시지 못했으니 지고라도 가시구려.》

영석은 그런 그를 말리고싶었으나 차마 그럴수가 없었다. 자기가 이렇진대 수십년을 두고 함께 일해온 저 사람 마음이야 오죽하랴싶어서였다.

아닌게아니라 시뻘겋게 달아오른 얼굴에는 땀만이 아닌 진한것이 흐르고있었다.

《아바이, 도에 갔던 리당비서동지라도 온 다음에...》

영석이 한걸음 다가서며 말하는데 찬익은 설레설레 고개를 저었다.

《가서 전화하지. 그리구 비서동무가 회의 떠나는 날 대강 얘기가 있었네.》

찬익은 이렇게 말하며 유춘학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또 뭔가 뿔질을 하려던 유춘학은 슬며시 눈길을 돌리었다. 그리고 측은히 젖어든 목소리로 말했다.

《유치원지봉은 마음놓수다. 그리구... 내 다 아오. 가서두 자주 소식을 전하시우.》

사람은 결코 입으로만 말하는것이 아니다.

유춘학뿐아니라 여기 모인 사람들모두가 아무런 설명 없이도 찬익의 마음을 느끼고있었다. 바로 그들모두가 이 땅처럼 꾸밈없고 진실한 강찬익을 잘 알고있기에...

이제 그의 앞에는 더 크고 새로운 일들이 기다리고있었다. 그는 앞좌석을 권하는 안해며 아들의 청을 거절하고 부디 적재함우에 올라앉았다.

떠날 시각이 되어서는 가는 사람이나 보내는 사람이나 하나같이 눈이 불깃해졌다.

《여러분, 안녕히들 계시오.

그리구... 일을 더 잘해주시오.》

찬익은 떠나면서 이렇게 마지막말을 남기었다.

...

차는 떠났다. 차우에 올라앉은 찬익은 한생을 기울여 애써 가꾼 이 땅을 오래도록 둘러보았다.

청회색벌판을 가로질러 장수산을 바라고 휘우듬히 뻗은 길을 따라 자동차는 뽕양게 멀어져갔다. 영석이며 술한 사람들이 한자리에 서서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들을 바라왔다.

바야흐로 저녁해는 지평선에 내려앉아 아득한 온 천지가 붉은 노을로 진하게 물들었다.

오늘따라 류달리도 아름다운 저녁노을이었다.

단 평

갈등설정과 구성의 특색

김 명 선

시대적높이에 올라선 전형적인 인간성격창조를 통하여 인간의 운명개척의 길을 예술적으로 밝혀주는것은 문학의 사명이다.

장편소설 《달라진 선택》에서는 강성대국건설이 힘있게 진행되고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사회에 필요한 사람으로 되자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의의있는 사회적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주인공 고원초의 성격형상을 통하여 보여주었다.

작품에서 주인공의 성격이 생경한 론리로써가 아니라 감정정서적으로 안겨오는 비결, 그것은 구성의 특색을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정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품창작에서 형상수법은 작가가 재간껏 탐구하여 리용하여야 한다.》

이 소설의 구성의 특성은 한마디로 말하여 이야기 줄거리의 측면에서 볼 때 갈등선과 리해선을 거의 같은 비중으로 끌고나간것이다.

이전에 창작된 갈등설정작품들에서 이야기 줄거리는 대체로 갈등선을 유일한 주선으로 하여 일관하게 끌고나간것이 보편화되였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는 갈등을 설정하고 그것을 작품전반에 걸

쳐 끌고나가면서도 주인공에 대한 시점인물의 리해과정이 이야기줄거리에서 많은 몫을 차지하고있다. 작품에서 기본인간관계는 서로 사업상 긴밀한 련계에 있는 의학대학 기술부원장 부경산과 의사이며 교원인 주인공간의 갈등관계이다. 따라서 주인공의 성격해명에서 주도적역할을 하는것은 이 갈등선이다.

소설에서는 우선 주인공 고원초와 부경산사이의 갈등관계를 설정하고 그것을 일관하게 끌고나가고 있다.

주인공 고원초의 성격의 핵은 《항생초》이다.

본인은 언제부터 자기에게 붙었는지조차 모르는 이 《별명》속에 그의 인생관과 성격적본질이 함축되어있다. 그는 비록 그 당시에는 오해를 당하고 때로는 인격적모욕을 받는다고 해도 제자들과 동료들에게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깨끗하고 량심적으로 살도록 아픈 말도 해주고 이끌어주는 참된 인간이다. 그러나 상대인물인 부경산의 성격은 그와 대조적이다. 그는 젊은 나이에 학부장이 되어 활동반경이 넓어지자 교육자로서의 탐구열은 식어지고 생활에서의 립시조처와 원만함에 더 신경을 쓰면서 자기 편리위주의 생활을 해나가는 인

물이다. 대조되는 이 두 인물은 생활의 여러 계기들에서 서로 대립되고 충돌한다.

한 교원이 쓴 논문심의때와 부경산이 자기가 치료하겠다고 입원시킨 환자를 고원초가 치료했을 때 그리고 국제적인 고려의학강습의 조직문제에서 두사람의 의견대립은 표면화되고 심화된다.

고원초는 나라의 의학과학은 어떻게 되든 오직 자기자신의 편안과 안락만을 추구하면서 점점 더 변질되어가는 부경산을 보면서 그에게 아픈 말도 해주고 새로운 길을 걷도록 설복과 충고도 해주지만 오히려 부경산은 고원초를 말쑥고 까다로운 사람으로 멀리하면서 정신적으로 괴롭힌다.

부경산의 사고방식과 능력으로써는 고원초를 이해할수도 따라설수도 없었던것이다. 한생을 제판에는 보람있게 살아왔으며 살아가고있다고 자부하던 그의 관념이 허물어진것은 제자인 홍무갑책임비서를 만났을 때이다. 홍무갑이 잊지 못해하는 스승이 자기가 아니라 고원초라는것을 알았을 때 그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기라는 인간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하여 새삼스럽게 돌이켜보게 되며 언제인가 고원초가 해준 말도 다시 생각해보는것이다.

《...부경산선생의 자신에 대한 관용이 나날이 자기 편리위주로 넓어지고 인간의 생명과학이 선행한데서는 별스럽게 가공되고 합리화되는것이 불만스럽단 말이요.》

고원초와 부경산의 갈등관계는 이렇게 촉매인물인 홍무갑책임비서에 의하여 해결되게 되는데 갈등이 절정장면에서 그들사이의 직접적인 대립과 충돌을 통하여 해결되지 않았다는것이 이 작품의 갈등의 특색으로 되고있다. 작품의 사상은 바로 고원초와 부경산의 갈등의 설정과 해결을 통한 그들의 인생관의 대립과 충돌과정에 의하여 밝혀지고있다.

소설의 이야기줄거리에서는 또한 주인공에 대한 리해선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일반한 기본사건선이 없는 이 작품에서 이야기 줄거리는 시점인물인 《내》가 고원초의 성격을

리해하는 과정으로 흐르고있다. 갈등선이 작품의 기본사상을 천명하고 부정인물인 부경산과 뚜렷한 대조를 주었다면 《나》에 의한 리해선은 주인공 고원초의 성격의 전모를 보여주는 과정으로 되고있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참된 인간성격을 창조하기 위한 합리적인 구성수법으로 된다.

이 소설에서 리해선은 고원초와 생활의 인연이 있는 인물들의 체험담과 작가인 《내》가 주인공 고원초와 함께 다니면서 겪게 되는 생활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그의 성격을 투시해보는 과정으로 되어있다. 신신명과 박성덕학장, 토산리인민병원의 사 김석춘 그리고 부교장 전태길 등의 이야기를 통하여 《나》는 처음에는 불쾌하게 생각하던 주인공에 대하여 점차적으로 리해하게 되며 깊은 공감을 가지게 된다. 이와 동시에 자기가 취재대상으로 선택했던 부경산부원장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파악도 가지게 된다. 그것은 갈등선에 리해선이 굴절되어 간접적으로 형상되었기때문이다. 소설에서는 《내》가 주인공을 리해하는 과정을 통하여 고원초와 부경산의 성격이 뚜렷이 대조되면서 본질상 갈등이 심화되고있다. 이것은 갈등선이 이 작품의 기본추동력이며 리해선도 그를 바탕으로 하여 전개된다는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홍무갑이나 김석춘 등의 이야기는 고원초와 부경산의 갈등관계로 인하여 생겨난 이야기이며 그를 통하여 《나》는 두사람의 성격의 차이를 감득하게 되며 주인공에 대하여 더욱 깊이 알게 되는것이다. 그리하여 경험집취재집필대상의 선택을 달리하여 그것을 부경산대신 고원초로 하게 되는것이다. 이와 같이 이 작품에서는 갈등선과 리해선을 거의 같은 비중으로 끌고나가면서 구성의 특색을 보장하고 주인공의 성격을 보다 이채롭게 형상할수 있었다. 이것은 작품의 종자를 보다 특색있게 꽃피우기 위한 창작수법의 부단한 탐구과정의 결과이다.

우리는 앞으로 소설작품창작에서 보다 독특하고 합리적인 구성수법들을 창조리용해야 할 것이다.

상 식

심장발작 때

- ① 환자를 안정시킨다.
 - 환자가 반쯤 앉은 자세로 있게 한다.
 - 머리와 잔등, 무릎을 받쳐준다.
 - 환자를 안심시킨다.
- ② 전화로 구급차를 부른다.
 - 상대방에게 심장발작으로 추측된다는것을 알려준다.
 - 만약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담당의사를

부른다.

- ③ 환자에게 약을 준다.

-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아스피린 한 알을 주어 천천히 씹어먹도록 한다.
- 환자가 협심증치료약 또는 분무약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가 자체로 쓰도록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를 도와준다.

- ④ 환자의 상태를 감시한다.

-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않도록 한다.
- 생명중후(맥박과 호흡, 반응상태)들을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잘 감시하고 기록한다.

작가 엄홍섭의 해방전 창작활동

소설가 엄홍섭은 1906년 9월 경상남도 진주군 수정동의 빈민가정에서 출생하였다.

작가가 태어날 당시 그의 가정은 생활이 너무 곤란하여 고향을 떠나 충청남도 논산군 양촌리로 이주하게 되었다. 그 당시 그곳에 시집간 누이로부터 얼마간의 땅이 있다고 하면서 오라는 기별이 와서 가던중 어머니가 길거리에서 해산하게 되었는데 그때 태어난 사람이 바로 작가 엄홍섭이었다.

작가는 가난과 불행속에 불우한 나날을 보내었다.

론산으로 이주한 그의 부모들은 거기서 얼마간의 땅을 얻어부치게 되었다고 한다. 첫 수확을 앞두고 아버지가 사망했고 작가가 10살되던 해에 누이가 사망했으며 그 이듬해에는 앓아누워있던 어머니까지 사망하여 작가의 3형제는 졸지에 고아의 신세가 되었다.

작가는 매부가 재혼한 후 진주군에 내려가 자식이 없는 삼촌의 양아들로 되어 주체10(1921)년 4월부터 주체12(1923)년 3월까지 진주 제2보통소학교를 다니었다. 작가의 형제들은 정규적인 고등보통학교를 거쳐 전문학교나 대학에 진입할 생각은 도저히 가질수 없었다. 그것은 삼촌과 큰아버지의 생활이 도저히 작가형제의 학비를 감당해낼수 없는 빈궁한 처지였기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작가는 주체12(1923)년 4월 학비부담이 적고 수업년한이 짧은 경상남도 진주의 도립사범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는 기간에 비판적사실주의문학작품들을 비롯한 문예서적들을 탐독하면서 작가적인 수업을 하였다.

그는 학교내에서 《학우문예회》라는 씨클 단체를 조직하고 그 기관지인 《학우문예》의 편집사업을 책임지고 진행하였다. 이 문예회는 전교생을 거의다 회원으로 망라했고 회비를 받아 기관지를 인쇄발행하였는데 여기에 실린 글들은 민족적이고 인도주의적인것 그리고 현실비판적인 내용들을 수록한것이었다. 이때 엄홍섭에게서는 장래의 작가가 되겠다는 포부와 야심이 싹트고있었다.

주체14(1925)년에 사범학교를 졸업한 그는 진주군 평거면에 새로 개설된 보통학교 교원으로 취직하여 교원생활을 하면서 다시금 일제의 식민지정책으로 말미암아 멸락된 농민들의 비참한 참상을 많이 목격하게 되었다.

이 시기 프로레타리아문학을 지향하여 조직된 《염군사》〔주체12(1923)년〕, 《파스큐라》〔주체13(1924)년〕에 망라된 진보적작가들의 활동이 진행되고있었다.

진보적작가들의 적극적인 진출은 《창조》〔주체8(1919)년〕, 《폐허》〔주체9(1920)년〕, 《백조》〔주체10(1921)년〕 등에 의하여 시작되어 점차 류포되는 부르조아의 해독적영향을 막고 무산대중의 계급적자각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긍정적인 움직임이었다.

주체14(1925)년 《카프》의 결성때 그에 가맹한 작가는 송영, 박세영, 리기영 등과 관계를 가지고 진보적경향의 작품들을 내놓기 시작하였다.

그때 쓴 작품들이 단편소설 《국밥》〔《습작시대》잡지 주체16(1927)년〕, 《갈등에 얽힌 무리》〔《백웅》잡지 주체17(1928)년〕 등이다.

이러한 작품들은 습작에 불과한것으로서 문단의 이목을 크게 모으지는 못하였으나 당대의 식민지현실을 비판적안목에서 사실주의적으로 투시하려는 작가의 세계관과 미학적리념을 엿볼수 있게 하였다. 주체18(1929)년에 교원생활을 그만두고 서울에 올라온 그는 한때 《카프》의 중앙집행위원으로 선거되었는데 이무렵부터 그에게는 프로레타리아문학예술운동에 적극 참가할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카프》는 그후 주체16(1927)년 9월 재조직을 계기로 새로운 강령을 채택하고 《조합주의투쟁에서 정치투쟁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무산대중을 위한 문학으로서의 목적과 사명을 명백히 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카프〉 재조직 이후의 문학은 비록 이러저러한 약점을 가지고있지만 기본창작경향이 로동계급적인 세계관을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계열에 속할수 있다.》

엄홍섭은 《카프》에 속한 많은 작가들과 함께 당시의 선진적인 사상이었던 맑스-레닌주의를 신봉하고 무산계급의 계급적해방을 지향하였으며 사회주의적사실주의의 계열에 속하는 우수한 작품들을 창작함으로써 《카프》문학의 발전에 뚜렷한 자욱을 새겨갔다.

작가는 농촌에서 교원생활을 하면서 체험한 생활자료에 기초하여 서울에 올라온 직후에 해방전 그의 대표작으로 되는 단편소설 《홀려간 마을》〔《조선지평》잡지 주체19(1930)년 1호〕을 발표하였으며 편이어 단편소설들인 《꿈과 현실》〔《조선지평》잡지 주체19(1930)년 3호〕, 《출범전후》〔《대중공론》잡지 주체19(1930)년 5호〕 들을 비롯하여 단편소설 《산풍경》

[주체 21(1932)년], 《안개속의 춘삼이》 [주체 23(1934)년], 《송어》 [주체 24(1935)년], 《유모》 [주체 24(1935)년], 《새벽바다》 [주체 24(1935)년] 등의 발표로 비관적사실주의문학을 비롯한 진보적문학발전에 이바지하였다.

단편소설 《홀러간 마을》은 농민들의 생명재산이 위협에 처하게 된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주최가놈이 제놈의 이익과 향락만을 추구하면서 별장을 짓고 방축을 쌓은 결과 방축이 터져 온 마을과 농토가 수해를 입게 된 참변과 그후 지주놈의 비인간적행위를 규탄하면서 농민들이 들고일어나 항거하는 모습을 보여준것으로 하여 의의가 있다.

이것은 당시의 엄홍섭의 창작세계가 무산대중의 생활을 깊이 동정하고 착취자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의 감정을 반영하는데로 지향하면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창작방법을 적극 구현하는데로 나가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주체 24(1935)년 일제의 탄압에 의하여 《카프》가 해산당한 후 엄홍섭은 한성도서주식회사출판부에 취직하여 리기영의 장편소설 《고향》이 들어있는 《현대조선장편소설집》을 발행하는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카프》 계열 작가들의 작품출판이 불허가 되면서 엄홍섭은 이 회사에서 사직하였다.

그는 실업으로 인한 생활고속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고 청년학생들과 지식인들을 계몽각성시키는데 이바지하는 단편소설들과 중편소설들을 적지 않게 창작하였다.

단편소설 《아버지소식》 [주체 25(1936)년], 《파세》 [주체 25(1936)년], 《힘》 [주체 25(1936)년], 《그들이 간 곳》 [주체 25(1936)년], 《길》 [주체 25(1936)년] 등과 중편소설 《정열기》 [주체 26(1937)년], 《명암보》 [주체 27(1938)년] 등은 193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작가가 창작한 주요한 작품으로서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고 반일의식을 구현하는데

로 지향된 측면과 함께 깨끗한 량심과 인간성을 찬양해나선 측면으로 하여 주체사상적내용의 적극성을 잘 보여주고있다.

이것은 엄홍섭의 해방전 소설창작이 《카프》 해산이후에도 그 진보적성격을 일정한 기간 고수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1930년대말—1940년대초에 작가의 소설창작에서는 현저한 변화가 생겼다.

당시 《태평양전쟁》을 도발한 일제는 우리 인민에 대한 폭압과 략탈을 더욱 미친듯이 감행하면서 문학작품창작에서의 사소한 애국적인 요소나 진보적기운도 허용하지 않고 가차없이 탄압하였다.

엄홍섭은 일제의 악랄한 탄압이 극도로 우심해지는 속에서도 현실비판적경향의 작품창작에 관심을 돌려 장편소설 《행복》 [주체 26(1937)년], 《인생사막》 [주체 27(1938)년—주체 28(1939)년], 《수평선》 [주체 27(1938)년—주체 28(1939)년], 《봉화》 [주체 29(1940)년] 등을 발표하였다.

이 작품들은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식민지사회현실의 악덕과 모순을 예리하게 폭로한것으로 하여 일정한 긍정적의의를 가지지만 남녀청년지식인들의 애정틀리문제를 기본으로 취급하고 우리 인민들의 민족적미감에 맞지 않는 3각련애관계에 대한 묘사를 비롯하여 자연주의적요소를 적지 않게 발로시키었다.

이것은 해방전 작가의 소설창작이 1930년대말—1940년대초에 이르러 일제의 가중되는 폭압과 작가자신의 세계관적제한성으로 하여 무산계급적립장으로부터 후퇴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작가는 사회주의적사실주의경향의 소설들을 비롯하여 해방전 우리 나라 프로레타리아문학발전에 이바지한 우수한 소설작품들을 창작한것으로 하여 뚜렷한 자욱을 남기었다.

정 참 복

세계유모아

《술에 취했을 때 한 약속은 무효》

변농이에 이골이 난 한 사기꾼이 원고료로 돈더미우에 올라앉은 알렉산드르 듀마(1802—1870)의 돈을 등쳐먹으려는 심보로 그를 빠리 시내에서도 으뜸가는 식당으로 초대하였다.

그가 자꾸 권하는 바람에 편속 술을 들이킨 듀마는 점차 정신이 팔팔해졌다.

이때라고 생각한 사기꾼은 《듀마씨, 2만FF(프랑)만 좀 돌려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이미 고주망태가 된 듀마는 허꼬부라진 소리로 《그, 그렇게 하세.》라고 대답하였다.

다음날 아침 《약속》대로 사기꾼이 듀마의 집을 찾아왔다.

《내가 약속한건 사실이요. 술에 만취된 내가 무슨 약속인들 안했겠소. 하지만 난 술에 취했을 때 한 약속은 무효로 선포하는 사람이라 는걸 모르시오?》

《?》

해방전 진보적동화문학에서 형상수법의 특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동화는 인간의 복잡하고 다양한 생활을 의인화의 수법과 환상, 과장, 상징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상수법으로 반영하는 아동문학의 한 형태입니다.》

동화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씌여지는 흥미있는 이야기인것으로 하여 그들의 마음에 꼭 들어맞는다.

동화는 또한 어른들도 좋아한다.

해방전 진보적동화문학은 그 형상수법에 있어서 오늘날 현대동화에 비해볼 때 시대적미숙성과 제약성을 가지고있으나 발전과정에서 자기의 특성을 뚜렷이 나타내고있다.

그러면 해방전 진보적동화문학이 형상수법의 리용에서 보여준 특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로, 의인화의 수법을 리용함에 있어서 구전동화의 제한성을 극복하고 의인화의 대상을 보다 풍부하고 다양하게 설정한것이다.

의인화의 수법은 동식물이나 자연현상 또는 추상적인 개념들에 사람과 같은 특성을 주어서 사람과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는 방법으로 인간생활을 보여주는 예술창조의 수법이다.

일반적으로 구전동화들을 보면 의인화의 대상을 토끼나 호랑이, 개, 고양이 등 사람들의 생활과 가까운 몇몇 동물들에 국한시켰으며 그 범위도 매우 작았다. 그러나 해방전 진보적동화문학은 의인화의 대상을 동물만이 아니라 식물, 자연현상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동물의인화에 있어서도 새류와 물고기류까지 다양하게 설정하였다.

례를 들어 동화 《처녀장미꽃》〔권한 작, 주체 15(1926)년〕에서는 장미꽃을, 동화 《봄비》〔리병호 작, 주체 23(1934)년〕에서는 달과 별을 의인화하였다.

또한 동화 《룡궁의 전쟁》〔한충 작, 주체 16(1927)년〕에서는 방어, 대구, 새우를 비롯한 물고기들을 의인화하였다.

동식물의 자연생태적특성과 전통적인 관습, 민족적정서에 의하여 일반화된 이러한 의인화대상들의 형상을 통하여 해방전 진보적동화문학은 아직

은 자연과 사회의 본질을 다 리해하지 못하고있는 나 어린 아동들에게 생활의 본질, 사회현상의 본질을 알기 쉽고 명백하게 인식시킬수 있었다.

그것은 둘째로, 과장의 수법을 리용함에 있어서 목적의식적인 시도를 나타낸것이다.

설화의 테두리안에서 발생한 구전동화는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로 전송보급되였으나 어린이들의 심리와 교양목적에 맞게 형상수법을 다양하게 리용하지 못하였으며 더우기 과장의 수법은 그 리용이 회박하였다.

1920년대 전반기에 아동중시사상이 하나의 사회적인 사상으로 등장하고 아동들의 미학적요구가 높아지면서 동화창작은 목적의식적으로 진행되였다. 그 과정에 동화창작에서 과장의 수법을 리용하려는 적극적인 시도를 보여주었다.

어떤 사실이나 사건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보여주는 과장의 수법은 작품에서 주려는 사상을 아이들에게 쉽고 명백하게 인식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이다.

동화 《이상한 샘물》〔방정환 작, 주체 12(1923)년〕에서는 마음씨 착한 늙은 부부와 욕심 많은 박점지를 설정하고 그들의 운명을 과장의 수법을 리용하여 보여주었다.

동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옛날 어떤 산밑에 아들딸없이 사는 두 늙은 내외가 있었다. 그 집은 할아버지의 나무장사로 간신히 살았다. 어느날 나무를 한짐 해가지고 오던 할아버지는 이름모를 새의 아름다운 노래 소리에 끌려 깊은 산골짜기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만 새를 놓친 할아버지는 그곳에서 샘물을 발견한다.

《할아버지는 목이 좀 마르던 참이라 그 샘물을 손으로 움켜서 마시였습니다. … 허리를 펴니까 구부러졌던 허리가 쭉 펴졌어요. …그리구 수염을 만지는데 그 수염이 몽땅 빠졌어요. … 다시 움켜서 마시니 이번에는 자기가 한 스무살 먹었을 때와 똑같이 기운이 팔팔한 더 젊은 새서방님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조차 할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한다.

젊은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샘물터로 데리고 가서 신기한 샘물을 두번 마시게 한다.

《그 꼬부랑할머니가… 한번 더 마시니까 이번에는 참달로 꽃같이 어여쁜 젊디젊은 이십살안팎에 얼굴이 불그스름한 새색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첨지는 어떻게 되는가.

두 젊은 내외의 이야기를 들은 이웃집 박첨지도 서둘러 샘물터로 갔다. 그러나 욕심이 하늘만큼이나 큰 박첨지는 젊어지려는 생각에 샘물을 계속 마시고 또 마셨다. 그리하여 그는 《옹아—옹아—》우는 젖애기로 되었다. 시간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아 산에 올라간 내외는 애기가 된 박첨지를 보고 너무도 우스워 폭소를 터뜨렸다.

그후 두 랑주는 박첨지를 아들삼아 기르게 되었다.

작품은 늙은 부부와 박첨지의 형상을 통하여 어린이들에게 욕심이 많으면 망한다는 교훈을 똑똑히 새겨주었다.

동화 《이상한 열매》〔연성흠 작, 주체 17(1928)년〕, 《이사가는 다람쥐》〔안준식 작, 주체 23(1934)년〕 등에서도 과장의 수법을 적극 리용하여 흥미있는 형상을 창조하면서도 주려는 사상을 명백히 강조하였다.

그것은 셋째로, 신화적환상, 중세기적환상의 제한성을 극복하고 과학적인 환상세계를 펼쳐놓는데로 지향된 것이다.

환상은 비실제적인 형상세계, 창작가의 상상에서 의한 가공된 현실세계를 실지 사실처럼 꾸며서 형상을 창조하는 수법으로서 동화창작에서 없어서는 안될 주되는 형상수법이다.

진취성이 강하고 배우려는 의욕이 왕성한 아이들은 탐구심이 강하며 꿈이 많다.

아동들은 손가락만 한 누에가 아니라 황소만 한 누에가 있기를 바라며 가만 있는 매돌이 아니라 돌리기만 하면 쿵이면 쿵, 쌀이면 쌀 부르는대로 다 나오는 매돌을 원한다.

지난 시기에는 자연과 사회에 대한 과학적인식이 부족한데로부터 아무런 현실적기초도 없는 룡궁이나 천궁, 귀신 등을 등장시켜 착취자들을 징계하고 민인들의 념원을 반영하는 환상세계를 창조하였다.

신화적, 중세기적환상은 상상이 풍부한 어린이들의 심리활동에 맞는 것으로 하여 흥미는 있었으나 인식교양적의의는 별로 가지지 못하였다.

해방전 진보적동화문학은 로동계급의 선진사상이 보급되어 자연과 사회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가 형성되고 민족적 및 계급적모순이 첨예한 속에서 피압박근로대중의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는 새

로운 사회력사적환경의 요구에 맞게 신화적환상이나 중세기적환상의 제한성을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시도를 보여주었다.

동화 《호랑이 고개》〔염복인 작, 주체 26(1937)년〕를 보자.

《아니나다를가 큰 산고개에 이르니 호랑이는 으흥 소리를 치며 달려들어 은동이를 그저 훌쩍 삼켰습니다. 그리고나서는 칼을 차고 소금도 가지고있는 금동이를 또 삼켰습니다. 금동이가 들어가 보니 은동이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호랑이는 다음 또 복동이라도 나무짐채 훌쩍 삼켰습니다. 세 동무는 호랑이배속에서 만났습니다. …너무도 배가 고파 칼로 호랑이살을 베어 나무에다 성냥을 드욱 그어 불을 지르고 구워 소금을 찍어 세 동무는 맛나게 먹었습니다.》

그다음 그들은 힘을 합쳐 칼로 호랑이배를 가르고 마침내 밖으로 나온다.

동화는 환상의 수법을 리용하여 호랑이의 생태적특성과 랑만적이고 꿈이 많은 어린이들의 심리적특성에 맞게 생동하고 재미있는 동화적형상을 보여주었다.

이밖에도 동화 《욕심쟁이 형》〔류일천 작, 주체 27(1938)년〕, 《이상한 매돌》〔로강근 작, 주체 24(1935)년〕을 비롯하여 여러 동화들에서 현실에 토대하면서도 어린이들의 심리에 부합되는 과학적이며 현실적인 환상을 창조하려고 애쓴 진보적작가들의 창작적지향을 찾아볼수 있다.

이와 같이 해방전 진보적동화문학은 동화의 형상수법리용에서 발전적측면을 보여준 반면에 일련의 약점들도 로출시키고있다.

이 시기 동화창작에서 의인화의 대상은 추상적인 개념들에까지 미치지 못하였으며 동화 《부처님의 재채기》(연성흠 작)를 비롯하여 일부 작품들에서는 아동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부처님이나 녀신을 등장시켜 환상을 창조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해방전시기가 가지는 시대적제약성과 동화창작발전과정의 미숙성에 기인된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해방전 진보적동화문학은 총적으로 볼 때 동화창작에서 환상과 과장, 의인화의 수법을 능동적으로 활용하였으며 그 리용에서 구전동화나 현대동화와 구별되는 뚜렷한 특성을 보여주었다.

한 철 욱

《래일》에 비낀 주인공의 형상적매력

오 형 준

새해에도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은 당보, 군보, 청년보의 공동사설을 높이 받들고 강선의 봉화따라 혁명과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비약의 폭풍을 일으키며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령도자는 인민을 믿고 인민은 자기 령도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따르는 우리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이 더욱 철통같이 다져진 속에서 지난해 150일전투가 승리적으로 결속되고 새로운 《희천속도》의 불바람속에서 100일전투의 날과 날이련이여 흘러갔다.

김일성민족의 위대한 정신력을 총분출시켜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끼기 위한 오늘의 최후돌격전은 우리 작가들로 하여금 시대의 주인공, 시대의 기수들의 형상을 더 아름답고, 더 힘있게 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시대의 영웅을 형상하는데서 그들이 처음부터 영웅의 기질을 타고난 기상천외한 인물이 아니라 평범한 출신의 근로자이며 직장가 가정에서 날마다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살고있는 보통 인간이라는것을 잘 보여주어야 한다.》

단편소설 《오늘과 래일》 [리정수 작, 《조선문학》 잡지 주체98(2009)년 1호]의 형상세계는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우리 일군들이 지녀야 할 사상관점과 혁명적일본새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 비교적 깊이있는 해명을 주고있다.

작품에 설정된 극적정황은 참으로 심각하다.

탄광이 월생산계획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단순히 생산실무적인 문제, 탄광내부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석탄공업부문을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인민경제전행부문의 하나로 내세운 우리 당의 정책을 관철하느냐, 관철하지 못하느냐 하는 보다 심각한 문제였다. 따라서 국가로부터 지표별, 공정별로 받은 생산계획을 지배인 한사람의 결심으로 변경시킨다는것은 너무나도 어망치만한 독단과 주관이며 나아가서 당이 준 전투임무앞에서 언제 한번 흥정과 타산을 몰랐던 탄광로동계급의 당적량심을 흐리게 할수도 있는 문제였다.

이 심각한 문제앞에서 작품의 주인공 엄하봉지배인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교대시간에 엄하봉지배인은 탄부들앞에 이렇게 호소한다.

《본론부터 말하겠습니다. 래일부터 우리는 두개 방향에서 동시에 굴진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현행굴진을 보장하면서 한달안에 새탄발을 확보해놓아야 합니다. 지휘성원들을 통해 동무들을 선발할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모두가 이번 전투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각자가 자기들의 어깨에 지워진 책임을 다하자는 의도도 있고해서 이렇게 자원성에 맡깁니다. 탄광당위원회와는 이미 토의가 있었습니다. 이 전투는 제가 직접 지휘하겠습니다.》

굴진이 중요한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탄광의 기본력량을 굴진에 돌린다면, 채탄에서 로력을 뺏아낸다면 채탄이 흔들린다. 국가의 법인 생산계획수행이 미달된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물론 여기까지는 아직 생산실무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이 작품이 독자대중의 심금을 틀어잡는 작품으로 될수 있는 비결은 이러한 생산실무적인 문제를 보다 휘황할 조국의 래일을 위해 자신을 다 바쳐가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혁명적인생관에 관한 문제로 끌어올린데 있다.

작품의 주인공 엄하봉은 한생을 탄광에서 살아온 오랜 탄부이다. 머지않아 탄광막장을 떠나 년로보장을 받아야 할 공로자—

사람들은 누구나 말년이 되면 자식들앞에, 사회앞에 떳떳해지려고 애쓴다. 이것은 엄하봉의 경우에도 다를바가 없다. 더우기 당앞에 한개 탄광의 석탄생산을 책임진 지배인으로서 생산계획을 수행하느냐, 수행하지 못하느냐 하는것은 년로보장을 눈앞에 둔 그에게 있어 인생의 총화라고도 할수 있는 문제였다. 이 인생의 총화를 석탄증산으로 장식하고싶은 그의 열망은 불같다. 그러나 참된 탄부의 량심, 충직한 당원의 심장은 그 시각 《오늘》에 비낀 저 개인의 인생의 총화가 아니라 《래일》에 비낀 조국의 전진을 생각한다.

이 작품에서 오늘과 래일에 대한 심오한 문제는

지배인 엄하봉과 책임부원 명진과의 관계속에서 심화된다.

명진은 탄광에 제대배낭을 풀어놓은 때부터 엄하봉의 손탁에서 채탄소대장으로, 갱장으로, 기업의 책임부원으로 성장한 인물이다. 그런것만큼 명진은 엄하봉이 지배인으로서의 마지막장식을 잘해주자고 원심을 썼고 제나름으로 탄광의 모든력량을 총동원해서 석탄생산을 늘이자고 잡도리를 해왔다. 하여 명진은 채탄에서까지 로력을 뽑아 굴진을 내밀려는 엄하봉지배인의 결심을 선뜻 따르지 못한다. 지어 명진은 엄하봉지배인에게 《개인생활에서나 가정생활에서나 나아가서는 사회와 국가앞에 지닌 공민적의무》에 대해 력설하려고 한다. 진심으로 엄하봉지배인의 《오늘》이 걱정되기때문에...

이러한 명진에게 엄하봉은 말한다.

《안되네. 나에겐 그럴 시간이 없네. 우린 굴진을 해야 해. 3년분의 채탄장을 앞세우라는것은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이야. 가슴이 아프네. 내가 그 채탄장에 손을 댔거던.》

그렇다. 며칠 굴진을 죽인다고 무슨 큰일이 나겠는가. 계획을 해놓고 그만큼 봉창하면 될수 있다는 단순한 리치를 엄하봉이 모른단 말인가.

아니—

래일의 탄광!

바로 래일의 탄광은 조국의 미래, 강성대국의

령파루에 잇닿아져있다.

이로써 작품은 인생의 시작과 끝은 있어도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래일은 오늘에 마련되어야 한다는 뜻깊은 생활철학을 풀어내었다.

이 생활철학속에서 엄하봉지배인은 비록 오늘을 위해 초과계획을 못하고 사업을 인계했지만 그가 지닌 공민적량심은 지심속 깊이에 묻혀있는 석탄처럼 불수도 켤수도 없는 값높은것이라는 《래일》에 비끼는 주인공의 형상적매력을 부각시켰다.

작품에는 다소 아쉬움도 있다.

작품에서는 엄하봉지배인의 장인 지선로인의 형상과제가 뚜렷하게 내세워지지 못한 아쉬운 빈구석도 찾아보게 된다.

지선로인의 형상을 엄하봉과 명진, 엄하봉과 그의 안해의 관계속에서 보다 깊이있게 파고들었다면 엄하봉의 형상이 더욱 선명해지지 않았을가.

오늘의 격동적인 현실은 모든 일꾼들이 혁명의 송풍기가 되고 가속기가 되어 힘있는 정치사업과 대담한 작전, 능숙한 지휘로 온 나라에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북소리가 높이 울리고 창조와 혁신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게 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이 들끓는 현실속에서 시대의 기수, 시대의 영웅들의 형상을 더 아름답게, 더 감명깊게 찾아내기 위해 사색하고 또 사색해야 할것이다.